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3

한국 노동운동 관련 문헌 해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총서 최종보고서

한국기독교 노동운동관련문헌해제

2003년 4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총서 최종보고서

한국노동운동관련문헌해제

2003년 4월

작성자: 이광일 · 강병익 · 최선화

- 목 차 -

Ⅰ. 한국 노동운동연구의 현황과 과제 ····· 1

Ⅱ. 해제 문헌 차례 ····· 7

Ⅲ. 문헌 해제 ····· 12

1. 노동운동 ····· 12

1) 민주노조운동 ····· 12

2) 지역노동운동 ····· 58

3) 여성노동운동 ····· 69

4) 노동자정치운동 ····· 78

2. 노동통제 및 노동정책 ····· 93

3. 노동계급의 형성 및 노동자의식 ····· 108

4. 노동운동논쟁 ····· 111

1) 급진적 대중정치운동과 경제적 노동조합운동논쟁 ····· 111

2) 전노협 건설 논쟁 ····· 113

3) 민주노조운동 위기 논쟁 ····· 115

Ⅳ. 참고문헌 ····· 118

1. 노동운동 ····· 118

1) 민주노조운동 ····· 118

2) 지역노동운동 ····· 124

3) 여성노동운동 ····· 125

4)노동자정치운동 ····· 126

2. 노동통제 및 노동정책 ····· 129

3. 노동계급의 형성 및 노동자의식 ····· 133

4. 노동운동논쟁 ····· 135

발 간 사

오늘날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국내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특별한 사명과 과제를 지니고 있고, 특별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서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국민의 동의를 확대하여 평화의 토양을 더욱 더 다져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여전히 전쟁과 파괴, 독재와 야만으로 얼룩져있는 세계에서, 한국의 민주화과정은 특별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한국 민주화역사는 민주화를 향한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국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 이전의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논의할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세기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결과입니다. 한국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피어난 민주주의는, 전쟁과 불안, 독재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민중들에게 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반은 굳건하지 못합니다.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거청산을 위한 동의와 합의의 토대가 아직은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주화운동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말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여전히 채워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또하나의 현실인 듯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 토대인 과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복원하는 것, 오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망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과 합의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거나 역사 속에 묻혀버린 과거 민주화운동을 발굴·복원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에 힘 입어 설립된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여러 이론적 논의들을 연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밝혀내어 향후 새로운 민주주의 상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연구총서의 발간입니다.

연구총서 발간은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논의 등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총서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연구소로서 본격적인 연구 이전의 선행연구로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내실을 다져가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문이 많지만 연구소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운동, 학생운동, 정치운동, 교회운동 4개 부문을 먼저 조사·연구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족함이 많은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땀과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작은 성과임은 분명합니다. 이번 민주화운동 연구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향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내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희의 이번 조사·연구가 민주화운동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고, 더 심화된 연구를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연구에 참여해 귀찮고 힘든 작업을 성실히 해주신 연구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

니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총서 기초조사사업을 토대로, 향후 한국민주화운동의 과거복원과 미래전망의 정립에 기여하는 여러 이론적 성과들이 축적되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2003.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Ⅰ. 한국 노동운동연구의 현황과 과제

1. 한국 노동운동 연구현황조사의 의의

1996년 12월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벌어진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은 전세계 노동운동진영에 한국노동운동의 위상을 재고시키는 사례로 남겨져 있다. 물론 이 총파업 투쟁이 지지부진하게 정리 된 이후 한국 노동운동은 험난한 내부투쟁 국면에 돌입하는 등 좀 더 정교한 분석(강수돌, 2001,『노동의 희망』, 이후)이 요구되기는 하겠지만, 신자유주의 물결이 요동치는 세계정세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이 보여준 투쟁의 파고는 세계 노동운동 진영의 관심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한국 노동운동의 위상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전환점으로 전개된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역사성으로부터 나온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일제시대로까지 거슬러 갈 수 있겠지만, 이번 조사사업에서 대상기간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로 한정한다. 반공과 개발이데올로기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극단적으로 배제되었던 권위주의시대에 노동자들의 실상이 사회적인 충격으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청계피복의 노동자였던 '전태일 분신'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식인들과 학생들사이에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노동자들 스스로도 기존의 어용노조를 거부하고 자주적인 노조를 결성하여 이른바 '민주노조운동'의 흐름을 형성시켰던 70년대가 현재 한국노동운동의 밑거름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70년대 '노동3권'과 '인간적인 삶'이라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담은 투쟁은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에 대항하면서 더욱 견고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의 해체라는 결과로 귀결되기도 했다. 그리고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운동 및 사회주의 이념과의 결합을 통해 조합운동의 성격뿐만 아니라 계급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세력의 등장으로 변혁운동의 주요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90년대 들어 노동운동은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를 근간으로 한 국가·자본의 노동통제, IMF사태, 그리고 노동운동의 진로와 관련한 내부 대립, 민주노조의 정체성 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또 한번의 자기혁신의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가장 친민주적인 계급이 노동계급"(루시마이어 외, 박명림 외 역, 1997,『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나남)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리'운동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이들의 역할은 유효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운동연구는 민주주의의 포괄적 의미가 응축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사업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위상·과제를 다룬 학위논문·단행본·일반논문 등을 대상으로 연구대상별로 경향과 내용 등을 재구성하고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2. 해제대상문헌과 참고문헌의 분류

문헌분류는 연구대상에 따라 크게 1)노동운동 2)노동정책 및 노동통제 3)노동계급의 형성 4)노동운동논쟁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이번 조사사업에서 해제대상은 '노동운동연구'관련 문헌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이 국가·자본의 노동정책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그리고 좀 더 큰 범주에서의 '노동체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 근래 한국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형성'도 노동운동연구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판단에 따라 분리했고, '노동운동논쟁'은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와 역할을 둘러싼 이념적·조직적 문제에 관해 정리할 필요성에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은 다시 민주노조운동, 지역노동운동, 여성노동운동, 노동자정치운동으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

3. 연구현황(해제: 37, 참고문헌: 415)

1)노동운동(해제: 32종, 참고문헌: 159)

노동운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들은 그 연구방법에 따라 크게 '비교연구'와 '단일사례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 또는 양자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 단일사례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연구는 소수이지만 국가간 비교연구와 지역비교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단일사례연구가 연구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80년대 사회변혁운동(론)에 대한 관심이 노동운동연구에도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90년대 들어서는 기존의 변혁운동론(거대담론)적 또는 거시역사적 분석과 함께 노동조합, 노동자 내부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인 연구방법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가간 비교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노동운동이라는 주제의 특수성, 즉 운동(론)이 가지는 국가내 전개과정과 과제에 논의가 집중되었던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비교연구 또는 자료는 아니지만, 외국(주로 유럽)의 노동운동에 대한 문헌은 많이 소개되었다. 국가간 비교연구는 앞으로 노동운동연구의 좀 더 폭넓은 진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으로 판단된다.

문헌해제 방식은 각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및 평가와 함께 해제문헌 목록을 첨부했다. 해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으로 뒷부분에 첨부시켰으며, 문헌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중복분류된 것들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노동운동 연구문헌은 구체적인 대상과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1)민주노조운동

민주노조운동과 관련된 단행본들은 대부분 『○○노동운동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거나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단일사업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 문헌들은 주로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등장배경과 전개, 그리고 그 의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80년대와 90년대 중반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한국의 노동운동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노동운동사와 노동조합의 투쟁사를 모은 글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글들은 대부분 70년 전태일 분신을 계기로 노동기본권 쟁취를 목표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동운동의 이념을 쟁점으로 일반논문이나 기고문의 경우는 90년을 기점으로 그 경향성이 다소 나누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90년 이전은 주로 사회변혁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흐름에서 노동운동의 이념을 서술하는 경향이 다수였던 반면, 그 이후는 민주노조운동의 침체논란과 함께 이른바 '신조합주의'로 통칭될 수 있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노동운동의 이념과 관련한 논쟁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이 부분은 '노동운동논쟁'편에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주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쇠퇴를 둘러싼 쟁점과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의 내적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가 다

수 진행되었다.

▶해제문헌(해제: 19종, 참고문헌: 161종)

강수돌, 2001,『노동의 희망』, 이후
권형철, 1994,「전노협건설논쟁」, 권형철 정리,『한국변혁운동논쟁사』, 일송정
김동춘, 1995,『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김보현, 1996,「한국 노동운동의 위축과정 분석: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성균관대 석사논문
김준, 1993,「아시아 권위주의국가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1985,『동일방직 노동조합 운동사』, 돌베개
방현석, 1999,『아름다운 저항』,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책
안승천, 2001,『한국노동자운동, 투쟁의 기록: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박종철출판사
원풍모방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1988,『민주노조10년』, 풀빛
유경순, 2000,「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발생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가톨릭대 석사논문
이영민, 1988,『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죽산
임영일, 2001,『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 출판부
조재희, 1993,「한국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87-1992」, 고려대 박사논문
최경희, 1996,「한국 노동운동의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외국어대 석사논문
최장집, 1988,『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최창우, 1987,「구로동맹파업의 발생원인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7-8월 노동자 대중투쟁』, 민중사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1994,『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허은영, 1998,「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노조운동의 조직강화를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논문

(2)지역노동운동(해제: 5종, 참고문헌: 18종)

한국의 노동운동연구는 주로 사업장이나 전국적 단위로 성과를 남겨왔다. 하지만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경남권의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일정하게 생겨나게 되는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학의 연구소나 노동단체의 활동이 증대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기업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연구에만 치중하게 되면 실제 전개되고 있었던 지역노동운동의 성과가 사상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노동운동을 주제로 한 단행본이나 학위논문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공업지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비교연구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노동운동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을 근거로 한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도 연구의 주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제문헌

김은미, 1993,「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리와 연대: 1980년대 이후 부천지역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김하경, 1999,『내사랑 마창노련』(상 · 하), 갈무리
신이현, 1990,「마산 · 창원지역의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마산 · 창원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논문
이상철, 1990, 『한국의 지역노동운동 연구: 포항, 울산, 마산 · 창원 지역의 비교』, 한울
이영민, 1988,「노동자대투쟁의 전개와 지역별 · 부문별 개관」, 이영민,『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죽산

(3)여성노동운동(해제: 5종, 참고문헌: 17종)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주역이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80년대 중화학공업과 기간산업의 주요 구성원을 이루었던 남성노동자 중심의 운동사에 가려져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이 분야의 연구경향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역할 재해석하고 복권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수기나 일기와 같은 자료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제 여성노동운동연구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아니라, 과거 노동운동의 남성 중심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찾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해제문헌

구해근, 2002,『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방혜신, 1993,「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특수과제의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이옥지 · 강인순, 2001,『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1 · 2), 한울
장미경, 2000,「'시민권의 정치'와 여성노동운동(1987-1999)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정미숙, 1993,「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세계적 연구: 섬유업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4)노동자정치운동(해제: 4종, 참고문헌: 50종)

노동자정치운동을 노동운동연구의 독자적 범주로 설정한 이유는 실제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화두를 형성했던 것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정치운동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른 연구성과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일반적으로 주로 민주노조운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정치운동이 70-8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라는 측면에서 노동운동이 하나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당위적 측면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 실현방안과 여타 노동운동을 둘러싼 조건에 대한 극복과제가 심층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정치운동은 정치세력화와 정당운동 뿐만 아니라 국가 · 자본과 노동운동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노동운동을 다룬 연구성과들을 포함한다.

▶해제문헌

김세균 외, 1996,『노동운동과 정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현장에서 미래를

김영수, 1999,『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연대의 정치, 분화의 정치, 통일의 정치』, 현장에서 미래를

이광일, 2000,「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정연정, 1992,「현대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노협과 한노당의 정치세력화 실패원인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조효래, 1994,「민주화와 노동정치: 한국, 브라질, 스페인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노동통제 및 노동정책(해제: 4종, 참고문헌: 90종)

국가-자본-노동의 관계로 형성되는 노동(통제)정책은 일반적으로 노동운동분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설정되지만, 제도 및 정책, 그리고 법률을 둘러싼 삼자 또는 양자(국가·자본-노동)간의 대립과 '노동체제'로 설명된다는 의미에서 독립적인 영역으로 설정했다. 이 영역은 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자본-노동에 의해 형성되는 거시적 '노동체제'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70-80년대 한국의 노동체제를 '코포라티즘(corporatism)'으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학위논문들이 대량 양산되었던 현실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 분석범주를 작업장으로 좁혀 작업장내의 통제정책과 권력관계를 밝히는 미시적인 접근도 시도되고 있다.

▶해제문헌

노중기, 1995,「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1987-1992」, 서울대 박사논문

박동, 2000,「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협약의 정치에 관한 연구: 1987~1998」, 고려대 박사논문

신병현, 2000,『작업장문화와 노동조합』, 현장에서 미래를

장홍근, 1999,「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1987~1998」, 서울대 박사논문

3)노동계급의 형성 및 노동자의식(해제: 2종, 참고문헌: 43종)

계급문제가 사회과학의 주요한 연구 대상의 하나로 설정되었던 것은 마르크스(K. Marx)가 세계사의 발전 과정에 대해 계급 투쟁사적 관점을 제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즉 동일한 계급 이해를 갖는 객관적 존재로서의 계급이 계급 의식을 매개로 변혁 주체로서의 대자적 계급으로 전환되면서 계급 투쟁이 전개된다는 것이다(이수인, 1990,「노동 계급 형성론에 대한 일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노동계급 형성이론과 한국사회』, 문학과지성사). 이는 계급(의식)형성에서 '공통의 경험'을 강조한 것인데, 마르크스가 이를 생산관계의 동질적 점유로 파악한 반면, 톰슨(E. P. Thompson)은 행위자들이 객관적 구조를 경험함으로써 주체적으로 형성된 그들의 주관적 의식상태를 중요한 한 요소로 보았던 것이다. 이 외에 계급의식을 주관적 의식과 객관적 조건의 변증법 관계로 보면서 4가지로 유형화한 마이클 만(M. Mann)의 논의 등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이처럼 이론으로서의 노동계급형성 연구는 국내에 종종 소개되었으나 한국의 노동계급 형성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논문은 최근

에 번역되어 출간된 구해근과 김동춘, 조돈문의 학위논문(「제3세계에서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남한과 멕시코의 비교연구」, 1994)외에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과거 자본주의 형성문제와 관련해 노동계급의 형성문제가 이에 종속된 것으로 본 이론적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제문헌
구해근, 2002,『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김동춘, 1995,『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4)노동운동논쟁

본문해제 참조

3. 연구과제

1)국가간 비교연구

2)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의 이념 (재)정립

3)노동계급 형성 연구를 위한 자료발굴과 노동자 의식형성에 관한 미시연구

4)노동운동의 국제연대를 위한 조직화 방안

5)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간의 관계정립

6)노동통제(정책)에 관한 작업장 수준과 같은 미시적 연구와 중범위 수준(middle-level; 거시정책 또는 노동체제가 작업장 수준에서 발생하는 대립관계)의 연구방법 개발

7)80년대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에 대한 재평가

8)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재평가와 현실 운동에서의 과제

9)노동자 내부관계의 변화(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노동자와 중소기업노동자,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등)를 고려한 노동자 의식과 상태 및 노동운동진영의 대응과제
10)노동운동논쟁의 경우 선진노동자 및 학술운동 진영의 논쟁을 넘어 기층 조직노동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11)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에 있어 그 시점

Ⅱ. 해제 문헌 차례

1. 노동운동

1)민주노조운동

강수돌, 2001,『노동의 희망』, 이후(단행본)

권형철, 1994,「전노협건설논쟁」, 권형철 정리,『한국변혁운동논쟁사』, 일송정(단행본)

김동춘, 1995,『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단행본)

김보현, 1996, 「한국 노동운동의 위축과정 분석: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학위논문)

김준, 1993, 「아시아 권위주의국가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논문(학위논문)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1985, 『동일방직 노동조합 운동사』, 돌베개(단행본)

방현석, 1999,『아름다운 저항』,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책(단행본)

안승천, 2001,『한국노동자운동, 투쟁의 기록: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박종철출판사(단행본)

원풍모방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1988,『민주노조10년』, 풀빛(단행본)

유경순, 2000,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발생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가톨릭대 석사논문(학위논문)

이영민, 1988,『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죽산(단행본)

임영일, 2001,『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 출판부(단행본)

조재희, 1993, 「한국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87-1992」, 고려대 박사논문(학위논문)

최경희, 1996, 「한국 노동운동의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외국어대 석사논문(학위논문)

최장집, 1988,『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단행본)

최창우, 1987, 「구로동맹파업의 발생원인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학위논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7-8월 노동자 대중투쟁』, 민중사(단행본)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1994,『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단행본)

허은영, 1998,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노조운동의 조직강화를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논문(학위논문)

2)지역노동운동

김은미, 1993,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리와 연대: 1980년대 이후 부천지역 사회운동을 중심으

로」, 이화여대 석사논문(학위논문)
김하경, 1999,『내사랑 마창노련』(상・하), 갈무리(단행본)
신이현, 1990,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논문(학위논문)
이상철, 1990, 「한국의 지역노동운동 연구: 포항, 울산, 마산・창원 지역의 비교」, 한울(학위논문)

3)여성노동운동

방혜신, 1993,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특수과제의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학위논문)
이옥지・강인순, 2001,『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 한울(단행본)
장미경, 2000, 「'시민권의 정치'와 여성노동운동(1987-1999)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학위논문)
정미숙, 1993,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세계적 연구: 섬유업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학위논문)

4)노동자정치운동

김세균 외, 1996,『노동운동과 정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현장에서 미래를(단행본)
김영수, 1999,『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연대의 정치, 분화의 정치, 통일의 정치』, 현장에서 미래를(단행본)
이광일, 2000,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학위논문)
정연정, 1992, 「현대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노협과 한노당의 정치세력화 실패원인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학위논문)
조효래, 1994, 「민주화와 노동정치: 한국, 브라질, 스페인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논문(학위논문)

2. 노동통제 및 노동정책

김민호, 1997, 「노동교육 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학위논문)
노중기, 1995,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1987-1992」, 서울대 박사논문(학위논문)
박동, 2000,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협약의 정치에 관한 연구: 1987～1998」, 고려대 박사논문(학위논문)

신병현, 2000,『작업장문화와 노동조합』, 현장에서 미래를(단행본)

장홍근, 1999,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1987～1998」, 서울대 박사논문(학위논문)

3. 노동계급의 형성 및 노동자의식

구해근(2002),『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단행본)

4. 노동운동논쟁

1)급진적 대중정치운동과 경제적 노동조합운동 논쟁

김문수, 1986,「어느 실천적 지식인의 자기반성」,『현장6』, 돌베개(잡지・저널・기타)

김성훈, 1986,「85년 노동운동에 관한 두 개의 평가」,『현장6』, 돌베개(잡지・저널・기타)

김용기・박승옥, 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80년대를 중심으로』, 현장문학사, pp.181-252, 351-418(단행본)

서노련, 1985,『선봉에 서서』, 돌베개(단행본)

유경순, 2000,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발생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가톨릭대 석사논문, pp.67-78(학위논문)

이광일, 2000,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pp.150-181(학위논문)

임영일, 2001,『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출판부, pp.81-88(단행본)

정대용, 1988,「재야 민주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 한국기독교산업개발연구원,『한국노동운동의 이념』, 정암사(단행본)

2)전노협 건설 논쟁

강상호, 1988,,「노워크 노페이, 노조대표권시비, 그리고 복수노조 문제에 대하여」,『새벽』 제2호, 석탑(잡지・저널・기타)

우리노동문제연구원, 1989,「노총민주화론과 제2노총론의 비판적 검토」, 우리노동문제연구원,『민주노조운동의 현황과 전망』, 백사서당(일반논문)

이목희, 1988,「복수노조 제2노총, 민주노동운동의 확고한 토대를」,『노동자의 벗』, 제4호, 중원문화사(일반논문)

이영민, 1988,「민주노조 및 공장활동 조직과 관련하여」, 이영민,『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죽산(일반논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988,「7·8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노동조합운동의 당면과제」,『노동자의 길』 제31호(잡지·저널·기타)

임삼진, 1988,「시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창작과비평』 62호(겨울)(잡지·저널·기타)

임영일, 2001,『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출판부, pp.89-115(단행본)

장명국, 1989,「노동조합 전국조직 건설의 방향」,『새벽』 제4호, 석탑(잡지·저널·기타)

전국노운협, 1989,「집중기획: 전국노조협의회 건설에 관한 토론」,『공장에서 전국으로 전진하는 노동운동』, 1989, 사계절(일반논문)

한종구, 1989,『노동조합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백사서당(단행본)

3)민주노조운동 위기 논쟁

강수돌·황기돈, 1992,「'노동운동;의 위기인가, '노동운동론'의 위기인가」,『사회평론』 9-10호(잡지·저널·기타)

김동춘, 1993,「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조직화의 실패」,『경제와 사회』, 겨울(잡지·저널·기타)

김수진, 1995,「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전망: '사회적 합의' 실험과 조직재편을 중심으로」,『경제와 사회』 제25호(잡지·저널·기타)

김익진, 1992,「'퇴조기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한다」,『노동운동』 9월호(잡지·저널·기타)

김진균, 1992,「민중민주주의의 전망」,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일반논문)

김형기, 1992,「'진보적 노자관계'와 '진보적 노동조합주의'를 위하여」,『경제와 사회』, 가을(잡지·저널·기타)

노중기, 1995,「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1987-1992」, 서울대 박사논문, pp.11-16, 306-338(학위논문)

박동, 2000,「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협약의 정치에 관한 연구: 1987-1998」, 고려대 박사논문, pp.16-18(학위논문)

박세일, 1992,「노사대결론에서 노사합작론으로」,『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선택』, 동아일보사(단행본)

박승옥, 1992,「한국노동운동, 과연 위기인가」,『창작과 비평』 20권 2호, 여름(잡지·저널·기타)

박승호, 1992,「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조합주의적 한계를 시급히 극복하자」,『노동운동』 7월호(잡지·저널·기타)

이광일, 2000,「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pp.247-269(학위논문)

임영일, 1992,「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경제와 사회』, 가을(잡지·저널·기타)

임영일, 2001,『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

남대출판부, pp.18-186(단행본)

임혁백, 1992,「민주화시대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틀 모색: 국가, 시장,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동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일반논문)

임현진・김병국, 1991,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계간 사상』, 겨울(잡지・저널・기타)

최규엽, 1992,「'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을 비판한다」,『노동운동』 7월호(잡지・저널・기타)

최장집, 1992,「한국의 노동계급은 왜 계급으로서의 조직화에 실패하고 있나」,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일반논문)

Ⅲ. 문헌해제

1. 노동운동

1) 민주노조운동

1. 제목: 『노동의 희망』

2. 저자: 강수돌

3. 발행연도: 2001년

4. 쪽수: 227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이후

7. 목차

펴내면서

Ⅰ. 무엇이 문제인가

1. 서론: '노동운동 위기' 논쟁

2. 위기적 징후들

Ⅱ. 위기의 거시적 배경

1. 신자유주의 세계화

2. 구조조정 프로그램

Ⅲ. 네 가지 위기

1. 조직화의 위기

2. 현장 권력의 위기

3. 지도력의 위기

4. 이념의 위기

Ⅳ. 올바른 대응을 위한 현실사례 탐구

Ⅴ. '생동하는 연대'를 위한 여덟 가지 아이디어

보론

참고문헌

8. 연구목적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 극복방안 모색한다.

9. 연구내용

이 책을 통해 필자는 98년 ‘노사정’합의를 직접적인 계기로 현재의 노동운동이 정체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92년을 전후로 한 ‘노동운동위기논쟁’(자료집 제4부 노동운동논쟁참조)이 전노협과 노동운동의 ‘전투성’에 대한 시각차,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으로부터 출발한 논쟁이 아니었던 반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현장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민주성과 자주성의 위기, 구조적인 위기이자 사회개혁적 발전전략의 위기라고 규정한다. 이 책의 특징은 이러한 필자의 시각을 다양한 현장사례를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금의 민주노조운동이 1)조직화의 위기: 기업별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가 다른 노동계층을 배제 2)현장 권력의 위기: 양보교섭과 직권조인 관행이 현장 권력의 위기를 초래하고 3)지도력의 위기: 불철저한 조합민주주의가 지도력을 흔들고 있으며 4)이념의 위기: 사회적 합의주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등의 노선이 노동계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동의 위기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노조운동의 위기 논쟁 촉발하는 ‘네 가지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 위기는 ‘지배논리의 내면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 노동의 솔직한 현실은, 노동이 자본의 운동과정 속에 대체로 편입되어 거대한 기계 속에 일종의 톱니바퀴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쟁체제의 내면화, 지배논리의 내면화가 노동의 주체적 저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노동운동의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성공 사례들은 모두 ’자기조직화’와 ’생동하는 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노동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생동하는 연대는 노동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간의 실질적인 연대를 지칭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평조합원과 노조간부,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우리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국내 노동자와 세계 노동자, 본사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간의 연대가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그것을 위한 구체적 경로를 8가지로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다.

1. 따뜻한 조직을 만들자
2. 현장 토론을 활성화하자
3. 자율 역량을 강화하여 운동의 독재를 막자
4. 지도부에만 기대지 말고 기층이 지도부를 움직이자
5.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풀뿌리 연대를 강화하자
6.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는 단호하게 싸우자
7. 운동 내부의 계급과 차별을 철저히 없애자
8. 경쟁력 중심이 아닌 삶의 질 중심의 구조조정을 운동의 비전으로 공유하자

10. 연구의의

현재 한국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노조지도부의 시각이 아니라 현장 조직의 시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마지막 장에 제시하고 있는 8가지 경로 역시 현장사례를 담고 있는데, 사례소개 뿐만 아니라 실현방안의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1. 제목: 「전노협건설논쟁」, 『한국변혁운동논쟁사』

2. 저자: 권형철

3. 발행연도: 1990

4. 쪽수: 244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일송정

7. 목차

1. 노동법개정논쟁- 복수노조개폐 논쟁

①복수노조금지 철폐론

②복수노조 존속론

2. 노동조합 전국조직 논의- 전노협 논쟁

①노총민주화론

②제2노총론(민주노총론)

③노총와해론

3. 전노협의 현재적 입장

8. 연구목적

전노협 건설을 둘러싼 활동가 또는 정치조직간 논쟁을 소개하는데 있다.

9. 연구내용

전노협건설을 둘러싼 조직노선논쟁은 1988년 8월 이후에 제기된 노동악법개정 논쟁 및 투쟁과 결합되면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문제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노동법 개정논쟁은 노동조합 3조 5항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철폐여부를 중심으로 쟁점화되는데, 이 쟁점은 '민주적인 전국노동조합조직 건설' 방법론-'노총민주화론', '제2노총론(민주노총론)', '노총와해론'-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1)노동법개정논쟁-복수노조개폐논쟁

복수노조금지 금지조항이 민주노조건설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은

민주노조건설(사업장별)-지역별 · 산별노조건설을 통해 제2노총(민주노총)을 건설하자는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존속을 주장하는 존속론은 금지조항의 철폐가 오히려 자본측에 의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무기로, 민주노조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입장은 노총을 민주화하자는 '노총민주화론'의 입장과 연결되어 있다.

2)노동조합 전국조직 논의-전노협논쟁

①노총민주화론: 주로 수도권 지역의 많은 노동운동정파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집행부교체를 통한 노총민주화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제2노총론은 광범위한 중간적 · 후진적 대중을 방기하고 반동적인 노조어용집행부 세력과의 정면투쟁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법 개정의 주요한 요구도 26조의 총회소집권자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제2노총론(민주노총론): 제2노총론은 전노협 건설을 제2노총으로 가는 실질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③노총와해론: 노총와해론은 '노총민주화론'에 대해서는 현실성의 문제를 들어 비판하고 '제2노총론'에 대해서는 '간부중심의 사고방식'을 이유로 역시 비판했다. 이들은 단위사업장 노조를 강호하여 기존 노총을 밑으로부터 허물어버리고 노총시협의회 및 산별연맹(중간허리)를 안팎으로 공략해 나가며 민주대연합을 실현시키는 것을 제기했다. 이 주장은 민주노조의 독자적인 조직활동과 노총체계내의 활동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을 회피하고 절충시키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10. 연구의의

책이 출판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전노협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논쟁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논쟁의 주체와 그 내용을 소개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1. 제목:『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2. 저자: 김동춘
3. 발행연도: 1995
4. 쪽수: 516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역사비평사

7. 목차

서론

1.문제제기
2.이론적 논의: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에 대한 설명
3.개념 및 연구방법
4.자료
제1장 노동자의 영향력
제1절 영향력의 기반: 쟁의활동과 노조조직화
제2절 영향력 행사의 수준 및 방식
제3절 노동자 영향력에 대한 상이한 평가
제2장 노동운동의 전환점: 1987년 '노동자대투쟁'
제1절 '대투쟁'의 성격과 전개과정
제2절 사업장 조건과 노동자의 대응: 유형화
제3절 '대투쟁'의 심화와 확대
제4절 소결: '대투쟁'의 성격과 한계
제3장 노동조합 조직화의 구조적 기반
제1절 경제적 기반
제2절 정치사회적 기반
제3절 노동조합 조직화의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노동자 의식: 회사소속의식과 연대의식
제1절 노동조건의 변화
제2절 노동자의 지향
제3절 노동조합과 노동자
제4절 회사, 노동조합과 노동자: 이중적 태도와 그 기반
제5절 노동자의 행동: 시기별 변화와 유형화
제6절 소결
제5장 노동조합: 내부역학과 활동노선
제1절 한국 노동조합의 성격과 위상
제2절 노조지도부의 의식과 지향
제3절 노동조합의 내부 역학과 행동: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제4절 소결
제6장 노동운동: 노동조합의 연대와 파편화
제1절 노동운동가
제2절 연대의 궤적과 그 한계
제3절 노동자의 정치활동과 노동계급 형성: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고립
제4절 요약과 전망

결론

8. 연구목적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의 문제를 노동조합의 구조적 기반과 노동자 의식·행동이라는 주체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규명하는데 있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 1987년 이후 중공업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중심으로』(1993)를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것이다. 서론에서는 필자의 문제제기와 연구방법이 드러나 있다. 노동조합의 성장과 약화를 좌우하는 원인에 대해 경제상황의 변화에 중점을 두는 시각과 국가 및 정치적 지배질서에 중점을 두는 시각이 공존한다고 보고 행위주체인 노동자나 노동운동 지도부의 지향과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는 다양한 설명들은 있으나, 구조적 조건의 변화와 주체적 대응과정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귀결되는가에 대한 동태적인 연구, 즉 구조와 행위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연구는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노동자(노동조합)의 영향력을 90년을 기준으로 쟁의활동과 노조조직화, 노조조직률 및 조직형태, 그리고 단위노조의 활동과 제도개혁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한국 노동자의 영향력이 사업장 단위에서는 상당히 증대된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는 과거와 다름없는 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노동자의 점증하는 요구나 영향력 발휘의 시도가 사업장 단위의 단체교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양자의 괴리가 필자가 설명하려는 노조조직력과 영향력의 분산, 파편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위와 같은 시각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하 '대투쟁')'을 평가하고 있는 제2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제3장에서는 90년대에 접어들어 나타나는 낮은 노조조직률 및 조직률 하락의 원인을 살피고 있는데, 이는 개별사업장에서 노조가입자에 비해 미가입자의 수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이거나, 영국·독일 등과 같이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일본식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종업원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한데서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공무원·교원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강압적 제약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업별 조직체계라는 '제도적 조건'과 관행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노동자 의식을 회사소속의식과 노동자간 연대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87년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대체로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노동통제속에서 극히 고립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남아있었지만 '대투쟁' 이후 노조에 대한 높은 헌신성과 사용자와는 심각한 갈등의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노조활동이 다시 심각한 제약을 받으면서, 노조가 점차 무력해지고, 노조의 '위협효과'에 의해 임금 및 기업내 복지가 크게 향상되면서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나마 협력적 태도를 취하는 노동자층이 형성되었다. 결국 1987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한국 노동자들의 대략적인 지향은 ‘자기보존적인 이기주의’와 회사에 대한 ‘비규범적 협력 행동’, 노동조합에 대한 ‘높은 연대지향성’이 결합된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기업별 노조제도와 기업 단위 교섭체계가 어떻게 유지,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노조지도자들의 지향, 의식, 활동노선 및 단위노조의 내부역학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기업협조적 노사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제도적 제약을 인정하지만, 형식조직으로서 노조의 논리(logic)와 이러한 제도적·조직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노조 내 행위주체들의 ‘대응과정을 매개로 하여’ 기업 단위 노조활동이 불안정한 형태로 반복·재생산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기업단위 노조는 한국 사회 노동자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이익표출 통로로서 노조(과제)의 과부하에 원인이 되고 있고, 집행부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노조 활동패턴의 근본적인 변화 동력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6장은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을 노동조합의 연대시도와 실패(파편화)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즉 87년 이후 노동조합간 공동교섭의 시도와 새로운 산별노조 결성을 향한 시도는 노조간의 공동행동과 전노협 이후 ‘비합법’ 노조연대 조직의 ‘제도화’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남길 수 있었지만, 노동자 내부의 이해관계가 차별적이고, 비합법 조직에 대한 노동자들의 부담감 때문에 단위노조는 기업별 교섭활동과 기업별 노조조직 체계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필자는 한국 노동자들의 이중적인 충성심, 기업별 노조체계가 노동자의 계급형성의 굴절·좌절 혹은 기형화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톰슨(E. P. Thompson)식의 ‘문화적 계급형성론’이나 그것의 반론으로 제기된 뷰러워이(M. Burawoy)의 ‘생산의 정치’를 통한 계급형성론과는 다른 맥락에서 제도와 조직을 통한 계급형성의 가능성과 한계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필자는 1987년 이후 노동조직률 하락과 기반의 약화문제를 노동운동의 전략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체계라는 구조 또는 제도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 속에서 주체적 대응의 측면으로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화되는 과정을 다양한 지표와 면접조사결과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고립화가 87년 이후 주요하게 등장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업별 노조체계라는 제도와 노동자의 고립화가 서로를 규정하는 ‘악순환’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1. 제목: 「한국 노동운동의 위축과정 분석: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2. 저자: 김보현

3. 발행연도: 1996

4. 쪽수: 110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7. 목차

1. 서론
2. 기존 논의의 검토와 이론적 전제
   2.1. 기존 논의의 비판적 검토
   2.2. 이론적 전제와 분석틀
3. 정치정세와 노동운동
   3.1. 민주화정세와 '대투쟁'
   3.2. 민주화전선의 특수성
   3.3. 정세의 변화와 노동운동
4. 노동과 자본·국가의 대립
   4.1. 노동운동의 성장
   4.2 자본과 국가의 억압성
   4.3 일상적 대립의 효과
5. 자본과 국가의 전면적 공세
   5.1. 축적조건의 약화와 산업구조조정
   5.2. 정치적 지배권의 불안정성
   5.3. 자본과 국가의 전면공세
6. 노동운동의 위축
   6.1. 노동운동의 수세적 대응
   6.2. 노동운동의 위축
   6.3. 노동운동 위축의 결과
7. 결론
8. 참고자료/문헌

8. 연구목적:

90년대 초반 이후 노동운동과 관련된 논의의 주요 테마였던 '노동운동 위기론'들과 그 반론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래, 90년대 초·중반경 노동운동이 처한 실제의 상태를 재평가한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의 대상은 노동운동의 지배적 상태와 그 상태의 변화, 변화의 동인들이다. 지역, 기업규모, 산업부문, 제도화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된 특정 노동운동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민주

노조운동'이 노동운동의 주류를 형성해왔다는 판단 위에서 그들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국면적(conjunctural)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그 상태를 귀결시킨 인과성에 주목하고, 노동운동의 모습은 물론 운동을 규정짓고 동시에 운동으로부터 영향받은 객관적 조건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연구 대상시기는 주로 87년 '대투쟁'기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는 국면에 한정한다. 그 이전에도 노동운동의 발전은 있었으나 노동운동의 초보 조직이라 할 노동조합마저 온전한 기능을 확보하면서 대중화된 것은 '대투쟁' 이후의 일이며, 이 '활성화' 경향이 89-92년의 상황을 경과하면서 '위축'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논문은 분석을 통해 기존 논의들을 반박 또는 보완하고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개진하고 있다.

1)노동운동은 활성화 시점부터 여타의 사회세력들과 '이미' 분리된 조건 하에서 자본-국가에 대결해갔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특정노선 내지 편향이 노동으로부터 중간층을 이반시키고 노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는 일각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운동과 야당을 포함한 중간층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민주화의 깊이와 폭을 제한하고자 애쓴 후자에 의해 확대되고 있었다.

2)'대투쟁'을 기점으로 한 노동운동의 활성화 수준은 인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리 높은 것이 아니었다.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반 확대는 현저하게 비대칭적인 세력관계 안에서 진척됐고 그 열세의 정도를 크게 개선하지는 못했다. 이는 운동 내부의 사정이나 운동을 조건짓는 제도적 정황에서 잘 드러났다.

3)앞의 논지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으로, '대투쟁' 이후로도 자본-국가가 노동에 대한 배제전략을 철회한 적이 없다. 자본-국가는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공개적' 탄압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순응적 노사협조주의' 이외의 노동운동 일체를 배제 또는 무력화하려는 노선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았다. 89년 3월 이후 근 3-4년 동안이나 행해진 전면 탄압공세가 그것을 잘 입증해준다.

4)노동운동의 전투성은 스스로 선택한 하나의 노선이라기보다, 비타협적인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표출하게 된 운동 존립의 거의 유일한 방도였다. 그 전투성은 급진주의의 산물이 아니었으며, 노동운동은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비정치적이어서 스스로의 발전에 제한을 가하는 실정이었다.

5)노동운동의 '위축'이 임금을 비롯한 경제적 조건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동의 경제적 조건은 87년 이후 절대적 수준에서 향상됐다. 그러나 89년 이후 '전면 탄압공세→운동의 위축'에 따라, 여타 계급·계층과 비교할 때 그 조건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추세는 임금 상승률, 분배 몫의 격차 추이, 노동강도, 산재 빈도 등에서 확인된다.

6)자본-국가의 '신경영전략'/'신노동정책'이 노동운동의 '위축'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는 '위축'의 직접적 동인이라는 의미에서보다 이미 가시화된 '위축'을 강화했다는 의미에서이다. '대투쟁'을 계기로 자본-국가의 전략 변화가 계속 모색됐지만 그 과정에서도 노동운동이 활성화됐고, 노동운동에 전면공세를 재개할 때까지 자본-국가가 물리적 강제수단에 의존하는 정도는 상당히 높았다. 새롭게 모색되어온 전략이 비중있는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은 89-91년의 전면공세 이후로 노동운동이 위축되면서부터였다.

7)노동운동은 87년 이후 하나의 특정 국면을 통과하였다. ‘대투쟁’을 출발로 89년 상반기까지의 세력상승, 89년 하반기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수세적 저항을 경과하면서, 90년대 중반의 위축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90년대의 노동운동은 국면적 세력관계의 변동, 대립하는 각 진영들의 전략 변화라는 면에서, 80년대 후반과는 상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운동이 ‘구조적 퇴조’에 당면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0. 연구의의

90년대 초반을 전후로 한 ‘노동운동의 위기론’이 갖는 허점을 구조와 행위의 관계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1. 제목: 「아시아 권위주의국가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2. 저자: 김준
3. 발행연도: 1993
4. 쪽수: 415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7.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3절 분석의 전략과 변수
제4절 논문의 구성
제2장 산업화와 노동자계급
제1절 산업화의 과정과 국가의 역할
제2절 산업구조의 변동과 노동자계급
제3절 경제성장의 성과와 노동자계급의 상태
제3장 정치·사회의 역동적 구조와 노동자계급
제1절 국가의 형성과정과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제2절 정치체제와 저항의 공간
제3절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
제4절 소결

제4장 노동정책의 비교
제1절 노사관계제도 형성기의 맥락: 법률과 실제
제2절 노사관계법과 국가의 노동통제의 변화
제3절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의 노사관계제도: ‘조직활동의 자유와 폭’ 1
제4절 국가의 노동시장개입과 노동복지정책
제5절 소결
제5장 노동운동: 저항과 순응
제1절 노사분규
제2절 노동자 계급의 조직적 · 정치적인 힘
제3절 노동운동의 이념
제4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8. 연구목적

1945년부터 1987년까지 한국과 대만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을 비교연구하여 저항적인 한국노동운동과 비저항적인 대만노동운동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9. 연구내용

필자는 한국과 대만의 노동운동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규명한 기존연구들을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1)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 일차적으로 두 나라의 산업화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노동자들의 상태나 내부구성의 차이점 강조 2)정치적 요인으로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한국이 대만에 비하여 일제시대부터 더 ‘강력하고 정치화된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만의 권위주의체제가 한국보다 유연했다는 것 3)국가의 노동통제전략의 상이성: 한국의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배제 억압전략과 대만의 국가후원전략이 그것이다.

필자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강조함으로써 초래되는 단선적인 인과관계, 대만의 국가가 한국보다 유연했다는 사실에 관한 오해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대만의 정치체제가 한국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더 억압적이이고 배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필자는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요인, 그리고 노사관계제도적인 요인들 모두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전략과 산업화과정,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형성과정, 내부구성, 상태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 장에서 필자는 두 나라가 비교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변수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한국과 대만은 식민지시대를 경험했으며 그 이후 수입대체산업화와 수출지향적인 산업화를 추구했다는 점, 따라서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산업화의 과정을 국가가 경제정책이나 산업화전략을 통해 주도해왔다는 점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

었다. 여기서 국가의 개입방식과 그 정도의 차이, 성장(한국)과 균형(대만)간의 국가성장전략의 차이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매우 미묘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필자는 본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과 대만의 주요한 차이들로 기존의 연구들이 강조해왔던 요인들이 노동운동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정치사회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국가형성과정, 정치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등에서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즉 한국의 정치체제는 그 형성과정의 역사적 맥락속에서 정당정치의 구조와 선거정치의 구조속에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역동적이었던데 반해, 대만의 정당정치구조와 선거정치구조는 엄격히 구조화된 일당지배체제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 선거경쟁이 배제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 매우 폐쇄적이고 비경쟁적이며 정태적인 권위주의체제로 오히려 전체주의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노동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양국의 노동정책은 동일하게 배제적·억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그것이 노사관계형성의 초기단계부터 노동운동의 조직활동의 자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통제였던 것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초기단계에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적 노사관계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1980년대에 국가의 노동통제가 극단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노동통제는 대만의 그것에 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더 넓게 허용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만의 강력한 노동배제정책이면에는 노동자들의 불만과 고충이 진정과 청원이라는 비공식적 통로로 흡수됨으로써 노동통제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노동조합의 성장과 노사분규의 양상, 그리고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이념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노사분규를 통한 노동계급의 저항은 그 양과 질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노동쟁의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계속 이어졌으며, 그 빈도, 규모, 강도도 점점 커져왔다. 반면 대만에서는 노사분규가 늘어가는 경향은 있었지만 파업투쟁은 거의 전무했으며 대부분이 앞에서 언급한 소집단 단위의 진정과 청원형태를 띠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의 범위를 넘어서 1980년대에는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정치민주화, 더 나아가서는 급진적인 사회변혁까지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만의 경우에 이러한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두 나라의 노동운동은 조직적인 힘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비록 조직의 규모나 조직률에 있어서 대만의 노동조합이 한국의 그것에 비하여 크고 높았지만, 대만의 노동조합의 성장은 국가의 후원에 힘입은 비자생적인 성장이었던데 비하여 한국의 노동조합의 성장은 국가의 혹독한 억압에 저항하며 자라난 자생적인 성장이었다는 차이가 있다. 노동운동 이념에서도 두 나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두 나라의 공식노조는 모두 '노사협조주의'적인 노선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공식노조의 노동운동의 이념이나 운동노선에 대한 대항적 이념과 운동이 꾸준히 성장해온 반면 대만에서는 그러한 대항적 노동운동의 이념이나 노선이 1987년까지 전혀 나타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결국 필자는 한국과 대만의 노동운동의 성격이 갖는 차이를 설명했던 기존 연구들,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산업화과정-과 이와 연동된 노동자계급의 내부구성 및 상태의 차이가 두 나라 노동운동

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들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산업화 초기단계에 수출지향적 경공업부문에 '파트타임 프롤레타리아트'나 '출가형 임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는 노동자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면서부터는 두 나라에서 모두 이러한 현상이 약화되었다. 또한 한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대규모 사업장과 특정한 산업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대만에서는 노동자들이 중소규모 사업장과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이것도 두 나라 노동운동의 차이를 낳은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두 나라 노동자의 사업장별·지역별 집중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만에서도 대규모 공업도시와 대기업들이 많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나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설명력이 약하다고 본다.

요컨대 두 나라 노동운동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매우 유사했으며, 따라서 이를 통해 두 나라 노동운동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없으며, 따라서 필자는 기존 연구들이 무시해왔거나 피상적으로만 관찰해 왔던 두 나라의 정치사회의 구조와 그 내부의 동학에 주목하고, 그것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통제력과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정치적 자원의 상호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모두 비민주적이고 비다원주의적이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구조와 선거정치의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두 나라 정치제제의 기본원리는 상이했다. 즉 한국에서는 야당의 활동과 전국적인 선거정치가 계속 유지되는 등 다원주의적 정치제도가 일부나마 유지되었으나, 대만에서는 철저한 일당독재, 부자세습독재, 정당창당금지, '만년국회', 38년간의 계엄령 등 전체주의와 일부 유사점을 갖는 정치제도들이 40여년간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두 나라의 국가-시민사회(혹은 사회계급세력)사이의 관계, 이데올로기적인 상황, 정치체제 등에서의 차이는 두 나라에서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활동의 폭에 차이를 가져왔다. 즉 한국에서는 독재정권 아래서도 그나마 정치적 반대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일정정도 열려있었던 반면, 대만에서는 그것이 거의 폐쇄되어 있었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해 대만과 한국의 노동운동의 차별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도출해왔던 기존연구의 한계와 오류를 정치적 요인, 노사관계제도적 요인 등으로 확장시켜 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대만과 한국의 정치체제의 차이가 유형화까지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와 이 논문의 분석시기에서는 벗어나지만 역사적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87년 이후 대만 진보세력과 노동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는다.

1. 제목: 『동일방직 노동조합 운동사』

2. 저자: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3. 발행연도: 1985

4. 쪽수: 431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돌베개

7. 목차

1. 70년대의 정치경제와 노동운동

2. 동일방직 민주노조의 태동과 발전

3. 노조파괴책동과 제1차 조직수호투쟁

4. 민주노조 말살음모와 제2차 조직수호투쟁

5. 제1단계 복직투쟁과 구속사태

6. 고난을 딛고선 제2단계 복직투쟁

7. 독재정권의 붕괴와 복직을 향한 연대투쟁

좌절

부록

8. 연구목적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70년대 한국민주노조운동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최초의 여성 지부장 선출, 민주노조를 파괴에 맞선 나체투쟁, 또한 똥물세례 속에서의 투쟁, 어용 노총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그리고 블랙리스트 배포로 그 어느 작업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금전적인 매수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동일방직 민주노조의 투쟁과정과 의의를 되짚어 보고자 의미에서 출간되었다.

9. 연구내용

(1)동일방직의 태동과 발전

1972년 5월 주길자 집행부의 탄생은 동일방직의 민주노조가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후 이영숙(75년)이 집행부를 승계하면서 점점 민주노조의 조직기반은 다져지게 되었다. 이시기 노조는 임금, 상여금, 퇴직금, 특근수당 등 뿐 아니라, 해고 조합원의 복직, 몸수색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노조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회사측은 조합간부, 열성적인 조합원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보복 조치하였다. 즉 반장이나 조장을 통해 노조에 참여하는 일반노동자들을 적발·보고케 하였고, 노조탈퇴권유, 작업장 변경, 출근 정지, 해고 등이 행해졌다. 이러한 방해와 탄압에도 노조는 한 걸음 전진하였다. 이에 회사측은 노조집행부를 회사에 유리하도록 구성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주적으로 탄생한 민주노조는 현집행부를 확고하게 지지했다.

(2)노조파괴책동과 제 1차 조직수호투쟁

사측은 76년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과 압력을 가중시켰다. 2월의 대의원대회는 고두영 측의 불참으로 계속 연기되어 7월로 정해졌다. 7월 23일 인천동부경찰서는 이영숙을 연행했고, 고두영 측은 기숙사를 잠그고 대의원 24명만으로 대의원대회를 시작했다. 이에 200여명의 조합원들은 회사의 불법대의원대회에 항의하여 파업농성을 시작하였고, 24일에는 800명으로 늘어난 조합원들이 이영숙지부장의 석방/회사의 노조 개입 중지/7.23일 대회의 무효/ 고두영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농성투쟁을 하였다. 다음날 경찰은 이들을 포위하고 5분간의 여유를 줄테니 해산하라고 위협했다. 이때 여성노동자가 일제히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나체로 뭉쳤다. 당국의 파괴책동에 굴하지 않고,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조합원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신념아래, 15명의 조합원으로 '동일방직 수습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77년 3월 수습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총각집행부 탄생하여 조직수호투쟁에서 승리 쟁취하게 되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부딪힌 문제는 남자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조합 탈퇴 서명운동이었다. 압력에 못 이겨 조합원 반수 이상이 노동청, 본조, 회사의 승인을 받아 탈퇴하였고, 노조운영에 필요한 조합비수입마저 대폭 감소함으로써 이총각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조합원은 자발적으로 '탈퇴확인 작업'을 벌여 사건을 수습했다.

(3)민주노조 말살음모와 제 2차 조직수호투쟁

78년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회사는 다시 노조파괴를 준비한다. 그러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하자 지부사무실에 회사에서 매수된 남자 종업원들이 난입하여 유례가 없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조합간부들은 밤새 투표준비를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려고 하였다. 이때 박복례 등과 남자조합원 5~6명이 노조간부들 폭행하고 똥물을 퍼붓고 점거하였다. 결국 선거를 치르지 못한 노동자 500여명은 농성을 하다가 오후에 자진해산했다. 다음날 회사 정문과 노조사무실에는 '산업선교는 물러가라', '외부세력 이총각 물러가라' 등의 플랜카드가 나부꼈으며, 기다렸다는 듯 섬유노조측은 동일방직노조를 사고지부로 규정하여 현 집행부를 해산시켰다. 이후 동일방직노조는 조직수호를 위해 노동절 행사장에서의 투쟁, 부활절예배시위 등을 하였고, 이러한 강경한 투쟁에 당국은 종교계와 협상하여 요구조건을 수락, 농성을 해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성해제 후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자본과 권력, 어용노조가 야합하여 124명의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대량해고하고 블랙리스트로 해고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봉쇄하는 무한폭력을 가했다.

(4)복직투쟁

124명이 해고당한 후 해고자들은 복직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본조와 회사측이 추진하는 대의원선거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서 대의원선거를 저지하고 회사측에 해고조치의 해명을 요구하기로 하고 65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농성을 하게 된다. 그러나 2명의 구속과 7명의 불구속 입건되었다. 78년 5월 해고노동자들은 산업선교회 건물을 빌어 임시전국섬유노동조합 동일방직지부를 만들어, 첫 활동으로 김영태의 통대의원 당선 저지투쟁을 벌인다. 또한 '방문투쟁'을 통해 해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데 어떤 형태로든 참여한 단체와 사람들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직투쟁을 전개하였다. 연극이나 기도회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이 학생과 종교계의 민주화운동과 결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동지회보]를 발간하여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였다. 동일방직 복직투쟁은 80년 5월까지 계속되나 계엄확대로 제동이 걸리게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운동은 최근 민주화 운동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었으며 해고노동자들은 23년 만에 '원직복직 추진대회'를 가지고 회사쪽에 복직을 요구했다.

(5)동일방직 노조투쟁의 의의

동일방직 노조의 변천은 발단 시에는 회사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작했지만 스스로 조합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자주노조'를 향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비록 동일방직 노조가 '회사지배적 노조에서 자주노조를 거쳐 다시 회사지배적 노조'로 변형되었지만, 자주노조를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과정과 정신 속에는 그들 스스로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9년 8월 동지회보에 실린 이 시는 동일방직 운동이 단순한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임을 보여준다.

①이들은 운동 과정 속에서 당시 사회 전반에 나타난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기업과 국가, 어용노조로부터 자율적인 민주노조의 건설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위해 투쟁하였던 것이다.

②이들은 민주노조 투쟁과정 속에서 민주화 운동세력과 연대하여 사회적 저항운동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민주화 운동을 의식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거듭되는 투쟁 속에서 학생·종교계 인사들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이들과의 연대를 발전시키면서 민주화 연대투쟁을 하였다.

③도시산업선교회, 카톨릭노동청년회 등의 종교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임시전국섬유노동조합 동일방직지부의 결성이나 『동지회보』의 발간 등 스스로 결합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10. 연구의의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중 하나인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책으로 그들이 남긴 회보나 조합원들의 글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1. 제목: 『아름다운 저항: 방현석의 노동운동사 산책』

2. 저자: 방현석

3. 발행연도: 1999

4. 쪽수: 335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책

7. 목차

머리말

1. 청계천 1970년에서 1997년까지

2. 인천 만석동 동일방직 1978년 2월

3. 눈덮인 탄광, 사북 1980년 4월

4. 노동자들의 벗, 성문밖교회 1958년에서 1997년까지

5. YH노조 신민당사 농성 1979년 8월

6. 구로연맡쟁 1985년 6월

7. 대우자동차파업 1985년 4월

8. 원풍모방 1973년에서 1982년까지

9. 인천 5·3항쟁 1986년 5월

10.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1945년

11. 대구 9·23 총파업 1946년 9월

12. 울산현대엔진 1987년 7월

13. 거제 대우조선 1987년 8월

14. 원진레이온 1988

15. 전교조 1989년 5월

16. KBS 파업 1990년 4월

17. 전노협 1990년 1월

18. 한진중공업노조 1991년 5월

19. 전지협 파업 1994년 6월

20.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1996~1997년

21. 현대중공업골리앗투쟁 1990년 4월

22. 광주노동자들의 투쟁 1980년 5월

부록: 간추린 한국노동운동사

8. 연구목적

노동자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지불되었는가를 당시의 당시 현장 및 운동가들을 직접 접하여 노동운동을 역사 앞에 복원시키는데 있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22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노동운동을 사건별로 정리하고 있다. 원래 이 글은 민주노

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 97년 11월부터 1년 반 동안 연재하며 찾은 현장에 대한 것으로 45년 대구의 노동자자주관리운동에서부터 97년 노동법 날치기 개정에 항의하는 총파업투쟁까지 모두 22곳이다.

70년 11월3일 전태일의 분신을 상징적 출발점으로 삼는 70년대 노동운동은 사방이 꽉 막힌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진행됐다. 전태일의 분신을 거름 삼아 같은 해 11월27일 결성된 청계피복노조의 선도적 투쟁, 똥물을 퍼붓는 구사대 폭력에 맞서 유신 치하에서도 민주노조를 굳건히 지킨 동일방직 · 원풍모방 노동자들, 부마항쟁의 기폭제가 된 '신민당사 농성'을 결행한 79년 8월 YH 노조원들이 70년대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다.

80년대는 노동자의 투쟁이 외롭지만은 않음을 보여준 시기다. 우선 85년 4월 인천 대우자동차 파업은 80년대 최대 화두의 하나였던 '대졸 현장활동가'의 존재를 전면에 드러냈다. 또 85년 6월 서울 구로공단의 대우어패럴 김준용 노조위원장 불법연행에 항의해 효성물산 · 선일섬유 · 가리봉전자 등이 벌인 연대파업은 노동자들이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위협 속에서도 '연대'의 중요성을 새삼 깨우쳐간 사건이다. 이어 노동자들은 86년 '5 · 3인천항쟁' 당시 시위대의 맨 앞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공장 밖 사회문제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렸다. 87년 7월 울산 현대엔진의 노조 결성으로 시작된 '노동자 대투쟁', 88년 8월 이황화탄소에 의한 직업병 문제를 사회화한 원진레이온, 89년 5월 '참교육'을 외치며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90년 4월 '언론민주화'라는 화두를 던진 <한국방송공사> 파업, 그리고 세계 진보인사들이 '신자유주의 극복의 가능성을 한국에서 찾자'고 말했던 계기인 '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항의 총파업' 등이 우리 노동계가 지금까지 달려온 모습이다.

10. 연구의의

이 책은 당시의 현장 및 당시 운동가들을 직접 접하면서 과거의 노동운동이 현재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깊은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서라기보다는 현재의 시각에서 본 과거의 운동들에 대한 답보라고 할 수 있다.

1. 제목: 『한국노동자운동, 투쟁의 기록: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2. 저자: 안승천

3. 발행연도: 2001

4. 쪽수: 27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박종철출판사

7. 목차

1부 어용의 굴레를 깨는 노동조합운동

1장 어둠을 밝힌 한 점의 불꽃, 전태일: 1970년
2장 목숨을 건 민주노조건설과 사수: 1976～1979년
3장 민주노조운동에 영향을 준 두 가지 흐름: 1970～1979년
2부 계급운동으로 발전하는 전투적 노동자운동
4장 패배를 통한 도약: 1980～1983년
5장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성장: 1983～1986년
6장 파업의 열풍과 함께 대약진하는 민주노조운동: 1987～1989년
7장 계급운동으로 발전하는 민주노조운동: 1990～1992년
3부 민주노조운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퇴조
8장 집행부의 관료화와 개량주의의 확산: 1992～1993년
9장 구조화되는 조합주의와 무너지는 현장 투쟁력: 1993～1995년
10장 조합주의와 개량주의 세력의 주도권 장악: 1995년
4부 자본가 계급과 격돌하는 노동자계급
11장 벼랑 끝에서의 격돌,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1996～1997년
12장 패배의 연속, 정리 해고 저지 투쟁: 1997～1999년
13장 민주노조운동을 넘어서는 투쟁들: 1999～2001년
후기
단체목록

8. 연구목적

전태일 분신이후 한국의 노동자운동을 시기별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한다. 아울러 '목적 의식적인 운동'과 '노동자운동'이 어떻게 결합했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관계의 변화가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곧 민주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밝히고 있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필자가 후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노협 기관지 『전국노동자신문』과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를 기초자료로 하고, 신문기사와 그 동안 발간된 노동자운동을 다룬 책들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충해서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4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전태일의 분신으로 시작된 1970년대를 다루고 있는데, 70년대의 민주노조운동은 경공업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여기에 학생운동가들의 야학활동과 기독교단체의 노동조합지원 활동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 반면 당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집중적인 육성을 받게되는 중화학 공업 노동자들은 정부의 우대정책에 현혹되어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2부에서는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노동자운동 역시 계급운동(정치적 노동자운동)으로 발전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84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85년 구로동맹파업,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 87년 노동자대투쟁,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

련),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91년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필자는 노동자 통일 전선의 성격과 레닌주의에 입각해 경제주의를 혐오하고 정치투쟁을 중시한 서노련을 '실천주의'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3부에서는 1992년부터 민주노조의 집행부가 관료화되고 조합주의와 개량주의가 득세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질적으로 퇴보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이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4부에서는 1996년 연말에 터진 노동법 개정투쟁부터 IMF이후 '신자유주의'정책에 저항하는 현재까지의 노동자운동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이 장에서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계급적 단결의 구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잠재적 폭발력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필자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근본주의 노동자운동'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90년 이후 지속된 타협적-개량적 노동운동의 귀착을 경고하면서 지금이 민주노조운동의 전환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필자는 1970년 이후 한국의 노동자운동을 서술하면서 조합주의적 경향에 대해 경계할 것과 '근본주의'의 입장에서 현재 노동자운동의 재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노동자정치운동에 몸담아 온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이 투영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근본주의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실천과 계획은 이 책에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1990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역사는 나열식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1. 제목: 『민주노조10년: 원풍모방 노동조합활동과 투쟁』

2. 저자: 원풍모방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3. 발행연도: 1988
4. 쪽수: 375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풀빛

7. 목차

제1부 어용노조기(1963～71)
제1장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
제2부 민주노조 태동기(1972～75)
제1장 노동조합 정상화 투쟁
제2장 또 하나의 시련-기업재생의 몸부림
제3장 기업정상화와 대립하는 노사관계
제3부 노동조합 정착기(1976～80)

제1장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상황

제2장 섬유노조본부와의 대결

제3장 10·26-민주화의 봄

제4부 노동조합 탄압기(1980~82)

제1장 5·17과 반동화하는 노동정책

제2장 조직의 재정비

제3장 9·27사태

제4장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제5장 법정에 선 노동조합

부록

8. 연구목적

원풍모방 노동조합은 청계피복, 동일방직, YH노조 등과 함께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원풍모방 노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 기존의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민주노조를 출범시킨 뒤 '노사공동경영체제'라는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훈련활동을 통해 노동자들간의 결합력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도시산업선교회와 JOC(카톨릭노동청년회)등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운동세력과의 연대활동에도 주력하여 민주노조 운동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원풍모방 노조는 1982년 이른바 9.27사태를 계기로 그 활동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책은 70년대 대표적 민주노조운동의 사례인 원풍모방 노조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9. 연구내용

(1)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로

원풍모방은 1953년 8월 21일에 설립된 한국견방주식회사(1958년에 한국모방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를 모태로 하고 있다. 1960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노동조건들이 저하함으로써 누적된 노동자들의 불만은 활발한 노동쟁의로 표출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정권은 1963년 4월 17일 쟁의권 부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국모방의 노동자들도 노조설립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회사의 여러 가지 방해공작을 통해 회사가 주도하는 어용노조가 1963년 9월 28일에 결성되었다. 당시 한국모방은 동일업종의 평균임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은 상태였고, 조합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도 결여되어 있어 노조 자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도 누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70년 초 국세청에 의한 세무사찰 결과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되자 회사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 결과 박용운이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박용운은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지낸 바 있는 군인출신으로 노조에 대한 이해나 협력의 의사를 찾아 볼 수 없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인물이었다. 한편 정영오를 지부장으로 하는 노조는 섬유노조본부에 대한 의무금 미납 사실과 퇴직금 및 인금인상문제를 둘러싼 대의원들에 의한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원풍모방의 민주노조운동의 노동자들의 소모임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원풍모방 노동자들은 1971년 10월경부터 가톨릭의 도요한 신부, 영등포산업선교회, 경수산업선교회의 안광수 목사, 조지송 목사 등과 친교를 맺고 소그룹을 만들어 나갔다. 이들 소모임 활동가들은 주축으로 1972년 5월로 예정된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지 않자 7월 2일 63명이 모여 한국모방 1천2백명 조합원 구제위원회를 조직하고 1천47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섬유노조에 한국모방노조 197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요구투쟁을 전개하다가 7월 7일 '한국모방 노동조합 정상화 투쟁위원회'로 발족시켰다. 투쟁위원회는 호소문과 농성투쟁을 통해 섬유노조로부터 대의원대회 개최를 이끌어 냈고, 지동진을 지부장으로 하는 민주노조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2)민주노조활동과 회사정상화투쟁

민주노조 출범과 함께 회사측의 해고와 부서이동 등의 보복조치도 곧바로 단행되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작업거부와 명동성당농성,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대항했고 회사측의 합의와 파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해고철회등의 조정결정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1973년에 접어들자 오래 전부터 곪아온 경영부실의 문제로 기업도산의 위기상황에 이르게 되자 조합원들은 생존권의 위협에 봉착하게 되었다. 회사내의 불안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은 1973년 4월 6일 정부가 반사회적 기업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밝힌 데부터였다. 이 반사회적 기업인의 명단속에 사장 박용운이 연세개발대표이사 자격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원풍모방은 곧 기업도산을 맞게 되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조는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측과 협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은행과도 교섭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부와 사회각계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노조로의 회사주식 양도와 이사파견과 협정서 체결문제 등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했고, 회사측도 총 주식 190만 주 중 20%인 38만 주를 노조에 무상양도하고 지도진 지부장을 호사 전무이사로 선임할 것을 결의하여 '노사공동경영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3)원풍모방 노조의 조합원 교육과 노조운영

한편 원풍모방 노조는 민주적인 노조운영을 통하여 조합원의 의식화와 조직화, 그리고 타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을 전개하여 민주노동자의 세력을 확대 강화한다는 원칙하에, 전체조합원은 소모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조합원을 간부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의원과 상집간부들은 모두 소모임활동을 해야 하며, 상근간부들은 현장순회를 1일 2-3회씩 실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고충사항을 파악, 해결하도록 지원했다.

교육활동은 조합원들이 노동자로서의 긍지와 주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투쟁방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합법적 투쟁을 통하여 해결하며, 현장 고충사항은 각 부서 상집간부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에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만 개입하거나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관여함으로써 부서별 투쟁역

량을 높였다. 또한 전체조합원이 투쟁에 참여해야 할 임금인상, 단체협약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교육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조합원의 의무로 느끼게 했다. 재정은 조합의 힘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요건이므로 자립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보장하며 매년 대의원대회 후 전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언제든지 조합원들이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조운영으로 원풍모방노조는 고도로 의식화·조직화된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고, 1982년 국가와 기업주에 의해 노조가 파괴될 때까지, 그리고 이후 복직투쟁으로 이어지는 힘의 기초가 되었다.

(4)원풍노조파괴공작의 시작

1979년 8월 11일, YH사건을 계기로 박정희정권은 이른바 '외부세력 실태조사'라는 명분을 세워 노동운동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조사내용은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용공성 여부와 노동조합이나 개별 노동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였다. 원풍모방 노조는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JOC·도시산업선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표적이 되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두 달 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살해되자, 그의 죽음은 민주화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바람은 노동계에도 이어졌다. 원풍모방 노조원들은 11월 24일에 YWCA에서 개최된 '통대선출 저지 국민대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였고, 노총회관에서 열린 '노동기본권확보 전국궐기대회'에 참여하여 농성을 주도하게 된다.

하지만 신군부는 노총회관 농성을 해산한 지 3일 후이자, 서울역 학생시위 해산 2일 만인 5월 17일 밤 12시를 기해 전국에 계엄확대조치를 발표하고, 광주항쟁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으로 민주운동세력과 노동운동세력에 엄청난 탄압을 자행하게 된다.

신군부는 안기부와 합수부를 동원하고 회사의 협조하에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인 원풍모방에 대한 본격적인 파괴공작에 착수했다. 신군부는 이른바 '노동계 정화조치'라는 명목으로 원풍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를 주도했다. 결국 방용석지부장과 박순희부지부장은 수배를 받았고 계엄사에 48명이 연행되어 4명은 순화교육, 14명은 사표강요에 의한 해고조치를 받게 된다.

(5)조직분열

신군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에 직면한 노조내부에 설상가상으로 조직분열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1981년 2월 18일에 개최된 연차대의원대회를 통해 새 집행부가 꾸려졌지만, 전지부장인 이문희를 중심으로 한 이상배, 양병욱, 박영수, 최득수 등은 임원재선출을 주장하며 조합내부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원풍모방노조를 부산소재 원풍타이어노조와 통합시키려는 공작을 시도했다. 하지만 10개월간에 걸쳐 작업한 통합대회가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는 QC(품질관리)활동을 전개하는 등 탄압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회사는 QC운동방해라는 명목으로 양분옥 조사통계부장과 신필섭대의원을 해고했다. 이러한 해고결정은 수년 동안 지켜온 단체협약 제23조의 징계결정의 노사합의제를 회사

가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양분옥과 신필섭의 해고반대투쟁이 좌절되자, 조합원들 간에 집행부에 불신이 가중되었고, 이무술조합장의 사퇴를 계기로 조직분열양상은 일반조합원에게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6)9.27사태와 복직투쟁

노조는 정성순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며 조직의 재정비하고, 회사측에도 작업정상화를 위한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폭력행사와 해고통보, 노동쟁의신고로 대응했다. 이윽고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27일, 경비실에 집결하고 있던 남자담임 등 40여 명이 총무과 사무실에 들어간 지 30여 분이 지난 1시경 우르르 몰려나와 회의중이던 노조사무실의 문을 부수고 한꺼번에 들이닥쳐 조합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내몰고 정성순 조합장과 노조사무원 김인숙을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정조합장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수라장이 된 노조사무실 주변에 다시 200여명의 폭력배들이 동원되었고, 노조는 상집회의를 통해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은 추석날인 10월 1일까지 계속되었지만, 기관과 회사측은 가족까지 동원하여 농성자들을 협박·회유하였고, 이윽고 30일과 1일, 2차례에 걸쳐 폭력배들이 농성장에 난입하여 300여 명의 조합원들을 해산시켰다. 이들은 무자비한 폭력행사로 80여명의 조합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이 날 원풍모방과 대림동 일대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7)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서 원풍모방노조의 의의와 한계

70년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듯이 원풍모방노조운동 역시 '생존권수호투쟁'과 '노조민주화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나갔다.

원풍노조는 모범적인 조합원 교육을 기반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결사를 지속적으로 담보해냈고, 열악했던 임금수준도 임단투를 통해 동종업체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특수한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노사공동경영체제'를 통해 도산위기에 몰린 회사의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노조운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으며, 신협을 건설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모델을 창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일방직과 YH, 그리고 콘트롤데이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70년대 비타협적 노동운동이 여성노동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풍모방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원풍모방노조운동의 한계는 무엇인가? 먼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공통적인 것이지만 단위사업장 노조운동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단위사업장간의 연대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계기적 결합에 그쳤고,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공권력과의 싸움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80년 이후 도시산업선교회와의 갈등과 결별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둘째 조직내부의 갈등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풍모방노조는 모범적인 조합원교육활동으로 조합원간의 연대의식을 높여나갔지만, 일부 지도부의 개인적 변절과 이를 통한 조합원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풍모방노조운동은 민주노조운동에 새로

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10. 연구의의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적 사례중 하나인 원풍모방노조운동에 대한 생생한 기록으로 민주노조운동을 둘러싼 대내외적 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1. 제목: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발생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2. 저자: 유경순

3. 발행연도: 2000

4. 쪽수: 91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7. 목차

서론

1. 1980년대 전반기 전두환정권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1)1980년대 전반기 노동정책

2)노동실태와 노동운동의 활성화

2. 1980년대 전반기 구로공단 노동실태와 민주노조운동

1)구로공단의 산업구성과 노동실태

2)1984년 '민주노조'의 결성

3)민주노조의 1985년 임금인상투쟁과 지역연대활동

3. 구로동맹파업의 전개와 사회운동세력의 지지연대 투쟁

1)정부의 민주노조운동 탄압과 대우어패럴 노조간부 구속

2)지역 연대투쟁 조직의 구성과 동맹파업의 준비

3)동맹파업과 사회운동세력의 지지연대 투쟁

4)동맹파업 이후 '구로노동자 연대투쟁연합' 결성과 정부의 대응

4. 구로동맹파업의 성격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1)노동조합차원의 지역연대투쟁(동맹파업)

2)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3)구로동맹파업에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의 전환

결론

참고문헌/부록

8. 연구목적

구로동맹파업의 실체와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학생운동 출신의 현장투신과 그 활동, ‘연대투쟁위원회’의 실제적 활동, 그리고 투쟁요구사항 및 동맹파업 이후 다양한 평가와 실천과정을 통해 규명한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1980년대 전반기 노동정책을 개괄하고 노동실태와 학생운동가들의 현장투신 현황 및 노동운동의 활성화관계를 고찰하고 2장에서는 같은 시기 구로공단 노동실태와 민주노조결성 및 활동 특히 지역연대활동에 대해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3장에서는 구로동맹파업의 전개와 국가의 대응, 그리고 4장은 구로동맹파업의 성격과 노동운동사적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필자는 구로동맹파업의 가장 중요한 의의를 노조운동의 활성화와 기업별노조의 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데 이것은 198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 출신노동자들이 선진노동자들과 결합하여 민주노조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지역연대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동맹파업의 주체역량이 형성된 것이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구로동맹파업의 성격에 대해 ‘경제적 요구와 제도개선의 정치적 요구가 결합’된 투쟁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동맹파업이라는 투쟁방식이 노조의 투쟁을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세력의 지지연대투쟁으로 확산시켰으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식을 각성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구로동맹파업 자체가 가지는 의미외에도 파업 이후 한국노동운동사에 미친 영향에서도 주목한다. 1)동맹파업투쟁을 통해 다수의 선진노동자들을 배출했으며 구로지역 노동운동의 대중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동맹파업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구로노동자연대투쟁연합’에 참여했으며, 1985년 8월에 ‘구로노동조합민주화추진연합’, ‘노동운동탄압투쟁위원회’, ‘청계피복노동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분리파’ 등의 4개 단체와 함께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을 결성했다. 이후 구로동맹파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구로지역 노동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1986년 5월 ‘노동조합결성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까지 노조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활동을 했다. 2)구로동맹파업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계기점이 됐다. 서노련 해체 이후 동맹파업에 대한 평가는 주로 ‘민주노조건설’을 중시하는 입장, 반합법 비공개조직을 기초로 자주적 노동조합의 지역연맹 건설론, 그리고 대중적 정치조직과 공장정치활동 단위의 조직을 주장하는 입장 등이 제시되면서 그에 준한 활동이 모색되었다.

결국 구로동맹파업의 성과를 실천적으로 계승하려던 1980년대 중반기 노동운동진영은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으로의 결합과 아울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직접적으로 실천하려 했던 것이라고 필자는 결론짓고 있다.

10. 연구의의

그 동안 구로동맹파업이 한국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되어왔으나 본격적인 연구논문은 최창우의 논문을 제외하면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이를 재평가하고 있는 연구논문이라는

점과 인터뷰등의 자료를 활용한 것도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학생운동출신의 운동가들이 동맹파업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인과관계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동맹파업 이후 노동운동단체로의 분화와 발전에 대해서도 기존연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1. 제목:『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2. 저자: 이영민

3. 발행연도: 1988

4. 쪽수: 26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죽산

7. 목차

Ⅰ. 노동자대투쟁의 배경과 조건

제1장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착취구조의 성격

제2장 한국자계급의 성장과 그 현실

제3장 80년대 정치경제적 상황과 위기의 성격

제4장 6월투쟁의 성격과 의의-7,8월투쟁의 조건

Ⅱ. 노동자대투쟁의 전개와 지역별·부문별 개관

제1장 노동자투쟁의 전개과정

제2장 지역별 노동자투쟁의 개관

제3장 부문별 노동자투쟁의 개관

Ⅲ. 노동자투쟁의 주요측면의 평가

제1장 이데올로기 선전공세에 대하여

제2장 파업투쟁 전술과 관련하여

제3장 민주노조 및 공장활동 조직과 관련하여

Ⅳ. 노동자대투쟁의 의의와 노동운동의 과제

제1장 7,8월 노동자투쟁의 의의와 성격

제2장 7,8월 노동자투쟁의 한계와 과제

제3장 변화된 정세와 활동방향

Ⅴ. 7,8월 노동자투쟁의 대표적 사례

8. 연구목적

87년 노동자대투쟁(이하 대투쟁)이 노동운동에 주는 의미와 과제를 제시하고 하부단위의 노조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노총민주화와 통일적인 노동자 정치조직의 건설의 당위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9. 연구내용

Ⅰ부에서는 대투쟁의 배경을 해방 이후 전개된 한국의 사회성격-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의 모순의 폭발로 보는 시각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통해 그 의의를 고찰하고 있다.

Ⅱ부는 본격적으로 대투쟁의 전개과정을 지역별·부문별로 개관하고 있으며 Ⅲ부에서는 대투쟁을 투쟁의 발전에 따른 의식이 발전, 파업전술의 진행과 발전, 그리고 민주노조를 둘러싼 투쟁조직의 운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평가·정리하고 있다. 특히 제3장에서는 당시 민주노조의 전국조직건설과 관련하여 '제2노총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하부단위 노조의 민주화와 전국단위의 통일적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을 통한 '한국노총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의 '노동운동논쟁'부문을 참조).

Ⅳ부에서는 대투쟁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대투쟁의 한계를 자연발생적인 대규모 투쟁이 목적의식적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과 기업별 조합주의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압축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극복방안으로 전국적인 노동자 정치조직의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Ⅴ부는 대투쟁의 대표적 사례를 작업장 별로 소개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책은 대투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라기보다는 당시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던 대투쟁에 대한 평가와 과제, 그리고 전국적인 노동운동조직의 건설과 관련한 입장제시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1. 제목:『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2. 저자: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3. 발행연도: 1994
4. 쪽수: 248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동녘

7. 목차

좌담: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김금수·방용석·이원보·이목희
제1장 10월유신과 민주노동운동의 외로운 출발/이목희
1. 70년대 노동운동의 배경
2. 유신체제하의 노동운동
3. 민주노조운동의 전개

4. 10.26직후의 노동운동

제2장 광주민중항쟁의 좌절과 진보적 노동운동의 모색/홍승태

1. 폭압적인 탄압과 노동운동의 잠재적 모색
2.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부분적 활성화
3. 정치적 노동운동의 전개와 혼란

제3장 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과 민주노조운동의 구축/엄주웅

1. 노동운동 고양의 제조건
2. 6월민주항쟁과 민주노동운동의 대중적 전개
3. 조직적 발전과 이념의 모색

제4장 민주노조운동의 결집과 조직적 전진/도천수

1. 불황과 자본의 새로운 공세
2. 국가권력의 총공세와 전투적 투쟁
3. 탄압에 맞선 투쟁과 민족민주운동에의 참여
4.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는 노동자투쟁
5. 공동전선과 총단결로 나아가는 민주노조운동

8. 연구목적

1970년대-90년대 초반까지 민주노동운동의 전개를 시기별 · 과제별로 정리 및 평가하고 특히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9. 연구내용

좌담에서는 방용석의 70년대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발표문을 토대로, 70-80년대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관계, 87년 노동자대투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노협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각 토론자들의 입장과 이견을 소개하고 있다.

제1장은 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주요활동과 성과 및 한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필자는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강경한 제도적 · 물리적 탄압속에서도 개별사업장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조합원의 경제적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 · 조직적 · 단계적인 경제투쟁을 전개한 것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점, 국가권력에 대한 타격, 조합내 민주주의를 유지 · 발전시켜나간 점, 종교계의 지원과 지도에 대해 민주노조 스스로 그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 공동투쟁 및 정치투쟁의 단체가 비록 비조직적인 차원에서나마 나타났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일부 민주노조가 해산 또는 어용화되는 과정에서의 자기비판이 80년대 운동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반면 한계로서는 민주노조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간부들에 있어서도 사회과학적 인식과 노동운동의 이념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 조합원에 대한 의식화나 교육이 권리의식 고취나 개량주의적인 의식화의 장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경제투쟁에 대한 운동적 의미를 축소시킴으로써 운동역량의 확산이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등 기독교의 개량주의적 · 기회

주의적 영향력, 중화학공업의 남성노동자에게로 민주노조의 기반이 확산되지 못한 것, 마지막으로 민주노조들의 고립분산적 활동을 들고 있다(이 글은 필자가 김인동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전개와 평가」, 김금수·박현채 외, 『한국 노동운동론1』, 미래사, 1985를 보완한 것이다.).

제2장은 80년 광주항쟁을 경험한 민주노조의 활동가 및 학생운동 출신 지식인들이 노동현장에 투신함으로써 80년대 노동운동이 부문운동이 아니라 변혁지향성을 확보하면서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나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월 민주항쟁까지 노동운동의 흐름을 개괄하고 평가한 글이다.

제3장은 87년을 전후로 노동운동을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조직적 흐름에 대해 개관하면서 노동운동의 이념정립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4장은 87년 이후 90년대 초중반까지의 민주노조운동의 전개와 과제에 대해 정리하면서 노동운동내부의 개량주의와 중도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70년대 이후 한국노동사에 대해 각 시기마다의 쟁점들과 사례를 대부분 포괄하여 소개하고 있다.

1. 제목: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2. 저자: 임영일
3. 발행연도: 2001(1998)
4. 쪽수: 381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경남대학교 출판부

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대투쟁 이전 시기의 한국의 계급정치 상황
제3장 노동운동의 대중적 성장과 계급형성: 1987～1993
제4장 전환기의 계급정치: 국가, 자본, 노동: 1987～1993
제5장 노동운동의 재정비: 1993～1995
제6장 대안적 계급정치의 모색과 자본, 노동
제7장 결론

제8장 보론: 한국 노사관계 민주화의 조건과 전망

참고문헌/자료

8. 연구목적

1987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 노동운동의 성장, 노동자계급의 모순적 자기형성, 그리고 국가-사회의 계급지형의 변화와 그 속에서 노동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분석하는데 있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필자의 박사논문을 일부 수정하고 보론을 붙여 발간한 것으로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은 문제제기와 연구관점 및 방법을 담고 있다. 필자는 노사관계 혹은 산업관계의 협조주의적 재편 가능성에 대한 당시의 활발했던 논의들이 한국에 있어서의 국가-자본-노동관계라는 거시구도의 질적 전환 가능성, 민주주의적 재편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사상한 채 진행되는데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1987년 이후 10여 년 간에 걸쳐 진행된 노동운동 내부의 변화과정을 노동운동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과의 연관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향후 발전 전망, 그리고 노동자계급 재형성의 가능성과 민주적 계급정치의 구조 창출 가능성을 조명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필자가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급정치'란 "국가(정부), 자본, 노동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세 계급행위 주체들이 한편으로는 다른 계급행위 주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두 쌍방의 계급행위 교환의 과정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특수한 자신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전개하는 다양한 권력자원의 동원과 투입의 과정을 지칭한다. 각 행위주체들의 목표가 주어진 제도적 틀 속에서의 단기적인 즉자적 (계급)이익의 실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일상적인 산업행위와는 구분되며, 동시에 어느 주체도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혁명적 계급투쟁과도 구분된다"(pp. 36-37). 필자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국가-자본-노동관계를 계급형성과 정치지형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제2장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계급정치를 고찰하고 있다. 필자는 1970년대의 정치지형을 조합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통상의 '권위주의국가'와는 달리 모든 권력이 국가로 집중되어 있는 자폐적인 구조라고 규정하고 자본가계급은 이 속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총자본적 '계급내 계급정치'(전경련)와 대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경총과 같은 '계급간 계급정치'를 실현하면서 강력한 헤게모니 계급으로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계급은 국가통제와 한국노총이라는 어용노조에 의해 '정치적 노동운동'으로 상승발전되지 못했으며 70년대 민주노조운동 역시 경제적 요구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한국노총과 동일한 지평위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1980년대 들어 학생운동출신들이 노동운동에 대거 진출했지만 이 시기 대부분의 노사분규 과정은 동원화된 노동자 대중들의 사고와 경험과 의식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여전히 소박한 조합주의적인 경제적 요구들, 그리고 초보적인 노동자 정체의식의 내용들이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1987년에서 1993년까지를 노동운동의 대중적 성장과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으로 분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부제에 따르면 '변화를 위한 투쟁'의 시기인 것이다. 필자

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한국노동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전기였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다음 몇 가지 점에서 한국 노동계급의 모순적 형성의 분기점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1)대투쟁 이전 시기의 활동가운동의 번성기에 풍미했던 정치적 노동조합주의와 대중과의 결합보다는 양자의 괴리, 분리의 중요한 계기 2)활동가운동 전체가 대중적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으로부터 유리되는 과정 3)현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자발적 대중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현장 지도부들이 거의 독자적인 노력들을 통해 노종조합을 조직하고 지켜나갔다는 점. 또한 대기업노조과 비제조업 사무·전문직 노조운동세력과 제조업 생산직 노조운동의 분리경향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결성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노동법개정 투쟁을 통해 결성된 'ILO공대위'가 1991년 말 결성되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전노협은 사무직 업종협의회, 대공장 노조(현총련, 대노협), 전노협의 3분립체제를 받아들여야 했다. 동시에 활동가 운동 조직들로 급속히 약화되고 있었는데, 1993년 6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의 출범은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 활동가운동과 대중운동의 분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시기는 노동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계급간 계급정치가 활성화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자본-노동, 국가-노동간의 적대적 계급행위는 크게 증폭되었다. 그러나 계급정치 지형의 특징, 즉 시민사회의 재조직화가 지체되고 정치사회의 개방이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며, 따라서 노동운동의 분화를 통한 정치적 노동운동으로의 성장·진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 단계의 후기(1990-1993)에 이르러 활성화된 계급정치의 효과는 노동자계급(및 노동운동)내부에서의 분화, 그리고 그에서 기인한 노동자계급의 내부정치의 강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필자는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는 국가와 '신경영전략'속에서 노동조합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자본가계급, 그리고 산별노조체제를 목표로 건설되는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의 대립과 투쟁을 '협상을 위한 투쟁(1993-1995)'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 즉 1992년 이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곧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치적 조합주의로부터 경제적 조합주의로 이행해갔다. 변혁의 이념은 조기에 탈각되었고, 계급주의적 가치는 약화되거나 변형되었다. 투쟁의 방식에 있어서도 점차 '전투적 조합주의'와 같은 방식보다는 기존의 법적, 제도적 제약의 틀 속에서 가능한 경로를 찾아 우회해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노동조합이 협상의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시기의 노동운동이 이념의 강화와 조직의 불안정보다는 이념의 완화와 조직의 안정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경향을 제6장에서의 노동조합위원장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요컨대 이 시기에 노동의 계급간 계급정치는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국가와 관계에서는 노동의 국가에 대한 적대적 계급동원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노동운동의 분화가 일단락되고, 분화의 내부 계급정치는 정치성·이념성의 약화와 노동조합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사회적 수준에서의 협상(교섭)의 조직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노동의 계급조직 재편에 초점이 두어졌다. 동시에 국가는 외형적으로는 대노동 계급정치의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제도화를 위한 실험과 제도정비의 준비를 내부적으로 진행시켜 갔던 시기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제7장 결론을 통해 필자는 '민주적 계급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타진해 보고 있는데, 이는 최장

집의 ‘민주적 조합주의’의 방향과 산별노조체계로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8장 보론을 통해 노동운동이 국가보다는 ‘신경영전략’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자본을 대상으로 한 ‘협상요구 투쟁’을 강화해나가야 할 과제를 떠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필자가 기존 연구에서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을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급정치’라는 틀 속에서 국가-자본-노동관계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하지만 필자가 밝혔듯이 ‘협상을 위한 투쟁’이 국가와 자본의 포섭이라는 전략 안에 있는 것이고 ‘조합주의’의 분석틀이 한국의 정치지형을 잘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조합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점은 모순으로 보인다.

1. 제목: 「한국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87-1992」

2. 저자: 조재희
3. 발행연도: 1993
4. 쪽수: 256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7.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이론의 구성
3. 설명의 영역과 방법
제2장 사무전문직 노동자 계급영역
1. 사무전문직 노동자계급에 대한 논의의 검토
2. 모순적 계급위치개념의 재구성
3. 모순적 계급위치를 점하는 노동자의 구성
제3장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성장유형
1. 1987년이후 사무전문직 노동운동의 분출
2. 단위노조의 조직화와 전국수준 노조의 조직화
3. 노동조합의 조직화 수준

제4장 노동조합의 조직상의 목적과 이념

1. 사회변혁으로서 노동해방

2. 이익결사로서 노동조합이념

3. 직장민주화와 사회민주화

4. 민족민주변혁 이념

제5장 노동조합의 조직유형

1.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특성

2. 단위 노동조합의 r조와 내부역학

3. 전국적 수준의 노동조합의 구조와 내부역학

제6장. 노동정치메카니즘과 노조의 행위유형

1. 노동정치메카니즘의 구체적 유형

2. 노조의 설립과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정책의 실제

3. 노조의 전략과 대응양식의 변화유형

4. 소결

제7장 자본의 전략과 노조의 행위유형

1. 노조통제메카니즘의 구체적 유형

2. 노조의 설립과 쟁의 행위에 대한 자본의 대응의 실제

3. 노조의 전략과 대응양식의 변화 유형

4. 소결

제8장 요약 및 결론

8. 연구목적

1987년 이후 성장한 한국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의 형태와 특성을 분석한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민주화이행기 국면에서의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의 형태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서론과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사무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계급영역을 논하고 있다. 저자는 자본, 노동 그리고 국가라는 관계의 영역이 결정하는 메카니즘과 실제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성장시켜가는 운동의 영역을 접합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관계에서의 계급위치와 권력관계에서의 계급위치를 설명하는 두 개의 모델을 통해 사무직노동자의 모순적 계급위치를 재구성하고 있다.

3장에서는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성장유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87년 사무전문직 노조설립은 산업구조변화에 수반하여 나타날 뿐 아니라 87년 6월 항쟁까지의 민주화운동에서의 대중동원의 경험과 학생운동의 경험, 대투쟁에서의 생산직노동운동의 고양 등에 영향을 받아 촉발·성장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은 사무전문직 노조설립과 노조의 조직화, 리더십형성 등에 영향을 미쳐

사무전문직노조설립과 성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4장에서는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조직상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노조의 목적과 이념은 ①사회변혁으로서 노동해방이념 ②이익결사로서 노동조합이념 ③직장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이념 ④민족민주변혁이념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이념적 특징은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로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조설립이 정치적 국면의 변화시기에 이루어지면서 노조는 그 이념적 범위를 상당히 확대하여 출발함을 볼 수 있다. 노조설립 초기 나타난 정치적 권력관계에서 도출되는 목적은 이후 점차 퇴색되면서 이익결사체로서 노동조합이념들이 주요한 목적으로 자리잡아 스스로 이념적 범위를 협소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조직유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생 사무전문직 노조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노조를 표방하고 있고 기존 노총산하의 노조와는 달리 자주적 노조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조직은 형식면에서 기업별노조라는 유형을 벗어나지 않아 노동조합 내부구성은 다양한 직종을 포괄한 조직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무전문직 노조는 동일사업장내에서 모순적 계급위치에 있는 피고용자가 계급위치가 좀 더 분명한 하층 피고용자보다 주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무전문직 노동자가 정치지향적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노조주도 그룹과 그 구성원의 관계로 상설조직 외에 소모임과 문화운동모임을 조직하여 노조 리더십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6장에서는 노조의 행위유형에 대한 고찰로, 한국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은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한 운동방식은 항의농성, 단식투쟁, 가두 행진 등 여론에 호소하거나 법률적 대응 양식으로 나타난다. 사무전문직 노조는 정치계급과 대립하는 민중운동의 한 역량으로 조직되면서 노조는 정치적 요소로 인정받게 된다.

결국 필자의 문제의식은 다음 두 가지 문제제기에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왜 낮은 계급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치적 요소로 인정받는가와, 다른 하나는 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들 운동형태가 경제적 조합주의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계급으로의 형성이 역전되거나 쇠퇴하였는가 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앞의 논문 서술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사무전문직 노조는 정치권력관계에서 계급운동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민주화운동에 의해 조성된 정치변화의 국면에서 정치계급에 대립하는 민주화운동연합 혹은 민중블럭의 일원으로 자기조직화를 전개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동조합운동을 제약하고 있는 관계의 변화, 투쟁의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사무전문직 노조가 스스로 적응하여 변형시켜 나간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계급론적 관점에서 1987-1992년까지의 한국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운동형태를 모순적 계급위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국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성격과 조직의 형성과정 등을 노조성립과 그 과정이라는 단선적인 연구보다는 계급관계론에 의존하여 경제관계, 당시의 정치사회의 상황 등과 상호 관련시켜 논의를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무전문직 노조구성원의 의식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제목: 「한국 노동운동의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2. 저자: 최경희

3. 발행연도: 1996

4. 쪽수: 8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학위 수여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7. 목차

제 1장 서론

1절 문제제기와 연구과제

2절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제 2장 노동자 주체형성의 역사구조적 배경

1절 산업화정책에 따른 노동부문의 존재양상

2절 주체형성의 장애 장치로서의 법제도적 배경

3절 주체형성의 기반이 된 정치지형의 변화

제 3장 노동자 주체형성 과정에서 전노협의 위상과 역할

1절 민주화 투쟁과 민주노조의 확산(1987-1989)

2절 전노협의 출범과 활동(1990-1992)

3절 새로운 조직으로의 전화(1993-1994)

제 4장 결론

8. 연구목적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운동 역사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계급적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전노협의 형성과 활동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주체형성과정을 분석한다.

9. 연구내용

본 논문은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과 관련하여 87-94년까지의 전노협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조직화의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에 제약 조건을 거시구조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 필자는 계급형성이란 노동자가 스스로의 구상과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고 나가고자 하는 '동태

적 과정'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한국의 산업화 정책에 다른 노동부문의 존재양상을 살핀다. 즉 정부는 산업화과정 속에서 철저히 '노동부문'에 대한 배제 정책을 수행으로 정부와 재벌에 대한 노동의 예속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뿐 아니라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노동자 정치의 배제적이고 제약적인 조건(복수노조금지, 제 3자 개입금지,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 등)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배경으로 정치적 조건에서도 유신독재 정권과 군부정권으로 이어지는 '폐쇄적인 정치사회'의 특성도 계급정치의 가능성을 차단하였다고 고찰하고 있다.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전노협의 활동을 통해서 본 계급형성을 파악하고 있다. 크게 세시기(87-89, 90-92, 93-94년)로 구분하면서 전노협이라는 조직의 형성과 활동의 변화가 한국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즉 이 시기동안 조직 형식적 측면에서는 전국회의(1988)-전노협(1990)-ILO 공동대책협의회(1991)-전노대(1993)-민주노총(1994) 라는 조직의 형태 변화를 갖는다. 이 변화과정은 조직적 완성도를 높여가는 단계로 이는 의식적 극복과정으로 하나의 계급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조직 형식 기반으로 볼 수 있다. 변화과정은 효율성, 집중성, 전문성이 미흡했던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시작해서 업종별 산업별 노조로 이어지면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전노협의 역사는 '반어용노조전선, 민주노조 건설', 그리고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등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으며, 이는 현재에도 과제로 남아있다.

전노협이 한국 노동자 계급의 주체형성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필자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대중의 자기 조직으로 인식시키는데 합목적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왜 노동자 대중 주체의 활동공간이고 이것 자체가 계급성을 갖지 않으면 쉽게 와해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또한 전노협 활동은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경험이 되었다고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자 계급의 주체형성이 단순한 조직형태의 완성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조직을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주체형성은 '과정으로서의' 역사가 중요함을 설파한다.

10. 연구의의

전노협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주체 형성과정을 분석하면서, 우선적으로 주체가 놓여있는 현실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구조적 분석방법은 노동운동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구조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왔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또한 노동측의 전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노사정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전노협의 어떠한 형태로 진행 형성되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형성이라는 주제는 노동계급 내, 국가 정책 내, 또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호관련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단지, 조직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만을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 제목: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2. 저자: 최장집

3. 발행연도: 1997(1988)

4 쪽수: 524쪽(368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나남(열음사)

7. 목차

제1장 서론

1.일반적인 이론틀로서의 코포라티즘

2.한국적 맥락에서의 국가 코포라티즘

3.설명의 영역과 방법

제2장 제조업 부문 노동조합의 성장유형: 개관

1.전국 산업별 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조직

2.조합원의 증가: 양적 증가와 조직률

제3장 제조업 부문 노동조합의 성장유형: 분석

1.대외종속적 산업화와 노동자계급의 형성

2.문화적 및 이념적 성향

제4장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정책과 실제

1.정치적 법적 통제의 구조와 변화과정

2.노조설립의 실제

3.결론

제5장 노동조합의 구조와 내부역학: 사업장 수준에서

1.노동조합의 조직상의 목적

2.사업장 수준에서의 노동조합들

3.노조의 자주성과 노조내 민주주의의 관계

제6장 노동조합의 구조와 내부역학; 전국 수준에서

1.전국 수준의 노조와 그 조직에 관한 통제

2.결론

제7장 노동생산성과 逆조합기구의 결성

1.노동통제의 실제: 노사협의회와 공장 새마을운동

2.결론

제8장 강력한 관료국가와 공공정책결정

1.국가와 노동계급 간의 관계형성

2.산업정책 결정의 구조와 과정

3.정당과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우위의 추세
4.노동청의 역할과 지위
제9장 국가당국과의 상호접촉
1.지부 수준에서의 상호접촉
2.전국 수준에서의 상호접촉
3.결론
제10장 영향력의 유형
1.영향력 분석에 관한 범주와 틀
2.공식적 정책결정 채널을 통한 영향력
3.단체교섭과 노동시장에서의 영향력
4.단체행동에 의한 영향력
5.영향력의 요약 평가
6.노동조합 활동의 효율성
제11장 결론
추론
1.한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문제, 1987～1992
2.민주주의 이행하에서의 한국 노동운동
3.1997년 '1월 총파업'과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전망
한국노동운동 연표(1961～1997)
참고문헌

8. 연구목적

박정희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고도산업화 시기 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을 섬유, 금속, 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부문의 노동조합운동을 경험적 자료로 삼아 분석. 국가의 정치적·제도적 노동통제정책과 노동자들의 대응을 고찰하고 있다.

9. 연구내용

서론에서 필자는 권위주의시대 한국이 수출주도형 성장(산업화)전략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을 효율적이고 중앙집권화된 국가관료체제, 발전 및 발전주의에 대한 정치리더들의 열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능한 기업가 그룹, 그리고 정부와 기업가그룹의 효과적인 효과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노동통제와 노조의 대응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론틀로서 필자는 슈미터(Philippe C. Schmitter)의 코포라티즘(corporatism)모델을 취하고 있다. 즉 코포라티즘이란 "이익단체를 구성하는 단위들이 제한된 수로 단일하며, 강압적이며, 비경쟁적이며, 위계적이며,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서, 그 구성단위들이 그들 지도자의 선정과 요구 및 지지의 표명에 대해 국가에 의한 어

떤 통제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들이 국가에 의해 인가되고 각개의 범주에서 구성원의 이익을 대표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이익대표체계의 한 유형"이다. 필자는 한국적 맥락에서 국가코포라티즘(state corporatism)이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의 체계화를 비교하는데 있어 설명력을 갖는 정선된 체제변수로 보고 노동조합 출현의 유형, 내부역학, 공공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 노조지도자와 국가당국의 상호접촉,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노조가 미치는 영향 및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2·3·4장에서는 섬유, 금속, 화학 등 세 제조업 부문 노조의 성장유형을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노조성장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사회구조적 변화, 문화적·이념적 성향, 공공정책의 결과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먼저 사회구조적 변화는 대외종속적 산업화를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수출지향적 자본주의 산업화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했고, 여기서 증가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성장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를 야기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주 노동력은 최하층 농민들의 최하층 산업노동자로서의 수평적 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기술수준별 및 직업상의 지위별 노동자 그룹의 규모가 조합원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적·이념적 성향에는 유교적 전통과 도시화에 따른 특수주의적 대인관계, 교육의 급속한 확산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한국의 노동자 계층 집단의식의 성장에 영향을 준 외부세력은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설 연구단체와 교회단체였는데, 교회는 노동운동의 태동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반면, 노동자들의 의식을 '경제적 조합주의'에 한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공공정책의 결과, 즉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조의 조직유형과 성장유형을 경정하는 앞의 두 요인보다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5·6장에서는 노조 지부 및 전국 수준의 노조의 활동양상과 노조간의 관계, 그리고 생산 수준에서의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내부역학을 살펴보고 있다. 이 분석은 경인산업지대에서의 현지조사를 통한 8개 지부 노조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필자는 노조의 유형을 ①회사지배적 노조에서 회사지배적 노조 ②자주적 노조에서 자주적 노조 ③회사지배적 노조에서 자주노조 ④회사지배적 노조에서 자주노조를 거쳐 다시 회사지배적 노조의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내 민주주의'라는 내부구성상의 요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7장은 생산라인에서의 노동생산성을 증진하려는 국가당국의 정책과 노력, 그리고 그것이 노조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루고 있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 관료주의적 국가에서의 정책결정, 특히 경제 및 산업정책 결정의 구조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일단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와 초기 산업화 단계의 극도로 허약한 노동자 조직이라는 불균등한 권력관계가 국가의 억압적인 노동정책의 실시, 조직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배제시킨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9·10장은 전국 및 지부 수준의 노조지도자들과 국가당국간의 상호접촉의 유형과 노조가 어떤 형태로 국가당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는가하는 점과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영향력의 유형을 정책결정 채널, 단체협약, 노사분규로 나

누고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유사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본다. 즉 조직노동자들은 정책산출을 결정할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노조지도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결정 과정에 미친 노조의 영향은 취약하기는 했으나 생산적이었는데, 이 분야에서의 노조의 영향력은 1970년대를 통하여 파업금지와 더불어 임금교섭에 대한 강제조정 제도하에서도 조합원수의 증가와 노조의 활성화에 비례하여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10. 연구의의

이 책은 1988년 열음사에서 같은 제목으로 출간된 것을 보론을 추가해 재간행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필자가 도입한 '코포라티즘'은 이후 한국의 노동체제를 규정하는 이론틀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코포라티즘을 한국에 적용하는데 있어 그 적실성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 제목: 「구로동맹파업의 발생원인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

2. 저자: 최창우

3. 발행연도: 1987

4. 쪽수: 137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7. 목차

서론

1장 예비적 논의

2장 생산과정에서의 노동력 통제와 노동력 재생산 조건

3장 구로동맹파업 사업장 노조의 예비역량 축적 과정: 노조의 조직방어과정과 조직역량 축적

4장 구로동맹파업 사업장의 예비역량 축적 과정: 임금인상투쟁과 대중역량 축적

5장 동맹파업과 연대투쟁의 발생 및 결과

6장 동맹파업 원인 분석

결론

8. 연구목적

구로동맹파업의 발생원인을 사업장내 노자간의 역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고찰한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구로공단의 공업구조 및 노동자의 객관적 ·주체적 위치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2장은 동맹파업을 벌인 사업장내 생산과정에서 노동통제 실태와 노동력 재생산의 조건, 3장과 4장은 동맹파업이 발생하기 전 노조결성 및 조직방어과정과 임금인상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조의 조직역량과 대중역량이 발전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5장과 6장에서는 동맹파업이 결정되는 과정과 파업의 실태, 파업을 둘러싼 국가 및 자본, 그리고 사회운동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동맹파업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필자는 구로동맹파업에 대한 기존의 “선도적 정치투쟁” 혹은 “모험주의적 성격”, “노동조합운동(경제주의)”라는 평가를 단면적이고 부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연대파업에 참여한 각 노조의 단위역량의 강화와 노조를 파괴하려는 국가·자본측의 상호관계속에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이 통일적으로 결합한 투쟁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각 노조의 단위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노조지도부의 헌신적 활동과 일반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결합을 강조하면서 소수활동가(학출노동자)의 ‘지역정치소모임’이 파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비판하고 있다. 즉 당시 대우어패럴, 롬코리아, 부흥사,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등에 소속된 학출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특별히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기보다는 노동자대중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조지도부를 돕는 현장노동자와 연대관계를 형성해 가는 상태에 있었고 동맹파업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주로 구로동맹파업에 참여한 노조위원장들 및 일반노동자와 파업사업장 학출노동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이끌어 내고 있다.

(2)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한 4개 노조는 노조결성부터 정도의 차는 있지만 국가와 자본측의 물리적·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대응하여 조직을 방어하고 임금투쟁을 통해 조직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동맹파업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각 단위노조내의 역량강화(조합원과의 결합력)와 국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 노조간의 일상적 연대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즉 노조결성 시기부터 4개의 각 노조간에 이루어진 부서별 교류는 처음에는 노조활동 경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 노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지만 교류가 계속되는 동안 인식의 동질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연대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관계를 토대로 구로지역의 민주노조들이 연대의 틀로서 ‘지역협의체’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권력의 탄압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탄압에 구로지역 민주노조들은 대중적 단결력에 기초한 동맹파업을 벌인 것이다.

10. 연구의의

필자가 각 단위노조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연대활동의 강화가 담보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서로 통일적으로 결합되었다는 점을 구로동맹파업의 의의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에서 구로동맹파업의 한계를 선도투쟁으로 규정하여 필자가 문제제기한 이전의 평가를 수용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난다. 또한 단위노조의 역량과 연대투쟁 관계 규명과 함께 연대투쟁이 갖는 노동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제목: 『7-8월 노동자 대중투쟁』

2. 저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리포트)

3. 발행연도: 1987

4. 쪽수: 261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민중사

7. 목차

머리말

Ⅰ. 정치: 6.29 이후 정치정세의 변화와 전망

Ⅱ. 한반도 주변정세

Ⅲ. 특집: 7-8월 노동자 대중투쟁

A. 총개관 및 평가

B. 각계의 반응

C. 노동자 대중투쟁의 지역별, 부문별 전개

Ⅳ. 운동권 동향

Ⅴ. 경제: 노동자 대중투쟁의 경제적 배경

8. 연구목적

7.8월 노동자 대중투쟁에 대한 진행과정과 자료분석, 민주화과정 속에서의 의미 등을 평가한다.

9. 연구내용

1장과 2장에서는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한 당시 6.29 이후의 정치정세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당시는 민중운동의 조직적인 운동역량의 성장과 전반적인 국민의식의 성장이 있었고, 이전에 소외되었던 노동대중의 광범위하고 폭발적인 진출이 있었던 시기로 보고 있다. 당시 국내 정치적 상황은 여권은 재집권을 위한 움직임을, 야권은 양김의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미국은 안정된 친미 정권 수립을 위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당시 한반도 주변정세를 살피면서 한반도에 화해구도 조성은 민주적 정부수립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7-8월 노동자 대중투쟁을 6월 민주화 대투쟁의 성과에 힘입은 것이자 그 부분적 성과를 보완, 발전시키는 민주화투쟁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대중투쟁은 하루 평균 44건, 거의 전 산업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투쟁내용은 권위주의적 관리체제의 타파, 임금인상요구나 노동조건 개선 요구와 더불어 어용노조 민주화, 노조결성 등으로 이전의 생존권에서 한걸음 나아가

노동자대중의 의식상태를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노동자 투쟁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은 초기에는 방관자적 입장에 있다가 이후 이념적으로 끌고 가며 탄압한다. 기업은 '선조업후협상'을 내세우면서 구사대를 이용하여 투쟁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7-8월 노동자대중투쟁에 대하여 각 세력 및 지역별, 부문별 투쟁 전개과정과 평가, 그리고 전망을 서술하고 있다. 세력별로는 정부. 여당, 기업주, 노총, 야당, 그리고 6.29이후 결성된 노동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크게 경남·부산지역, 인천·경기지역,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경남·부산지역에는 울산, 부산, 마산·창원, 옥포 대우조선을, 인천·경기지역에는 인천, 성남, 경수지역, 서울을, 마지막으로 기타지역으로 대구, 기타경북지역, 대전, 광주 등의 지역에서 있었던 투쟁의 사례와 전개과정, 각계의 반응 등을 서술하였다. 또한 부문별로는 광선노동자 투쟁과 운수노동자 투쟁의 사례를 서술하였다. 또한 노동자대투쟁을 6월 민주화 대투쟁의 연장으로 보는 관점은 당시의 경제적 배경 하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최소한의 민중생존권의 요구도 자본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며, 그 경제적 요구는 민주화의 요구로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7-8월 노동자대중투쟁의 과정과 사례연구, 각계의 반응 등을 전개하고 있고, 이는 노동자대중투쟁이 6월민주화 대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민족민주운동사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책은 우선 당시의 노동자 대중투쟁의 발발과 전개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서 당시 상황에서 노·사·정의 움직임의 추이를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서의 가치가 크다. 또한 노동자대투쟁을 전후로 한 정치적 상황과 노동투쟁에 관한 각 계의 반응, 노동자 대중투쟁의 경제적 배경 등을 잘 그려내고 있다.

1. 제목: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노조운동의 조직강화를 중심으로」

2. 저자: 허은영

3. 발행연도: 1998

4. 쪽수: 9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동정책학과

7. 목차

1장. 서론

2장. 이론적 배경

3장. 한국노동운동의 전개과정

4장. 민주노조운동의 현황

5장. 현장조직을 통한 조직강화 방안

6장. 결론

8. 연구목적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이후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상태를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진단하며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한다.

9. 연구내용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전반적 이론을 검토하고 있다. 3장에서는 한국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을 1987년을 전후로 살펴보고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노조와 조합원의 급격한 증가, 산별노조 중심으로 전환, 업종과 이념에 따른 산별노조, 조직체의 분화. 민주노조와 재야 노동세력의 대두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장에서 필자는 한국노총의 비민주성과 관료성을 비판하면서 전노협의 필요성이 재고되고 90년 전노협이 출범하고 95년 민주노총 발족까지를 고찰하고 있다. 4장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의 현황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고찰하였다. 민주노총의 강령을 통해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을 이념으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97년 당시 민주노총의 조직현황을 산별, 그룹, 지역별로 분류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당시 노동법개정, 임금인상투쟁,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등의 사회개혁투쟁 및 정치투쟁 등의 내용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현장조직을 통한 조직강화와 민주노조운동의 발전방향을 전망해본다. 현장조직운동은 노동조합운동에서 산별 연맹운동의 발전단계에 있고 노동자정치세력화 및 노동자정당건설의 토대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미 어용노조퇴진운동이나 노조민주화투쟁, 노조정상화투쟁, 민주노조활동과 현재조직 재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어용노조 민주화운동과 노조결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전노협이라는 전국조직체 건설투쟁과 민주노총건설 등을 한국노동조합운동의 현상태로 보고 있다. 필자가 보는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전국노동자 계급적 단결로 요약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①민주노조운동 이념 정립 ②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가 필수과제 ③현장조직력의 강화 ④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즉 조직운동은 주체의 계급형성과 공동의 지향점 형성, 노동자계급정치 등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필자는 현장조직운동의 강화를 통해서 무력화되어있는 현장을 복구하고 조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 연구의의

민조노조세력이 어떠한 형태로 조직을 강화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잘 정리되어 있으나 필자가 노동자계급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그 방안의 실현을 위한 방법 제시가 미약하고 당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 지역노동운동

1. 제목: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리와 연대: 1980년대 이후 부천지역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2. 저자: 김은미

3. 발행연도: 1993

4. 쪽수: 128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7. 목차

Ⅰ. 서론

1)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연구문제와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관련이론의 검토

2)연구를 위한 분석틀

Ⅲ. 부처 지역의 현황과 특성

1)부천지역의 도시화 과정

2)부천의 지역문제와 부천시민의 의식

Ⅳ. 1980년대 이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전개

1)1980년대 이후 부천 지역 사회운동의 흐름

2)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조직현황

3)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

Ⅴ. 결론

8. 연구목적

변화하는 한국의 사회운동을 행위자를 통해 연구하고,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라는 이분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9. 연구내용

본 연구는 부천지역 사례연구를 통해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갖는 차이와 연대를 연구하고 있다. 우선 1,2장 서론과 이론연구에 이어 3장에서는 부천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연구한다. 이는 지역

사회운동은 전체사회운동의 축소판이라는 인식과 부천지역이 시민운동의 모범적 사례로 관심을 끌었다는 점등을 부천이라는 지역선택의 이유로 언급하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부천지역의 현황을 필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높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젊고 고학력이라는 인구구성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고찰했다. 이러한 측면은 변화에 대한 높은 기대와 함께 사회운동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장에서는 전국적 사회운동의 흐름과의 비교 속에서 부천지역 사회운동의 흐름을 개관하고 있다. 더불어 부천지역 운동조직들의 이념과 주체, 조직, 활동내용을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범주화한다. 또한 이들의 연대활동과 관계망을 살펴 둘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점은 시민운동이 민중운동의 대안으로 활성화된 것은 아니라고 것이다. 즉 19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이 정치투쟁과 계급계층별 이해에서 출발한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운동목표와 이슈를 갖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뿐만 아니라 시민운동도 활성화 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1992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부천시협의회(부천 공선협)의 활동과 총선 및 대선 시 공선협의 활동에서 나타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망 형성 등에서 이유를 도출하고 있다. 필자는 이후 운동도 계급계층을 달리하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각자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서로 연대하는 양상을 띨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지역수준이지만 80년대 이후 민중운동(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밝혔듯이 분석대상이 조직과 활동가(지도자)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과 연구의 결론이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비교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1. 제목:『내사랑 마창노련』(상・하)

2. 저자: 마창노련사 발간위원회, 글쓴이 김하경
3. 발행연도: 1999
4. 쪽수: 801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갈무리

7. 목차

상)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과 마창노련 건설
1. 도시로 공장으로
2. 밀알의 투쟁

3. 그 날이 올 때까지
4.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5.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 창립

제1장 어깨 걸고 나가자(1988)
1.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맞서 투쟁하리라
2. 구사대 추방 및 마창노련 의장 석방투쟁
3. 1988년 노동법개정투쟁
4. 1988년 하반기 노조탄압 저지투쟁
5. 11·13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개정 전국노동자대회
6.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출범
7. 어깨 걸고 나가자
제2장 내 사랑 마창노련(1989)
1. 마창단결! 완전쟁취!
2. 세신실업 구사대 퇴치투쟁
3. 들불처럼 타오른 창원대로 대투쟁
4. 5·1절 총파업투쟁
5. 1989년 임금인상투쟁 및 상반기 투쟁 마무리
6. 9·2 마창노련 침탈 테러사건
7. (주)통일노조 폭력테러와 탄압규탄투쟁
8. 11·1, 11·2 마창노련 총파업투쟁
9. 11·12 전국노동자대회
10. 전노협 건설을 위하여
제3장 전노협 깃발 아래 거듭나는 마창노련(1990)
1. 전노협 창립과 밀려오는 탄압
2. 업무조사 거부하고 마창노련 탈퇴 저지하라
3. 5·1절 전국 1차 총파업투쟁
4. 이영일 열사와 2, 3차 전국노동자투쟁
5. 1990년 임금인상투쟁
6. 마산교도소 내 처우개선과 고문폭행 규탄투쟁 및 그 지원투쟁
7. 빼앗긴 민주광장
8. 1990년 노동법개정 투쟁 그리고 11·11 전국노동자대회
9. 우리 갈 길 멀고 험해도
제4장 사수 전노협, 강화 마창노련(1991)
1. 마창노련·전노협의 위기

2. 열사의 시신을 부둥켜안고서, 투쟁!

3. 1991년 상반기 투쟁

4. 1991년 하반기 단협투쟁 및 민주노조사수투쟁

5. 1991년 노동법개정투쟁과 ILO 공대위

6. 마창노련 창립 4주년 기념, 3회 들불대동제

하)

제5장 다시 또다시(1992)

1. 새로운 집행부 출범

2. 1?18 마창노련 연대투쟁

3. 마창노련 총선투쟁

4. 총액임금제분쇄 투쟁

5. 파업투쟁

6. 1992년 하반기 고용불안의 그림자

7. 1992년 노동법개정투쟁 및 11·8 전국노동자대회

8.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노동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

제6장 민주노조 총단결(1993)

1. 고용한파를 헤치고

2. 해고자 원직복직투쟁 및 노경총 임금합의 반대투쟁

3. 1993년 임단협 교섭과 상반기 투쟁

4. 1993년 파업투쟁

5. 1993년 임단투 마무리 및 결과

6. 1993년 노동법개정투쟁 및 10·31 전국노동자대회

7. 전해투의 해고사업장 순회투쟁

8. 1993년 회색의 겨울

제7장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건설을 향하여(1994)

1. 전노협 위원장 선거와 마창노련

2. 노경총 임금합의 반대 및 한국노총 탈퇴투쟁

3. 마창노련 긴 진통 끝에 새로운 집행부 출범

4. 1994년 마창지역 파업투쟁

5. 1994년 임단투 마무리

6. 고 임종호 열사의 죽음

7. 산별노조 및 민주노총 건설과 1994년 11·13 전국노동자대회

제8장 마창노련 정신이여 영원하라(1995)

1. 1995년 임단협·노동법개정·사회개혁 투쟁

2. 투쟁열기로 고양되어 가는 교섭기

3. 불타는 전국 투쟁전선

4. 폭염도 녹여낼 만큼 뜨거웠던 파업투쟁

5. 1995년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건설 사업

6.근로자파견법 저지,민주노총탄압분쇄, 5·18 학살자처벌요구 투쟁

7. 민주노총 창립 전국노동자대회

8. 마창노련·전노협 해산

제9장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시대로

약어일람

8. 연구목적

전노협의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해 왔던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이하 마창노련)의 8년사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조명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9. 연구내용

이 기록은 단순한 민주노조 운동의 공식적 역사에 대한 긍정을 넘어서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실들과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마창노련은 신문 발간과 교육 선전으로 투쟁의 정신을 일깨우는 한편 노동자의 경제적·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동조합 탄압을 저지하며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한 지역적·전국적 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0년 1월 20일 전노협의 결성은 이러한 노력이 거둔 조직적 성과였다.

전노협의 건설은 자본에 대항하는 전국적 전선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노협은 그 건설의 첫날부터 자본의 총공세에 직면해야 했다.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 대책', '전노협 핵심인물 산업사회에서 완전 격리', '전노협 가입노조 업무조사' 등을 무기로 한 자본의 역공이 그것이었다. 이미 89년 12월에 전경련을 비롯한 6개단체가 총집결하여 전국경제인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전노협이 창립된 바로 그 날에 민주당, 공화당, 민정당이 야합한 민자당이 창당된 것을 필자는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다. 민자당과 경단협의 총공세로 전노협뿐만 아니라 마창노련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중천노조와 스타노조, 그리고 코리아타코마노조의 마창노련·전노협 탈퇴는 그 위기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준다.

이 책에서 위기는 곧 자본과 노동 사이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표현된다. 필자는 골리앗 투쟁의 패배 이후 노동운동이 침체기로 들어섰다는 식의 평가를 거부한다. 골리앗 투쟁과 그것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민중의 전국연대, 그리고 5·1절 전국총파업은 자본의 역공에도 굴하지 않는 노동의 총궐기의 서막이었을 뿐이다.

물론 이후 투쟁의 양상은 바뀌었다. 1980년대 후반의 투쟁이 공세적이라면 1990년대 초반의 투쟁은 수세적·방어적이다. 많은 투쟁들이 구속자, 해고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분신과 같은 비극

적 형태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 1991년 겨울 권미경 열사의 죽음은 이윤율의 회복을 위해 자본이 강제한 '30분 일 더하기'라는 노동강화 전략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를 보여준다.

필자는 민주노총의 건설이 추진된 것은 자본의 이러한 역공이 드세어진 조건에서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제6장 8절 '1993년 회색의 겨울'은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실감나게 전달한다. 자본은 한편에서 전투적 노동운동을 무력으로 억압하는 한편 타협적 노동운동이 기를 펼 공간을 열어주는 양면 작전을 구사했다. 한국노총이 김영삼 정권의 사회적 합의 전술의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그에 불만을 품은 노동조합들의 한국노총 탈퇴운동을 자극하고 그것이 오히려 민주노총 결성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1994년 무렵에는 민주노조 운동 내부에서도 투쟁보다 교섭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었음을 비판적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1994년 9월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임종호 열사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타협 경향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타협이냐 투쟁이냐는 이후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미결의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마창노련도 그 쟁점을 피해나갈 수 없었다.

마침내 1995년에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그해 12월에 마창노련은 해산된다. 필자는 마창노련과 전노협의 해소를 청산적 해산이 아니라 발전적 해소라고 규정하지만 마창노련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마창노련 8년사를 방대한 양의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지역노조의 역사라기보다는 민주노조운동의 한 국면을 조명하는데, 그리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설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1. 제목: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2. 저자: 신이현

3. 발행연도: 1990

4. 쪽수: 68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7. 목차

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방법 및 범위
2장. 마산·창원지역 노동운동의 현황과 특성
1. 80년대 노동운동과 지역노동운동
2. 마산·창원지역 노동운동의 특성
3장.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의 내적 동태
1. 인적자원
2. 조직
3. 재정력
4. 리더쉽
5. 정책결정과정
4장.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의 외부환경적 요인
1.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2. 경제발전과 노동통제
3. 사회변혁운동과의 관계
5장. 결론

8. 연구목적

전노협의 탈조합주의적 움직임에 대해 마창노련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지역노조로서의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1987년 이후 이루어진 활동을 중심으로 마창노련을 연구하여 그 평가와 함께 마창노련이 급격히 쇠퇴하는 상황 등을 살펴 한국노동운동 현황 및 앞으로의 전개방향, 민주화의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

9. 연구내용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80년대 노동운동을 개괄하고 마산·차원지역의 노동운동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다. 3장과 4장에서는 마창노련의 내적 동태상황(인적자원, 조직, 재정력, 리더십, 정책결정과정)과 외부적 환경요인(권위주의적 정치체제, 경제발전과 노동통제, 사회변혁운동과의 관계)을 고찰한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마창노련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제시한다.

필자는 마산 창원지역 노조의 현황과 특성을 한국노총과의 비교를 토대로 하여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마창지역 노동운동의 특징은 ①대중적 노동운동의 기반이 튼튼하다 ②노조간의 연대활동이 상대적으로 높다 ③노동자중심주의적 경향이 뚜렷하다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마창노련의 목적은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을 전제하고 있으며 대중지향적 정치투쟁을 하고 비상례적 정치참여, 변혁지향적 정치참여의 성향을 나타낸다. 마창노련은 조직률에서나 재정력에서 한국노총과 큰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마창노련 간부의 리더십은노동운동권 영향이 강하고 통제 가능성도 있으며, 마창노련의 정책결정유형은 ①일반노조원 의사 반영 미흡 ②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종속 ③수직적 의결기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고찰하고 있다.

필자는 4장에서 외부적 환경요인인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조합주의적 성격, 정부의 공안정국이 마창노련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필자가 살펴본 마창노련의 긍정적 측면은 ①한국노총보다 훨씬 사회민주화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어 노동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②정책결정과정고찰에서 보았듯 조합내 민주화 추진 ③한국노총에 비해 재정, 홍보 및 연대 활동에서 조직 확대 강화를 추구 ④정부, 사용주, 시민 등에 대해 노동운동에 대해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함 등을 들고 있다. 부정적 측면은 ①노동운동의 이념으로서 계급투쟁론, 노동해방논리, 민중혁명론 등 급진적이고 체제부정적 논리로 등장하여 국민외면과 국가규제의 명분으로 작용 ②지나친 정치투쟁 편향적 성격 ③노동운동전개과정에 불법적 운동방법으로 국민과 근로자로부터 외면 ④단위조합 노사분규에 외부세력으로 개입하고 간섭 ⑤과도한 경영권 개입 등이다. 필자는 마창노련의 쇠퇴 요인이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더 강렬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필자는 한국 이익집단은 내적 요인 강화보다는 외부환경에 더욱 주력해야 하고, 이익집단 활동의 제도권 내 성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운동이 제도권내에서 활성화되려면 노동운동을 뒷받침할 정당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노동운동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는 지역노동운동의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마창노련의 활동 사례연구보다는 마창노련의 내부적 외부적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마창노련 각각의 활동의 성과 및 의의를 찾기 힘들다.

1. 제목: 『한국의 지역노동운동연구: 포항, 울산, 마산·창원 지역의 비교』

2. 저자: 이상철

3. 발행연도: 1990

4. 쪽수: 241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한울

7. 목차

제1장 서론

1.지역노동운동의 연구의의

2.이론적 틀

3.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노동상황과 노동운동의 성격

1.산업화와 자본축적

2.노동통제

3.제조업의 지역적 분화
4.노동운동의 기본적 성격
제3장 포항지역의 노동운동
1.노동운동의 전개
2.지역특성
3.자본과 노동통제
4.노동자의 존재양태
5.노동운동의 내적 요인
제4장 울산지역의 노동운동
1.노동운동의 전개
2.지역특성
3.자본과 노동통제
4.노동자의 존재양태
5.노동운동의 내적 요인
제5장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
1.노동운동의 전개
2.지역특성
3.자본과 노동통제
4.노동자의 존재양태
5.노동운동의 내적 요인
제6장 세 지역 노동운동의 비교분석
1.노동운동의 성격
2.지역간 차별화의 요인
3.지역간 유사점
4.지역간 차이점의 의미
제7장 결론
참고문헌/부표

8. 연구목적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지역노동운동을 비교함으로써 지역별로 형성되고 있는 노동운동의 성격을 유형적으로 파악하고, 유형 형성에 미치는 제요인 및 인과기제를 규명하며, 한국노동운동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으로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이 연구의 의의 및 연구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필자는 기존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을 다룬 연구들의 두 가지 경향-전국적 단위와 작업장 단위(거시연구와 미시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1)지역을 단위로 삼는 연구는 기업의 심층적인 사례연구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론적 연구를 매개하여 양측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2)지역노동운동의 비중증대 3)노동운동의 객관적 조건은 유사하지만 운동의 양상이 크게 다른 지역들을 비교함으로써, 주객관적 조건의 차이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상이하게 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역연구의 중요한 의미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세 지역의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의 특성 비교를 위해 노동운동의 전개, 지역특성, 자본과 노동통제, 노동자의 존재양태, 노동운동의 내적 요인이라는 5가치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2장에서는 지역노동운동의 환경과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축적과정과 방식, 노동통제 특히 국가의 노동정책을 개관한 후, 국가의 강력한 노동통제 뿐만 아니라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독점자본의 지배, 자본주의적 발전의 제조건이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활성화의 객관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3-6장은 2장에서 고찰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객관적 구조(경제 및 국가-자본-노동관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 지역에서 노동운동이 차이를 갖게 하는 지역간 제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6장에서는 3-5장의 종합 및 비교를 시도하고 있는데 1)노동운동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포항과 울산/마산·차원지역은 차이를 보인다. 세 지역 모두 1987년부터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나 포항에서 노조결성이 본격화된 것은 1년 후인 1988년 1월부터이고 1989년이래 노동통제가 강화되자 민주노조 세력이 쉽게 와해되기도 했다. 또한 운동의 방향(노선)에서도 경제적 조건개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울산과 마산·창원에서는 1987년 노조결성·임금인상·인격적 대우 등을 요구하던 경제적 요구에서 급격히 변화하여, 조합활동의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보안법폐지·정권퇴진 등 정치적 요구로까지 나아가고 있다(p 180 <표6-1>). 2)세 지역의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지리적 측면과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그리고 작업공간 및 생활공간의 공간적 배치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공간적 배치의 경우 그것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포항 포철노동자의 주택단지와 울산 현대노동자들은 모두 집단 거주지로 밀집되어 있지만, 포철 주택단지는 포철노동자와 타업체 노동자·토착주민간 거리감을 형성하여 분산효과를 나타내는데 비해, 현대노동자의 거주지는 노동자·가족·주민간 결집효과를 조성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저항운동과 외곽지원단체의 역할에서 전자는 포항·울산이 미미한 반면, 후자는 울산과 마산·창원지역에서 노동운동 강화에 큰 공헌을 했다(p 182 <표6-2>). 3)자본구성의 측면에서 세 지역 모두 중화학공업의 대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결합노동자적 성격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형태와 자본의 구심이라는 측면에서 포항은 공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역내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확고한 구심을 형성하고 있지만 마산·창원에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대사업장이나 재벌 계열사의 집중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의 구심은 자본가단체가 행하게 되어 약하다(p 184 <표6-3>). 4)노동통제: 세 지역 모두 국가기간산업이 위치하고 한국경제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정도가 상당히 높

다. 특히 포철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의 통제가 울산이나 마산·창원의 기업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p 186 <표6-4>). 5)노동자의 존재양태: 세 지역은 대체로 학력과 성별이 유사-고졸이상의 남성노동자-하고 나이와 근속연수-포항이 울산과 마산·창원에 비해 나이와 근속연수가 많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금과 후생복지의 수준은 포철이 전국에서 최고수준이며 울산, 마산·창원의 순이다. 이것이 포철노동자들의 보수적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한 가지 요소로 필자는 보고 있다(p 188 <표6-5>). 6)운동의 내적 요인: 세 지역은 노조의 조직율면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포항과 울산/마산·창원은 노사협조주의 대 노사대립주의라는 측면과 울산/마산·창원이 지도부보다 자생적으로 형성된 수많은 비공식조직과 일반 조합원들의 힘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데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p 191 <표6-6>). 이를 종합하여 도표화한 것이 p 194의 <표6-7>이다. 요컨대 울산은 구조적·객관적 측면에서 포항에 가깝지만 주체적 측면에서는 마산·창원에 가깝고 이선은 노동운동을 조건짓는 객관적·구조적 측면보다 계급역량에 기초한 노사간 상호작용의 주체적 측면이 국면적 수준에서의 운동양상을 보다 강하게 규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7장 결론에서 필자는 5가지로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고 있다. 1)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규칙에 따라 교섭을 한다고 보는 다원주의론은 한국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2)국가가 노조를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인정하여 제한적 범위내에서 정치적 참여를 용인한다는 조합주의론도 한국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3)세계체제에서의 위상에 따라 한 국가 내부의 통제와 저항의 기제가 기본적으로 결정된다고 파악하는 세계체제론은 세 지역간 노동운동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약하다. 4)미시적 변수인 노동과정의 성격이 구조화되어 나타나는 기술적 통제는 개별사업장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5)노동과정·기술수준이 지역노동운동 차별화의 한 요인이긴 하지만,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이들 변수가 노동운동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결국 지역의 중범위 수준에서도 거시적인 구조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객관적 제특성도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역노동운동의 성격은 역내 핵심사업장에서의 노사 역학관계와 상호작용 양식이 크게 규정한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노동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1990년을 기준으로)들이 거시적 측면(국가·자본대 노동 혹은 사적 개괄)에 집중한데 대한 문제의식으로 지역간 노동운동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필자가 밝힌 대로 거시연구와 미시연구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범위 수준의 연구라는 의미가 연구방법, 즉 전국과 작업장의 중간단위로 지역을 상정함으로써 결국 거시적 고찰과 미시적 고찰의 혼용과 나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자도 결론에서 지적하듯이 결국 핵심사업장에서의 노사 역학관계와 상호작용 양식이 노동운동을 크게 규정한다는 것은 지역 간 차이점이 결국 기업과 사업장의 차이로 환원되는 경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3) 여성노동운동

1. 제목: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특수과제의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2. 저자: 방혜신

3. 발행연도: 1993

4. 쪽수: 108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7.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1. 이론적 논의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Ⅲ. 여성특수과제의 실현 내용

1. C사의 여성특수과제 실현 내용

2. S사의 여성특수과제 실현 내용

Ⅳ. 여성특수과제의 실현 조건에 관한 분석

1. 노동조합의 여성중심적 특성, 조직력과 교섭력

2. 노동조합의 활동

3. 객관적 조건의 변화

4. 여성노동자들의 의식 변화

5. 기타

Ⅴ. 결론

8. 연구목적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여성특수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인 투쟁을 한 것을 밝히고,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을 분석.

9. 연구내용

본 논문에서 필자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여성특수과제를 잘 해결한 c사와 s사의 사례연구를 통해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의 특수과제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1장 서론과 2장 이론검토에 이어 3장에서는 여성특수과제의 실현내용을 고찰한다. c사와 s사가

여성특수과제를 실현한 내용을 보면 생리휴가 확보, 성차별적 언행금지, 결혼퇴직제 폐지, 산전산후 휴가 사용정착, 수유시간 사용정착화, 생산직 여사원의 승진승급 쟁취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이런 여성특수과제가 실현될 수 있었던 조건 및 투쟁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노조가 여성중심으로 조직되면서 여성문제에 자연히 주목하고, 연대의식과 자매애 형성으로 단결력 강화. 외부단체의 교육을 통한 민주적, 도덕적인 여성지도력 ② 여성중심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취미모임과 여가활동, 소모임, 노조교육 등)으로 여성문제 교육 ③노동통제 약화, 노동조건의 변화로 결혼 후 직장생활 가능한 물질적 조건 형성 ④주체적 자아의식과 여성문제 인식 등 여성노동자의 의식변화 ⑤두 사업장에서 출산퇴직 철폐문제 등에 최초로 실천한 사람의 역할. 필자는 이러한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여성특수과제의 실현을 낳을 수 있었다고 보았고, 또한 여성노동자의 의식변화는 노조의 조직력을 강화시켰고, 이후 8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10. 연구의의

노동운동에서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역할 및 민주노동에 대한 과정과 평가에 중심이던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여성특수과제라는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노동자들이 어떠한 투쟁을 전개했는가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제목: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2』

2. 저자: 이옥지, 강인순
3. 발행연도: 2001
4. 쪽수: 1권: 585쪽, 2권: 498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한울아카데미

7.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한국여성노동자운동의 역사적 배경
제3장 1960년대의 여성노동자운동
제4장 1970년대의 한국사회와 노동상황
제5장 1970년대 초의 여성노동자운동 사례(1970-1972년)
제6장 유신체제하에서의 여성노동자운동 사례(1973-1979년)
제7장 1970년대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전개
제8장 민주화의 봄과 여성노동자운동(1979년 10월 26일-1980년 5월 17일)
제9장 전두환 정권하에서의 여성노동자운동

제10장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과 여성노동자

제11장 활성화된 여성노동자운동(1988-1989년)

제12장 탄압과 침체 속의 여성노동자운동(1990-1995년)

제13장 맺음말: 여성노동자의 과제와 전망

8. 연구목적

지금까지의 남성중심적인 노동운동사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역할이나 주체적인 모습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여성노동자중심의 노동사흐름을 서술하여 노동운동에서 여성노동자 역할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9. 연구내용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1,2』는 노동운동은 남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기존 시각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투쟁하여 이룩한 업적에 대한 인정과 평가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저자는 일제식민지 하에서부터 문민정부까지의 방대한 1차 자료를 분석하고 사례연구하여 세밀하게 당시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우선 1권에서는 머리말을 통해 여성노동자운동사 서술의 의미와 개념을 언급한다. 저자는 남성중심적 노동운동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역할이나 주체적인 모습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서 연구의 의도와 의미를 찾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운동사는 남성 중심 기록으로 인해 노동운동사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은 난점이 있으나, 연구를 통하여 진정한 노동운동사로서의 위치 지움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여성노동운동은 일본 식민지 자본주의 아래 창출된 여성노동자들로부터 비롯하여 해방, 분단, 보수적 국가권력의 탄압으로 인해 단절되면서도 이어져왔다. 1960년대는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 정책과 더불어 창출 진행된 여성노동자운동이 있었으나 어용노조의 산하노조로서 또는 미조직 상태에서의 투쟁으로 조직의 성격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는 수출위주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외자기업과 수출위주의 사업장에서 노동운동이 주로 일어났다. 이들은 노동운동의 중심적 주체로 형성되었다.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노동3권의 박탈과 권위주의적 노동통제 아래서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민주화나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의 개선, 이를 위한 정치, 사회 민주화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와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 단체 역할이 중요했다. 70년대는 동일방직 노조, YH무역노조, 삼성제약노조, 반도상사노조, 청계피복노조, 콘트롤데이타노조 등 민주노조운동이 전개되었다.

80년대 노동운동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80년 5.18부터 83년까지를 암흑기, 84년부터 86년 말까지를 회복기라 구분하였다. 암흑기에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극히 드물었다가 84년 유화국면부터 점차 활기를 띠었다. 암흑기에는 노조결성부터 매우 어려웠고 노조의 일상적 활동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이루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조 결성시도가 있었고 민주노조 사수투쟁도 잇따랐다. 80년대 초반에는 노동쟁의가 양적으로 매우 적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

었던 노동운동은 주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과 중소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있었을 뿐이다.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신규노조결성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노조민주화투쟁,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 투쟁이 일어났으며, 청계노조 복구 대회 및 합법성 쟁취대회가 개최되고 소그룹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여성노동자운동이 여성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조 결성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토대 획득한 것은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이다. 노조의 자발적 건설이 합법적 공간에서 본격화되어 여성노동자운동은 이런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활성화되었다. 87년 이후 여성노동자운동은 두 조직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직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노동조합운동, 다음으로 1987년 6월 민중항쟁을 전후로 결성된 여성노동자운동단체인 여성노동자회를 기반으로 한 움직임이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는 산업구조조정과 자본의 세계화,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이후 IMF는 여성노동자들의 우선 정리해고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였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몰아내었다. 따라서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이 수적으로 감소를 불러왔다. 이는 운동의 정체성으로 연결되고 있어 21세기 여성노동운동의 과제와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마지막 13장 맺음말에서는 여성노동자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성과로는 ①이념면에서 보면, 평등,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일관되게 관철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극복과 계급적 불평등의 극복하는 역할을 하였다. ②조직면에서 보면, 한국노총의 노사협조적인 조직체계와 민주노조라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여 두 조직을 통한 노동운동의 전개가 이루어졌다. 이는 여성노동자운동의 조직 감소화와 정체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③일상적인 면에서 보면, 임금인상 및 단체협상과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였고, 정기임금인상과 단체협상 갱신을 기반으로 당면한 노동문제 및 여성문제 해결하게 되었다. ④투쟁 내용 및 형태측면에서 보면, 60-90년대까지 시기와 상관없이, 민주노조 사수투쟁, 노조민주화 투쟁 등 노동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확보를 위한 노조 건설 및 작업현장에서의 제기를 위한 정치 및 사회 민주화 투쟁. 90년대 이후 고용안정 및 인원 감원 저지 투쟁을 펼친다. 90년 이전에는 여성문제보다 노동자로서 제기되는 문제에 집중하고, 90년대 중 후반은 차별정년, 성차별 임금, 육아, 모성 보호 등 법개정과 제정 투쟁으로 큰 성과를 이룬다. ⑤국가권력 및 자본의 노동통제측면으로는 노사협조를 내세우면서 배제정책, 권위주의적 노동통제, 물리적 노동통제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운동의 정체상황을 극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로 ①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및 조직적 확대 ② 노동운동에서 여성부문의 사업을 위한 전문적 영역이 확보되고 활성화되어야한다. ③ 기존 노동조합의 남성 중심적 조직과 운영으로부터 여성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워야한다. ④ 여성노동자운동의 활동가들과 조합의 간부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들의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구 ⑤ 여성노동자운동의 국제적 연대 강화 ⑥ 여성노동자 운동의 외연 확대와 타운동의 연대 필요 ⑦ 여성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을 들고 있다.

10. 연구의의

본 저서는 노동운동에서 여성노동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한 70년대 민주노조 시기 여성노동자의 역할 뿐 아니라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80년대 이후의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양한 사료와 인터뷰, 폭넓은 사례연구를 통해 당시 여성노동자운동이 어떠하였는가를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운동의 이념, 조직 및 운동의 형태, 노동통제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분석을 통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1. 제목: 「'시민권의 정치'와 여성노동운동(1987-1999)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2. 저자: 장미경
3. 발행연도: 2000
4. 쪽수: 188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7. 목차

제Ⅰ장 문제제기
제Ⅱ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이론적 배경
2.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과 분석틀
3.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제Ⅲ장 노동권 확보 운동
1.여성의 독립적 주체화
2.여성고용문제를 시민적 공공성으로
3.노동권 개념의 재의미화
제Ⅳ장 재생산권 확보운동
1.관계적 주체로서의 여성
2.재생산 문제의 공공성
3.재생산권 개념의 형성과 발전
제Ⅴ장 성적 자기결정권 확보운동
1.독립적인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2.직장내 성폭력 문제의 공공성
3.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의 형성과 발전
제Ⅵ장 참여권 확보운동
1.독립적인 참여 주체로서의 여성

2.참여권 문제의 공공성

3.참여권 개념의 형성과 발전

제Ⅷ장 결론

참고문헌

8. 연구목적

지난 10여년간의 여성노동운동 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지난 과정을 여성 노동자들이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 '시민권의 정치'로 재해석하고 여성노동운동내 다양한 시민권 쟁취운동과 남성노동운동에서 나타나는 시민권 쟁취운동과의 차이점을 선별하여 고찰한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문제제기와 결론을 포함하여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주의적' 특성을 드러내는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보고 그 이후의 여성노동운동을 '시민권 패러다임'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각 운동단체들에서 나온 자료집, 문건, 회지 등을 기본자료로 활용하면서 여성노동운동가나 여성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면접,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결합하는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 2장은 시민권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이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분석틀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우선 시민권(citizenship)개념을 시민적 권리(civil right)개념과 구별하면서 시민권은 권리를 지닌 주체로서의 개념(시민)과 단편적 권리들의 총합, 또는 국가나 인위적 법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적 권리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시민권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주역들의 실천과 노력에 의하여 발전하고 변화하는 개념으로 본다. 이러한 전제아래 이 논문에서 정의하는 시민권 개념은 1)단지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법적 권리에 한정시키는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은 부정 2)시민권개념이 개인적 독립적 권리에서 집단적·관계적 권리개념으로,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개념으로 발전해왔다는 기존 논자들의 논의를 수용 3)시민권 개념을 아래로부터의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을 통하여 획득되는 개념이라는 브라이언 터너(Bryan S. Turner)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이러한 시민권 개념에 기초하여 필자는 특정 주체들(이 논문에서는 80년대 중반 이후 여성노동자)이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노력의 전 과정을 '시민권의 정치(The Politics of Citizenship)'로 정의하고 지난 10여년간의 여성노동운동이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켰는지 검증해 봄으로써, 여성노동운동이 실제로 '시민권의 정치'의 성격을 지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여성노동의 부문운동 중 가장 핵심적인 운동에 해당하는 일할 권리의 확보와 고용평등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는 노동권 확보운동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운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실제로 자신들을 시민권 담지자로서 명확히 인식하고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간의 과정들이 여성노동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할 노동권을 강조해온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시민권의 정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여성의 '인간됨'을 강조하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자로서의 노동권리 및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서의 시민권 권리 보장의 측면을 강조해 온 과정들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실천적 노력들은 모집, 임금, 배치, 승진, 교육·훈련, 승진 상의 실질적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과 신인사제도 및 문화적 차별 등의 간접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4장에서는 생리,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부담과 이로 인해 '남성노동자'를 보조하는 '주변적 노동군'으로 가정되어 받는 불이익에 대한 재생산권 확보운동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재생산권 확보운동은 이를 주장하기 위한 모성과 취업주부라는 주체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단지 여성이나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공성 인정운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복지권으로 발전해가는 양상이었다는 측면에서 시민권의 정치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체의 성격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라기보다는 모성과 취업주부라는 관계적 주체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장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시민권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확보운동은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반대운동의 주체 역시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성희롱 소송사건을 계기로 성희롱 문제가 노동현장내의 주요사안으로 확립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적·제도적 규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권의 정치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를 공공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인권 및 노동권보장의 차원에 강조되었으며, '다름'에 기초한 결과의 평등 보장 차원에서 강조되었다고 필자는 밝히고 있다. 6장에서는 '참여로서의 시민권'의 의미에서 노조내부와 법제도적 측면의 여성노동운동의 참여권 확보운동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참여권 확보운동은 참여주체가 형성되었고, 기존 구조와 체계에서의 여성 배제성과 가부장성이 사회민주화를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운동의 정당성이 강조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강조하는 '의사결정권'개념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이 운동이 '시민권의 정치'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시민권 패러다임'을 통해 80년대 중반부터 여성노동운동이 '시민권'의 확보를 통한 '성평등적인 시민권의 정치'라는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필자 스스로 밝혔듯이 '시민권의 정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론적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필자가 '다름'에 기초한 여성주의적 특성에 기반한 운동의 시기 구분을 80년대 중반부터라고 규정한데 대한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주역이었던 여성노동자들의 과제가 노동일반의 요구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방혜신의 논문참조).

1. 제목: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세계적 연구-섬유업을 중심으로」

2. 저자: 정미숙

3. 발행연도: 1993

4. 쪽수: 155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7. 목차

1장. 서론

2장. 산업화 과정과 여성노동자

3장. 여성노동력의 특성과 형성과정

4장. 생산의 사회적 관계

5장. 일상생활의 연결망에 의한 단결력

6장. 투쟁경험과 조직에 의한 성장

7장. 결론

8. 연구목적

1970년대 미혼여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조건을 여성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생산활동 등의 경험세계(생애사)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있다.

9. 연구내용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60.70년대 산업화과정과 여성산업의 성장,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산업구조의 성격에 의해 한계 지워진 운동 조건 등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여성노동력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취직과정, 적응과정을 통해 노동자로의 형성과정을, 4장은 원풍모방을 중심으로 한 조직운동이 가능했던 조건을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고찰한다. 5장에서는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이 단결력 증진에 미친 영향을, 6장에서는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경험이 조직의 성장을 가져왔음을 고찰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의 연구가 운동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고 여성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조건을 연구하고 있다. 조건으로는 ① 농촌에서 이농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화적으로 공유한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 교육에 대한 열망 ② 모방직공업의 생산기술의 특성 및 노동과정 속에서 연대감 형성 ③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생활은 단결력 증진 ④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력은 생산영역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결합에 의한 것이 있다. 필자는 앞의 4가지의 조건을 통해 여성노동운동이 열악한 조건에 의한 필연적 저항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개인사를 통한 노동운동 연구를 통하여 여성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조건이 외적인 것에만 있지 않

음을 밝혀 기존의 경제주의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된 과정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풍모방에 한정적인 사례분석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일반화를 하기 힘들며, 노동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단체와의 또 타사 노조와의 연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 노동운동의 외적 요인을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4) 노동자정치운동

1. 제목:『노동운동과 정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2. 저자: 김세균 외

3. 발행연도: 1996

4. 쪽수: 232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현장에서 미래를

7.목차

제1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과제/이해영

유럽에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초기과정/김동춘

브라질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과정과 과제/신중현

남아공화국의 변혁운동과 정치적 동맹관계/김영수

제2부 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오세철

80년대 이후 노동단체의 정치운동/최윤영

제3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김세균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총의 과제/정성희

정치세력화에 대하여/양재덕

노동자 정치운동의 몇 가지 과제/김봉태

종합토론

정치운동의 세계사적 지평/남구현

노동자 정치운동의 현황과 과제/정영태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손호철

노동자적인 정치운동을 준비하자/김명희

정치적 태도 없는 정치운동을 시급히 극복하자/김혜련

「유럽에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초기과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박용식

종합토론

부록『노동운동과 정치』에 대한 평가

8. 연구목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과제와 전망을 외국 사례와 한국 노동운동의 이념적·조직적 차원에서 조망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9. 연구내용

제1부는 현단계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조 재편을 이루는 '지구화'가 민족국가와 노자관계 등에 대해 지닌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에 기초해 세계 노동자 정치운동을 사례로 그 새로운 조건과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유럽·브라질·남아공의 사례를 통해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이고 보편적 원리 및 각 나라 노동자 정치운동의 특수한 조건과 형태를 조명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을 정치조직과 노동운동단체의 이념과 조직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3부는 국내외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노동자 정치운동의 발향을 정리한 주발제 외에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한 <민주노총>과 <전국연합>,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쟁위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의 활동가들의 입장에 따라 정치조직의 상과 성격, 추진주체, 이념, 건설 경로와 방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4부에서는 종합토론을 통해 토론자들과 발표자들의 문제제기와 답변을 싣고 있다.

10. 연구의의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학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논쟁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제와 전망에 관한 초점과 현실인식이 서로 다른 부분들은 이 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앞으로 노동운동진영의 전체적인 연구과제일 것이다.

1. 제목: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연대의 정치, 분화의 정치, 통일의 정치』

2. 저자: 김영수

3. 발행연도: 1999

4. 쪽수: 443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현장에서 미래를

7. 목차

제1장 연대통일의 역사적 현상과 대상

Ⅰ.현상으로서의 연대통일

Ⅱ.대상으로서의 연대통일

Ⅲ.노동운동의 시기별 연대통일
제2장 연대통일의 노동자 계급정치론
Ⅰ.노동자 계급운동론
Ⅱ.연대관계의 노동정치론
Ⅲ.노동자 계급정치 운동의 연대통일관계
제3장 제1기(1970.11～1980.5)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Ⅰ.1970년대 노동자 계급정치운동의 역사적 토대
Ⅱ.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
Ⅲ.국가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Ⅳ.노동운동의 통일
Ⅴ.소결
제4장 제2기(1980.5～1987.6)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Ⅰ.노동운동의 조건
Ⅱ.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
Ⅲ.국가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Ⅳ.노동운동의 통일
Ⅴ.소결
제5장 제3기(1987.7～1993.1)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Ⅰ.노동운동의 조건
Ⅱ.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
Ⅲ.국가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Ⅳ.노동운동의 통일
Ⅴ.소결
제6장 제4기(1993.2～1999.8)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Ⅰ.노동운동의 조건
Ⅱ.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
Ⅲ.국가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Ⅳ.노동운동의 통일
Ⅴ.소결
제7장 결론
Ⅰ.한국 노동자 계급운동의 연대통일관계
Ⅱ.이론적 함의
Ⅲ.이론적 한계와 과제

8. 연구목적

한국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성장하는 통시적 과정을 국가-자본관계 및 노동자 정치운동과 노동조합운동간의 관계에서 규명하고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의 미래를 조망

9. 연구내용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개작한 것으로 결론을 포함하여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제2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필자는 한국 노동운동이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과정에서 형성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의식'의 고양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고, 반(反)군사정권 민주화투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발전되어 왔다고 본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곧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의 역사적 축적과정이자 억압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적인 연대통일 투쟁의 과정으로 노동자 계급정치의 현실화를 위한 노동자 정치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은 계급투쟁 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인 대상적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급정치를 '계급의 제반 이해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급권력 주체의 의지'로 파악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자 계급운동을 '노동자 계급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현실화된 노동자 계급주체들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규정한다. 한편 필자는 1970년부터 1999년까지의 노동운동을 국가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을 중심으로 네 시기로 나누고 또한 각각의 시기를 양분하여 살펴보고 있다(p21 <표1>). 그리고 노동자정치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을 계급역량에 따른 계급투쟁유형화(노동자 정치운동의 저항역량 및 노동조합운동의 저항역량과 국가의 통제역량간의 관계)를 매개로 16가지(p69 <표3>, p70 <표4>, p71 <표5>)로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상호연대 유형의 변화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 제6장까지는 필자의 시기구분을 토대로 노동자 정치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을 '분화와 연대·통일'이라는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다. 먼저 제3장에서는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의 제1기라고 규정한 1970.11~1980.5까지의 기간을 맹아기와 생성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전태일의 분신 이후 학생과 진보적 지식인의 결합과 함께 현장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성투쟁을 통한 노동운동의 개별 주체들이 형성되는 토대 및 계급적 정치활동의 맹아가 형성되는 토대 구축시기로 1974년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노동운동의 주요한 목적을 '노동운동과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는 활동가의 양성'이라고 정의한다. 이어서 1975년부터 1980년까지는 동일방직·YH무역사건 등 도시산업선교회와 같은 외곽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의 연대투쟁이 형성되었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야당에 대한 의존성과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성과들이 노동운동의 조직적 발전역량으로 수렴될 수 있는 정치적·조직적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으로 필자는 평가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광주민중항쟁이 시작되었던 1980년에서 1987년 6월 민주화대투쟁까지의 기간을 방어기와 추동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84년 3월까지의 시기는 전두환 정권의 피시즘적 정치권력의 구조적 재편 및 정당성을 도모했던 시기로서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생존방어운동과 노동현장 참여운동'으로서 방어기였다는 것이다. 이 때 노동운동진영에는 학생운동 출신들이 자신이 속한 정파

조직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노동현장에 참여하게 된다. 필자는 이에 대해 이중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이러한 노동현장 참여운동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상호연대의 결합구조를 구축했고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운동 내에 정치적 계급주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파주의적 분화현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통일을 쉽게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하고 있다. 83년말부터 추진되었던 전두환 정권의 '유화정책'은 생존권 확보 및 신규노조결성으로 이어졌고, 구로동맹파업과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의 출범으로 노동자 대중들의 정치적·계급적 의식전화와 상호연대투쟁의 형성·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선진적 활동가들이 양산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이 시기를 추동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여 '전위적 선도투쟁론'·'대중적 투쟁역량강화론'·'단계적 전위역량조직론'으로 이념논쟁도 벌어지게 된다.

제5장에서는 제3기에 해당하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 93년 1월까지의 기간을 폭발기와 분화기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필자는 이 시기 노동운동이 투쟁의 성과로서 정치적 지배블록의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조직적인 상호주도형 연대에 기초한 주체조직역량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본다. 특히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에 대한 전노협지원공대위와 전국노동운동협의회(전국노운협)의 통일적 지원연대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조직역량을 구축하고 노동운동의 상호분화연대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정치운동은 선거정치 참여투쟁의 제도적 절차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에 대한 인식의 편차, 노동운동의 전략적 이념에 대한 편차, 투쟁전술의 현실성에 대한 편차, 제도권 야당에 대한 인식의 편차, 그리고 계급정당건설의 동학에 대한 인식의 편차 문제에 직면하여 민주노조운동과의 분화연대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노동자 정치운동의 이념적·조직적 분화, 즉 통일전선적 노동단체운동의 분화가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제6장에서는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93년부터 99년까지를 재추동기와 재폭발기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재추동기는 노동운동의 투쟁이 '민주노조운동의 사회개혁투쟁과 조직발전투쟁'으로 집중되어 전개되었던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이 결성되기 전인 95년 11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96~97년 총파업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급의 투쟁역량이 결집되었던 95년 이후 노동자 정치운동은 조직적·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지 못하고 노동자 계급운동의 주도성은 민주노조운동으로 전이되었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노동자 정치운동의 의존성도 심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사회개혁투쟁의 중심 전략으로 채택한 민주노총의 오류와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준)', 그리고 '노동자의 힘(준)' 등의 결성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7장 결론에서 필자는 노동자 계급정치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운동과의 '조직적 분화에 기초한 통일적 상호연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10. 연구의의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노동자 계급운동이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분화와 통일적 연

대에 기초할 때 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지난 30여년의 노동운동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필자의 노동운동에 대한 시기구분은 이러한 필자의 입론에 입각해 있기보다는 노동운동진영과 국가와의 관계에만 근거하여 설정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분화'와 '통일 및 연대'의 관계에 대한 통시적 서술을 넘어 노동운동의 발전과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1. 제목: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2. 저자: 이광일
3. 발행연도: 1999
4. 쪽수: 301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과

7.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대상과 구성
Ⅱ. 기존연구 검토와 논의의 전제
1. 기존연구 검토
2. 논의의 전제
Ⅲ. 급진노동운동 형성 이전의 노동운동
1. 초기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
2. 한국노총의 탈노동대중화: 공개적 독재체제의 노동통제기구화
3. 자유주의 노동운동의 형성과 발전
4. 자유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대응
5. 최소민주주의와 노동운동
Ⅳ. 급진노동운동의 등장과 발전
1. 79-80년 사회관계의 위기-광주민중항쟁과 유신체제의 재편
2. '5공화국'의 노동통제와 자유주의 노동운동의 재편 및 분화
3. 노동운동의 방향전환과 급진노동운동
Ⅴ. 급진노동운동의 분화와 위기
1.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투쟁

2. 7-8월 노동자투쟁과 급진노동운동
3. 급진노동운동의 재편과 위기
4. ‘통합국가’(Integral state)와 포위된 급진노동운동
Ⅵ. 결론
참고문헌

8. 연구목적

80년대 광주민중항쟁 이후 등장한 급진노동운동의 등장, 발전, 위기와 재편을 포함하는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그 위상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9. 연구내용

먼저 이 논문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급진노동운동’의 범주는 ‘반파시스트 민주혁명론’에 동의하며 이념의 수준에서 ‘맑스주의’를 수용하고, 조직의 수순에서 합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즉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자신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노동운동세력들 또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 세력들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제기와 함께 연구방법을 밝힌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급진노동운동과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기존 논의가 체계적인 연구 및 검토가 부재한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비판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세계사적 경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 급진노동운동의 등장을 초기 서구노동운동의 유형에 대비하여 분류하면, 세계체제에서 차지하는 후후발의 위상 및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 미약, 이에 따른 국가의 강한 대내적 자율성, 정치적 자유주의의 부재,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보수화, 노동조합운동의 미발전, 노동자정치운동의 급진화와 그 이중의 역사적 임무 등을 고려할 때 영미나 라틴계 보다는 독일의 유형과 유사하다고 본다.

제3장에서는 급진노동운동의 전사에 해당하는 70년대 자유주의적 노동운동을 고찰하고 있다. 이 시기의 민주노조운동이 국가에 종속된 한국노총에 대한 반정립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운동은 경제투쟁과 인권의 차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기독교노동운동의 헤게모니안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주도한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저항이 자유주의 정치세력 또는 기독교노동운동이 설정한 경계를 넘어서 나아갈 때, 자기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과정이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좌절, 기독교노동운동과 대중노조운동의 갈등과 이러한 상황의 집약인 노동운동의 급진화 경향을 계기로 현실화되었다고 본다.

제4장에서는 79년 10.26사태부터 5.18광주민중항쟁까지 노동운동이 처한 주객관적인 정세와 이에 대한 대응, 5.18민중항쟁을 매개로 하여 표면화되는 노동운동 내부의 이념, 조직의 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시기는 공개적 독재체제로서의 유신체제가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재편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전면화되고 이에 따라 자유주의 노동운동의 한계 및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노동운동의 급진적 방향전환이 모색되는 시기라고 규정된다. 특히 필자는 한국전쟁 이후 노동자계급이 행한 ‘최초의 정치적 연대파업’이었다고 평가되는 구로연대파업

을 경과하면서 가시화된 급진노동운동의 이론, 조직, 그리고 활동(서노련, 인노련, 제헌의회그룹 등)을 현장대중(조직)과의 접목에 주목하면서 고찰하고 있다. 결국 이 시기 급진노동운동세력은 이론적으로 자유주의세력과 분리되고 노동자계급의 사상적, 조직적 독자성이라는 테제를 점차 명확히 설정해 나갔지만, 한편으로는 '대중으로부터의 고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87년 6월항쟁 이후 전개된 7-8월 노동자 쟁의, 이러한 대중적 실천으로부터 유래된 새로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이론·조직적 차원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나아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건설 과정을 통해 노출된 노동조합운동 분화의 내적 근거들-실리주의-과 그 물질적 토대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과정이 80년대 급진노동운동으로부터 기원하는 이념, 조직 수준의 유산이 대중적인 노조운동과의 관계에서 삼투·변형·배제되면서 80년대 혁명적 급진노동운동이 하나의 순환을 마무리짓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87년 6월항쟁 이후 파시스트 지배체제의 이완으로 인한 국가와 시민사회 내 자유주의세력들 사이의 '수동적 연대'-통합국가(integral state)-로 이들 세력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급진노동운동이 내세운 민주주의의 내용과 형식이 배제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6장 결론에서는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이 이론, 실천 수준에서 민주주의와 그 운동의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고 이는 현재에도 유효함을 지적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기존에 분절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권위주의시대와 민주화이행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과잉비판되었던 급진노동운동(노동자 계급정치운동)을 민주주의에 가장 철저했던 세력으로 복권시키고 있다.

1. 제목: 「현대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노협과 한노당의 정치세력화 실패원인을 중심으로」

2. 저자: 정연정

3. 발행연도; 1992

4. 쪽수: 146쪽

5. 형식: 학위논문(석사)

6. 발행처: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7.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검토

Ⅱ. 예비적 논의

1) 노동자계급개념정의

2) 정치세력화개념정의

Ⅲ. 현대한국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전개과정

1) 정치세력화배경

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3) 한노당

4) 소결

Ⅳ. 현대한국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실패원인

1)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정치세력화

2) 노동자계급의 생활조건차이와 정치세력화

3) 국가의 노동통제와 정치세력화

4) 지도력과 정치세력화

Ⅴ. 결론

8. 연구목적

1987년 이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모색인 전노협과 한국노동자정당의 결성과 활동을 통하여, 이들이 정치적 대표성 획득에 실패한 원인을 고찰한다.

9. 연구내용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예비적 논의로 필자가 사용한 노동계급과 정치세력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필자는 노동계급을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와 사회적 노동조직에서의 역할을 통해 규정하면서 상층노동자, 핵심적 노동자, 주변적 노동자로 나누고 있다. 또한 정치세력화는 행위주체가 정치과정에 참여하고자하는 제도화과정으로 정의한다. 정치세력화의 방향으로 ①노동자계급 정당건설을 통한 의회진출 ②이익집단으로서 노동조합의 압력행사 ③비합법적 노동자계급 결성, 혁명적 체제전복을 들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한국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전개과정으로 1987년 7.8월 이후 진행된 두 조직의 설립배경과 활동과정을 살펴본다. 필자는 전노협과 한노당의 발생배경, 기본문제의식, 활동과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이한 점을 부각한다. 전노협은 노동자계급의 일상적인 경제적 투쟁을 정치적 수준으로 전화시키려는 것이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것인 반면, 한노당은 고양된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을 기반으로 합법적 정치지형에 노동자계급 정당을 통해 참여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전노협은 민중운동조직과의 연대를 결성하거나 직접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였고, 한노당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제도권 내의 민중당과 정당연합을 추진하여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다른 계급과 이해를 공유

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노협의 경우, 노동법개정투쟁이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전국연합과의 연대한 선거투쟁에서도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세력화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한노당은 민중당과의 통합 후 노동자후보자를 출마시켰지만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치세력화를 확실하게 추진하지 못한 결과를 내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4장에서 1990년대 들어 위축되는 노동자계급정치조직의 활동에 대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이를 통한 정치세력화의 결정적 요소 및 조건을 고찰한다. 필자가 살펴본 원인은 ①사회주의권의 붕괴 ②현대 자본주의의 과학기술혁명의 진전으로 인한 자본주의 생산구조의 변화와 노동자계급 내부의 경제적 조건의 차이 ③국가의 통제 ④정치조직의 지도력 문제 등이다. 필자는 이 네 가지 원인 중에서 마지막인 정치조직의 지도력 문제의 부제가 가장 큰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후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력확립이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의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연구의의

본 논문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중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1987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짧은 기간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진보정당 형성 및 영향력 획득, 지지확보라는 것은 짧은 시기에 살펴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진보정당이 뿌리내리기 힘든 사회구조적 상황, 균열 구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 투쟁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끼친 영향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1. 제목: 「민주화와 노동정치: 한국, 브라질, 스페인 비교연구」

2. 저자: 조효래
3. 발행연도: 1994
4. 쪽수: 324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7.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이론적 자원과 개념규정
1.이론적 자원
2.개념규정
제3절 분석틀과 분석대상
제2장 민주화 이행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제1절 거래(Transaction)에 의한 민주화 이행
1.거래에 의한 이행의 전개
2.거래에 의한 이행의 특징
3.거래에 의한 이행의 조건
제2절 '새로운 민주주의'와 민주적 공고화
1.'민주적 공고화'의 개념
2.'민주적 공고화'의 조건
3.새로운 민주주의의 전개
제3절 정치협약과 사회적 균열의 구조
제4절 소결
제3장 국가의 노동정책
제1절 이행기 노동정책의 구조적 조건
1.권위주의체제하의 노동체계와 노동저항
2.국가-노동간의 정치적 권력관계
제2절 이행기 국가의 노동정책
1.스페인의 노동정책
2.브라질의 노동정책
3.한국의 노동정책
제3절 소결
제4장 노동조합의 전략과 사회협약
제1절 자율적 노동조합 연맹의 형성
1.스페인: 노동자위원회총연맹(CCOO)과 노동자총동맹(UGT)
2.브라질: 통일노동자연맹(CUT)와 노동자총연맹(CGT)
3.한국: 한국노총과 전노협
제2절 노동조합의 전략과 노동행동의 패턴
1.스페인:분산적 동원에서 집중적 협력으로
2.브라질: 분산적 동원에서 집중적 동원으로
3.한국: 분산적 동원과 분산적 협력의 공존
제3절 사회협약
1.사회협약과 이익대표체계
2.사회협약의 전개
3.사회협약의 가능성과 형태: 세 나라의 비교
제4절 소결
제5장 계급정당의 정치전략과 선거정치
제1절 계급정당의 정치전략

1.스페인: 온건한 연합전략
2.브라질: 급진적 계급전략
3.한국: 온건한 계급전략과 급진적 연합전략
제2절 노동조합과 계급정당의 관계
1.스페인
2.브라질: 노동자당과 통일노동자연맹(CUT)
3.한국: 전노협과 계급적 정치조직
제3절 선거정치와 계급정당
1.정당체계의 진입장벽과 계급정당
2.선거정치의 전개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8. 연구목적

민주화 이행이 국가와 노동계급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민주화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노동정치의 구조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한국, 브라질, 스페인의 민주화와 노동정치의 관계를 비교연구한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화이행이 노동정치에 미친 영향, 노동정치의 구조가 민주적 공고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논문의 각 장들은 시민사회에서의 노동조합, 정치사회영역에서의 계급정당, 그리고 국가의 전략과 행동을 초점으로 한다. 왜냐하면 민주화과정에서 노동정치의 변화는 정치사회영역에서의 정치적 연합의 변화와 계급정당의 정당체계로의 진입,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이익집단의 새로운 대표체계 양식을 위한 투쟁 및 이에 대한 새로운 국가개입간의 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국가, 계급정당, 노동조합의 전략과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시민사회, 정치사회, 국가라는 전체사회의 세 가지 영역을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정치사회는 정치세력간의 경쟁과 헤게모니행사의 영역이고,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립적인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규정한다.

2장에서는 한국, 브라질, 스페인 세 나라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세 나라의 민주화이행 모두 '거래에 의한 이행(transition by transaction)'이었다는 점에서 유사했는데, 거래에 의한 민주화 이행양식은 내적인 한계로 인해서 새로운 민주체제의 성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즉 새로운 민주체제는 구체제와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연속성을 특징으로 갖게 되고, 불가피하게 권위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체제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적 공고화와 관련하여 한국, 브라질, 스페인의 새로운

체제는 각각 체제의 대표성과 안정성의 차원에서 상이점을 보였다. 필자는 세 나라의 민주체제에서 나타나는 유형적 차이, 대표성과 안정성의 차이가 정치협약의 주체, 그들과 시민사회의 관계, 사회적 균열의 구조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엘리트균열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치엘리트들과 시민사회의 조직화된 세력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이행을 성공시켰던 정치협약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이 상이한 형태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엘리트균열이 이데올로기적 균열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계급정당이 협약의 주체로 참여했던 스페인에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균열은 쉽게 해소될 수 있었고 정치협약은 사회협약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반명, 엘리트균열이 권력분점방식을 둘러싼 지배엘리트간의 대립의 성격을 갖고 있고, 협약의 주체 중 어느 쪽도 시민사회와의 정치적, 조직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던 브라질과 한국에서는 정치협약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이 상대적으로 격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엘리트균열이 지역균열이라는 형태로 구조화됨으로써 엘리트간의 지역균열의 선을 따라 대중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도전이 협약에 대한 계급적 도전 혹은 계급갈등의 정치화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두 나라는 신체제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에서 유사했지만, 체제의 정치적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노동정치의 틀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변모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세 나라의 정부는 모두 파업을 완화하고 노동운동의 급진화를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제도화, 경제성장과 안정화를 위한 임금억제를 노동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나라 정부의 전략과 능력은 매우 상이했다. 세 나라의 공통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권위주의체제 하에서의 노동체계와 노동저항, 이행기 동안 국가와 노동간의 정치적 권력관계라는 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약받았다. 특히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과 노동계급의 권력자원은 노동정책의 기조를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체제의 정치적 정당성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권력자원(특히 정치적 자원)이 높았던 스페인의 노동정책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사회협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집중화된 교섭의 구조, 임금억제와 사회경제적 개혁을 교환하는 소득정책을 통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창출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의 노동정책은 이행 초기동안 높은 경제적 효율성과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으로 인해 국가개입의 자제와 노사자율의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단 정치적으로 안정적 다수파를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이 약화됨에 따라 물리적 억압을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조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자율적 노동운동에 대한 물리적 개입, 다른 한편으로 임금가이드라인과 같은 직접적 개입을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의 정책적 급선회가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노동계급의 권력자원과 국가-시민사회의 권력관계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브라질의 체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정당성이 모두 취약했고 노동계급의 경우 강력한 조직적 자원에 비해 정치적 자원이 취약했기 때문에, 체제의 일관된 정책방향이나 정치적 합의를 통한 정책적 선택의 가능성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다. 체제는 노동체계의 개편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단지 임기응변적인 사회협약 시도를 통해 노동갈등

을 완화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임금정책도 법령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임금조정을 연동시키는 물가연동제(Indexation), 그리고 물가와 임금의 일시동결정책(Heterodox shock)사이에서 동요했다. 결국 한국과 스페인이 상반된 방식의 정책을 통해서 노동정책의 기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성공한 반면, 브라질의 노동정책은 양자 중 어떠한 형태의 일관된 모습을 띠지 못했고, 이러한 정책적 혼란속에서 노동정책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4장에서는 자율적 노동조합과 새로운 노동체계의 형성, 그리고 노동조합의 전략과 행동이 사회협약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집중화된 교섭의 구조와 상당한 정치적 자원을 갖고 있던 스페인의 노동조합들은 민주체제의 공고화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했고, 쿠데타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노동계급의 계급적 양보에 기꺼이 동의했다. 따라서 스페인의 노동행동의 패턴은 분산적 동원으로부터 집중적 협력으로 변화하였고, 신조합주의적인 노동정치의 양상을 강화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산업과 부문수준으로의 집중화된 교섭의 구조, 강력한 조직적 동원능력에 비해 정치적 자원이 취약했던 브라질의 노동조합들은 민주체제의 보수적 성격을 비판했고, 대중동원을 통한 실질임금확보를 취우선의 과제로 설정했다. 따라서 브라질의 노동행동의 패턴은 분산적 동원으로부터 점차 정치적 총파업이라는 대중적 동원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기업별로 분산화된 교섭구조하에서 정치적, 조직적 자원이 취약했기 때문에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체제의 권위주의적 억압에 저항하면서 밑으로부터의 대중동원을 시도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대중운동의 자연발생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가 민주적 공고화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협약의 가능성과 형태를 결정지었다는 것인데, 스페인의 사회협약이 노동, 자본, 국가간의 '정치적 교환'으로 전개되었던 반면, 브라질은 사회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사회협약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합의된 임금가드라인으로 변형시킨 것이었다.

5장에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계급정당의 정치전략, 계급균열의 정당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노동조합-계급정당간의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권력자원이 크고 새로운 민주체제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던 스페인의 계급정당들은 온건한 연합전략을 추구한 반면, 권력자원이 취약하고 민주체제의 의의를 부정했던 브라질의 계급정당은 급진적 계급전략을 추구했다. 한국의 계급적 정치세력들은 취약한 권력자원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각각 온건한 계급전략, 급진적 연합전략으로 분화되었지만, 모두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노동조합과 계급정당의 관계는 스페인의 경우, 노동조합이 계급정당에 종속되었고, 선거정치의 확대와 민주체제의 공고화에 따라 점차 양자간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브라질에서 노동조합과 계급정당의 관계는 계급정당의 노동조합 의존이 특징이었지만, 점차 계급정당의 성장에 따라 양자간의 긴장이 증대하고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계급정당의 분화·발전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양자간의 관계는 정치적·조직으로 긴밀하지 못했으며 구조화되어 있지도 못했다. 계급균열의 정당체계로의 전환과 정당정치의 성격은 정당체계의 진입장벽, 계급균열과 여타 사회적 균열간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었다. 상대적으로 선거체계의 진입장벽이 낮고 계급균열에 따른 투표패턴이 정착된 스페인의 경우, 계급정당은 손쉽게 정당체계로 진입하였고 동시에 계급갈등이 제도화됨으로써 정당체계는 온건한 계급정치의 성격을 나타냈다. 브라질의 경우

도 계급정당이 손쉽게 정당체계로 진입했으나, 심각한 계급갈등으로 인해 정당체계는 양극화된 계급정치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지역균열이 계급균열을 압도함으로써 계급정당은 정당체계로 진입하지 못했고, 계급갈등은 제도화되지 못함으로써 폐쇄적 엘리트정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 필자는 계급균열의 정당체계로의 전환, 계급갈등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온건한 계급정치'의 형성이 체제의 대표성과 안정성을 높여줌으로써 새로운 민주체제의 공고화에 가장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성공적인 민주화이행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화의 연속모델이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민주적 공고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국가-시민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제도화하는 사회민주화, 특히 노동정치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고, 결국 신조합주의적 노동정치와 온건한 계급정치가 장기적으로 체제의 민주적 공고화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민주화이행과 공고화과정이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온건한 계급정치'의 형성만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경험에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 오히려 필자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세 나라의 균열구조와 노동체제의 상이성 정도가 노동운동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노동통제 및 노동정책

1. 제목: 「노동교육 운동에 관한 연구」

2. 저자: 김민호

3. 발행연도: 1997

4. 쪽수: 243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사회학 전공

7.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이론적 배경

1. 노동교육운동

2. 노동교육

3. 선행연구의 동향과 과제

제3장 연구방법

1. 분석의 틀

2. 연구 대상

3. 자료 수집과 분석

제4장 인천 '노동자대학' 합법화 운동의 배경

1. 노동교육 운동의 성장

2. 사회정치적 상황

제5장 운동의 전개과정

1. 조직 형성과 내부 분열

2. 조직 개편과 개교 준비

3. 교육활동의 전개

4. 합법화 투쟁과 방향 모색

제6장 노동교육관의 대립

1. '노동해방' 대 '국가발전'

2. '정파교육' 대 '정치교육'

3. ‘목적의식적 교육’ 대 ‘문제제기식 교육’
제7장 논의 및 결론
1. 논의
2. 결론
후주
참고문헌
영문요약
부록

8. 연구목적

인천 ‘노동자대학’의 합법화운동을 통해서 ‘노동교육운동’을 둘러싸고 전개된 노동교육 관련 집단간의 상호작용과 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 사회제도와 정책 및 집단이념 등을 교육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9. 연구내용

1장 서론에 이어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우선 ‘인노대’ 합법화 운동이 노동교육운동의 한 사례임을 전제로 노동교육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노동교육 운동 일반의 개념 정의, 유형 및 전개과정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노동교육을 재개념화하고 유형화하고, 노동교육운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의의 및 한계를 지적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노동자를 단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 내세워 노동의 주관적 측면을 객관적 측면보다 우위에 두는 가운데 노동교육을 재개념화한다. 따라서 재개념화한 노동교육은 ‘주관적 의미의 노동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노동교육’이라 정의 내린다.

3장에서는 노동교육운동분석의 틀로 ‘인노대’와 국가간의 노동교육관의 대립, 그리고 ‘인노대’ 내부 집단들간이 노동교육관의 대립을 분석했다. 또한 ‘인노대’ 합법화 운동을 노동교육운동의 한 사례로 선정한 이유로는 연구주제인 노동교육운동의 속성을 지니며, 합법적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응축하여 여러 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즉 ‘노동해방’ 대 ‘국가발전’, ‘정파교육’ 대 ‘정치교육’, ‘목적의식적 교육’ 대 ‘문제제기식 교육’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인노대’와 국가, ‘인노대’ 내부 집단간의 노동교육관의 대립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인천 ‘노동자대학’의 합법화 운동은 특정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출현했다고 하면서, 4장에서 ‘인노대’ 이전의 노동교육 운동의 양상과 ‘인노대’ 합법화 운동 당시 사회적 상황을 규명하여, ‘인노대’가 어떤 교육적, 사회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60년대 노동교육운동은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했던 만큼, 노동운동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노동 교육도 불우청소년들에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할 뿐, 사회구조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70년대 노동교육운동은 가톨릭노동청년회(JOC)와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UIM) 노동야학 등을 통해 꾸준히 노동자들의 주

체적 자아각성을 도모하였다. 70년대는 노동현장의 모순 속에 있는 노동자와 이론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깨우치는 대학생간의 상호교육이 이루어졌다. 80년대는 노동교육의 다양화와 계몽적 노동교육 운동의 지양기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주변부 포드주의적' 특수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80년대 중반을 전후 노동력 수급 위기와 경제체계의 변화로 단일노동시장이 위협을 받으면서, 시장기제적 노동억압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로 인하여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대두하게된다. 또한 전위조직의 건설 모색과 노동상담소, 소모임 등의 노동교육은 지양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자 정치교육기관의 설립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5장에서는 어떤 집단들이 인노대 합법화 운동을 둘러싸고 경쟁, 갈등 및 협력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국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지로 '인노대'의 진출을 막았지만, 인노대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내었으며, 경찰, 교육청, 관할구청 등 관계기관은 설립과 관련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인노대 합법 설립인가 신청 거부로 대중투쟁에 나서며, 사민청 및 서울대생, 민족학교 등과 연대하여 규탄집회를 열게 된다. 합법화 투쟁 과정에서도 내부에는 '교육우선론', '정치활동위위론'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전망에 대해서도 '독자적 위상 필요론', '불필요론' 등으로 분화된다.

6장에서는 인노대 합법화 운동을 둘러싼 관련 집단들간의 상호작용을 관련 집단들이 상정하는 노동교육관의 대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노대는 사상의 자유를 명분으로 '노동해방' 사상을 합법적으로 전파할 노동교육 공간의 구축을 시도한 반면, 국가는 국가사회발전, 노사공존공영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주도 노동교육기관을 제도화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인노대 합법화 운동은 노동교육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는 노동운동이 정치투쟁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노동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노동자학생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저자는 이는 노동의 객관적 측면에 지나치게 집착해 노동의 주관적 측면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둘째로 합법적 설립을 둘러싼 '인노대'와 국가의 갈등 이면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인노대와 국가의 다툼이 숨겨있다. 즉 법률적으로 학습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노대 내부에서는 노동자 정치교육을 추구하였고, 점진적이고 합법적 노선을 추구한 쪽과 혁명적이고 투쟁적 방법을 선호한 쪽의 대립이 있었다. 이는 노동자의 학습권 고려를 배제한 측면이 강하다. 넷째, 그럼에도 인노대운동은 노동자 학습자유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켰고 노동자가 학습의 주체로 나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10. 연구의의

노동교육운동에 관하여 기존의 운동과 정책적 측면이 아닌 교육으로의 운동, 교육으로의 의미를 연구하여 노동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으로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노대의 합법화운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시의 노동계 및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찰하여 노동운동과 노동교육운동을 통해 노동세력과 국가와의 대립, 노동세력 내부의 대립 등 대립을 통한 노동이념 및 교육이념의 확실한 분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 인노대 합법화 운동이 객관주의에 빠져있다는 설정을 통해 분석의 대상에서 노동자세력과 노동자 학생의 당시 추이를 그려내지

못한 점은 한계점으로 보인다.

1. 제목: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1987-1992」

2. 저자: 노중기

3. 발행연도: 1995

4. 쪽수: 383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7. 목차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과제

제2장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틀

제1절 노동통제 유형론

제2절 노동정치 변동에 관한 연구

제3절 이론적 자원

제4절 분석틀

제3장 민주주의이행과 노동정치

제1절 축적체제의 변동과 노동통제

제2절 민주주의이행과 노동정치

제3절 민주주의이행과 6공국가의 성격 변화

제4절 소결

제4장 6공화국 노동통제전략의 전개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전반기 노동통제전략: 1987.6-1990.1

제3절 계급역관계와 통제효율성의 변동

제4절 후반기 노동통제전략: 1990.2-1993.2

제5절 요약과 평가: 6공화국 노동통제전략의 내재적 한계

제5장 노동정책의 형성과 국가기구

제1절 노동정책의 형성과 세력관계: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제2절 노동통제정책과 국가기구

제3절 토론 및 소결

제6장 노동통제방식의 변동과 특징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물리적 강제수단

제3절 법적 행정적 수단
제4절 이데올로기적 수단들
제5절 조직적 통제수단
제6절 요약과 토론: 헤게모니적 배제전략의 통제효과와 한계
제7장 국가의 노동통제전략과 노동운동
제1절 문제제기: 노동운동에 관한 두 가지 평가
제2절 민주주의이행과 노동운동의 구조적 조건
제3절 국가의 노동통제정책과 노동운동의 전략선택
제4절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비판과 그 실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제8장 결론
참고문헌/일지

8. 연구목적

1987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이행기의 정치변동과정이 국가의 노동통제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6공화국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이 보여준 특징을 분석한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의 핵심은 87년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노동통제전략과 민주주의 이행기 과정에서 6공화국의 노동통제전략의 변화를 구별하고 이론적·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노동운동위기론'을 둘러싼 논쟁을 재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동정치의 전개 혹은 노동운동의 진로를 전망해 보는데 있다.

이 논문은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7장이 본문에 해당한다. 3장에서는 국가의 노동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변수들로서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각기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4장에서는 6공화국의 구체적인 노동통제정책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조망하고 있다. 5장에서는 1987년 이전까지 권위주의정권 하에서의 국가의 노동통제전략과 민주화이행 이후의 노동통제전략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새로운 노동통제전략을 '헤게모니적 배제전략'으로 개념화한다. 6장에서는 통제에 동원된 국가기구의 성격을 다양해진 노동통제방식을 통해 고찰한다. 7장은 국가의 노동통제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을 고찰하고 노동운동위기론을 둘러싼 논징에 대해 6공화국 국가의 노동통제의 전개과정이 노동운동의 활동범위를 규정하였고 노동운동의 위축을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우선 6공화국의 노동통제론에 관한 기존 연구의 유형을 '국가조합주의적 통제', '시장기제론', '의사개량화 통제정책', 그리고 '법적·경제주의적 통제 혹은 자유주의적 통제'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국가조합주의적 통제론'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이나 법적 행정적 통제수단에 비해 노동조합조직의 통제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현실의 변화된 노동통제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시장기제론'은 노동통제유형을 시장기제(market mechanism)로 파악하는

데, 시장기제적 억압이란 “노동계급의 조직화를 꾸준히 저지하면서 억압의 단위를 개별 기업 내지 개별노동자로 설정하는 억압방식”을 말한다. 이는 동아시아사회의 특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었지만 시장개념이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통제방식의 특성을 그 자체로서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과 통제의 주체인 국가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못한 점, 그리고 여전히 국가조합주의의 ‘유인과 억압’의 분석틀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의사개량화정책론’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에 조응하는 노동정책이다. 이러한 경제결정론적 함의에 의해 미시적이지만 구조적인 정치변동의 의미는 최소한으로 축소 해석하게 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경제주의적 통제론’은 노태우정권의 성격변화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통제방식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과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는 차별성을 보이지만 지나치게 서술적이어서 통제수단간의 상호작용과 내적연관을 밝히는 것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본다.

필자는 기존 연구들이 전체적으로 국가론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일차적으로 국가의 노동통제를 분석할 때 ‘국가의 전략적 기획’을 분석범주로 삼고 있다. 특히 필자는 Bob Jessop의 ‘전략으로서의 국가’라는 국가론에 기초해 있다. 이 국가론은 자본주의의국가가 흔히 ‘상대적 자율성’ 혹은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으로 불리는 독특한 이율배반적 상황속에 있음을 주목하고, 국가의 행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전략적 대응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국가론에 기초해서 보면 노동통제전략은 국가의 거시적 축적전략 및 그에 상응하는 헤게모니프로젝트의 하위개념이 된다.

필자는 국가의 노동통제전략 분석을 위해서 세 가지의 분석차원들을 구별하고 있다. 1)경제구조의 차원(축적체제, 조절양식, 발전전략), 2)정치구조(계급역학관계)의 차원, 3)국가, 자본과 노동부문(국가의 노동통제전략과 이에 대응한 노동운동의 전략적 대응)의 전략적 행위차원이 그것이다(p 33 그림2-2, p37 그림 2-3 참조).

이러한 분석범주를 바탕으로 필자의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구조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자본주의는 급격한 구조적 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즉 197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어 온 ‘주변부포드주의축적체제’-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체제로 불리는-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기업의 임금비용상승, 자본의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의 급속한 하락이라는 내적모순을 발현하게 되었다. 이는 기계화・자동화 및 병영적 노동통제방식의 붕괴로 요약되는 노동과정의 변화, 숙련의 고도화・노동자계급의 의식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력재생산구조의 변동, 그리고 노동력부족심화로 인한 비경쟁적 형태의 내부노동시장이 자리잡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를 수반했다.

경제구조의 차원이 하나의 배경적인 요소(배경변수)라면 정치구조의 차원은 필자가 보기에 6공화국의 노동통제전략의 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설명변수)으로 작용했는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 이행기라는 국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87년의 민주화이행을 통해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억압적 노동통제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블럭에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로 이행이 전개되었다는 점,

즉 민주화 이행의 불완전한 성격은 국가와 시민사회 혹은 국가와 노동계급 간에 주어진 정치적 역학관계가 매우 불균형적이었고 이를 한국사회 이행기의 특수성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노정권기간 국가의 성격을 부르조아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과도기적 국가로 파악하고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 지배방식을 여전히 유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헤게모니적 지배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6공화국의 노동통제전략의 전개과정을 크게 1990년 1월 3당합당을 기점으로 전·후반기로 나누고 또 각각을 소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전반기(1987.6-1990.1)는 6공체제의 성립시점인 1988년 2월 말과 노동통제전략이 급격히 반전된 1988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세 개의 소시기로 나누고 있다. 전반기의 첫 번째 시기(1987.6-1988.2)에 노동통제정책을 규정한 요인은 기본적으로 민주화라는 정치적 요인이었다. 민주주의이행의 첫 단계인 6.29선언에 의해서 계급역관계의 일시적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그것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역동적인 동원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이행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측은 권위주의하의 억압적 수단들-제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보안법 등-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노동자대투쟁에 대한 억압을 계기로 다시 재등장하게 되었다. 예컨대 군부권위주의 하의 핵심적인 노동통제장치들은 87년 11월 말에 개정된 노동법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두 번째 시기(1988.3-1988.12)인 노태우정권 초반 1년여의 기간은 민주화확대를 표방한 노정권의 모순적 성격과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상황, 그리고 노동운동의 수평적·수직적 연대의 강화속에서 일방적인 노동통제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율적 노사관계'의 정책방향과 달리 이 시기동안 국가와 자본은 한편으로는 쟁의사안별로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노동무임금, 방위산업체지정과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 불인정과 같은 새로운 통제수단들을 제도화하고자 했다. 세 번째 시기(1989.1-1990.1)는 중간평가, 공안정국, 5공청산이라는 일련의 정세속에서 파업사업장의 대규모 물리력 동원과 전교조에 대한 대규모 이데올로기공세, 그리고 공안정국을 등에 업고 억압적 국가기구의 강화 및 '임금가이드라인'등을 통해 노동억압과 배제라는 노동통제전략을 분명히 했던 시기였다. 노정권의 후반기(1990.2-1993.2)는 전반기의 통제강화라는 맥락은 유지하였지만, 통제전략의 내적동인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요인-UR협상 및 선진국의 시장개방요구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산업구조조정-에서 발원했다. 노정권 후반기의 노동통제정책은 총액임금제, 시간제근로자제도의 도입, 고용보험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정책은 1992년에 나온 '신노동정책'에 보다 구체화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기업별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진보적 노조세력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면서도 변화된 조건에 걸맞는 노조조직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노총을 겨냥해 상급노동단체에 소속노조에 대한 업무조사권을 부여하고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의무를 법제화하며, 연합단체에 조합비를 강제적으로 의무납부하게 하는 방안이었다.

전체적으로 필자는 5공화국까지의 권위주의정권하에서 노동통제수단이 주로 물리적·억압적 방식의 노동통제였다면 6공화국에서는 이데올로기적 노동배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고 본다. 이는 두 가지 요인과 주로 연관되는데, 하나는 민주주의이행의 결과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노동억압의 비

용은 증가하면서도 그 효과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은 이데올로기적 통제수단들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인데, 노정권은 6공성립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노동법 상의 정치활동금지조항, 제3자개입금지조항 및 국가보안법을 매개로 해서 '민주노조운동-제3자개입 및 정치투쟁-체제위협'으로 구성된 담론의 효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확대와 미묘하게 연결되었던 3저호황의 후퇴는 '임금인상-경제위기'를 축으로 구성된 제반 경제위기담론을 활성화시켰는데 여기에도 정치변동의 효과는 작용했다. 그리고 권위주의하에서는 이데올로기공세가 정권의 정당성부재에 의해 상쇄되었던 반면, 이행 이후에는 그것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특히 6공체제에서 이데올로기적 통제수단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이후 6공국가의 언론통제정책이 언론자율화조치, 방송구조개편 및 민간방송사 설립허가 등을 매개로 언론자본을 비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결과 언론자본은 광고주인 자본 일반의 이해를 철저하게 따르게 되었으며, 이는 친자본주의이데올로기의 대규모 유포로 발현하게 되어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6공화국 국가의 노동통제의 높은 효율성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에 불과했다. 국가의 헤게모니적 배제전략은 특정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노동자계급을 고립화시키고 그 내부를 분절화하여 노동운동이 정치세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헤게모니적 배제전략은 정치적 상황전개의 특수성에 따라 정치적 이완국면이 곧바로 노동계급의 저항으로 연결되는 내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운동의 연대를 촉진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1989년 이후 논쟁이 되었던 국가의 억압 혹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인한 '노동운동위기론'에 대해 비판하면서 1989년 이후 노동운동의 상황을 '위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조건,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의 계급역관계의 변동, 6공 국가의 노동통제 강화 등의 조건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지들 내에서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전략적 선택은 부분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위기는 위기인 동시에 노동운동발전과정에서 하나의 계기였고, 나아가서 새로운 운동노선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다.

10. 연구의의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한국 국가의 노동통제전략 변화를 민주주의 이행과 국가의 축적체제 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설득력있게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의 재생산 담지자라는 측면에서 국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노동통제전략에서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측면이 존재한다.

1. 제목: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협약의 정치에 관한 연구: 1987～1998」

2. 저자: 박동

3. 발행연도: 2000

4. 쪽수: 237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7.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대상과 방법

제2장 기존연구의 검토와 이론틀

1. 기존연구의 검토

2. 최근의 노동시장제도 이론

3. 한국의 노동시장제도와 행위조율이론

제3장 새로운 노동세력의 출현과 노동조합운동의 조직화

1.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기업별 단위노조의 결성

2. 노동조합운동의 전국적 조직화

3. 기업별 노조체제와 노동조합의 조직화

4. 노동조합운동의 조직화에 대한 평가

제4장 파편화되고 조율되지 않은 기업별 임금결정제도

1. 기업수준에서의 임금협상 분석

2. 전국수준에서의 임금협상 분석

3. 조율되지 않은 임금결정제도와 거시경제적 수행

4. 기업별 임금결정제도에 대한 평가

제5장 노동법 개정과 노사정 사회협약

1. 민주화 이행과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갈등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96～97 노동총파업'

3. 노사정위원회와 2·6사회협약

4. 전국수준 노사관계개혁에 대한 평가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표/참고문헌

8. 연구목적

87년 민주화 이행이후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98년에 새롭게 시도된 노사정간의 사회협약의 정치를 중심으로 양자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필자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인 노·사·정을 모두 포괄하는 게임규칙으로서의 노동시장제도를 한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거시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상정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적 안정이 노사정간의 행위조율의 함수라는 가정 하에 해위조율에 대한 노동시장제도의 역할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노동시장제도이다. 필자는 노동시장제도를 협의적 의미에서 노조의 조직구조와 역할, 노사 공동의 정책결정 방식으로서의 단체교섭의 역할, 단체교섭의 소재와 포괄범위, 갈등해소방식, 노동법, 그리고 사회협약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이를 노조수준과 기업수준, 그리고 전국수준 등 세 가지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수준에서 노사정의 행위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제도를 둘러싼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중앙집권이론(centralization theory)'과 '행위조율이론(coordination theory)'을 비교하고 있다. '중앙집권이론'은 고전적 코포라티즘(corporatism)에 근거하고 있는 이론으로 '노동의 조직적 힘' 또는 '중앙집권'으로 정의되는 코포라티즘의 정도와 실업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중앙집권의 정도가 강할수록 거시경제적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제도의 작동메커니즘보다는 제도 자체에, 외부효과(externalities)에 대한 간과, 유럽의 안정된 선진민주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등을 필자는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행위조율이론은 올슨(Mancur Olson)이 제기한 '집단행위이론(collective action theory)'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행위조율은 노사정이 다양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작용함으로써 서로의 행위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행위조율이론'이 '집단행위이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연구의 이론틀로 삼고 있다.

제3장에서는 노동조합조직의 발전을 수평적 차원-신생 민주노조간, 그리고 민주노조세력과 기존의 한국노총간의 연대활동 혹은 협조행동의 문제-과 수직적 차원-기업별 노조체제의 문제, 즉 노조조직률의 변화, 노조정상조직과 단위노조들간의 권위의 분배 등-으로 나누고, 특히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새롭게 출현한 노동세력이 제2의 정상조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조직적 결집의 중심축을 형성하지 못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조들간, 그리고 민주노조들내에서 '갈등적 다원주의'가 일반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매우 낮은 조직률하에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별 노조체제'에 기인한다는 것이고 국가의 노동억압은 낮은 노조조직률을 더욱 낮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파편화되고 조율되지 않은 노사간 임금결정제도--기업별 임금결정제도-를 기업수준과 전국수준으로 나누어 거시경제적 수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양 수준에서 기업별 임금결정제도가 경쟁적 임금인상으로 인한 국제가격경쟁력 약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심화, 고용불안의 확대, 산발적 분규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본다.

제5장에서는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통한 사회협약의 실제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96년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와 IMF사태와 정권교체를 계기로 출현한 노사정위를 통해 조직노동의 시민권은 더욱 심화·발전되었다고 평가하지만, 정부의 합의이행의 의지부족과 노조의 파편화되고 분산화된 조직구조, 기업수준에서 노동자들의 단기적 동기구조, 전국수준에서 노동의 정책결정에서의 배제 등 기존의 노동시장제도가 사회협약의 정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제6장에서 요컨대 한국 노동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앙수준에서 노조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기업수준에서 노동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강력한 노동운동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사회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이 논문은 기존연구들이 한국의 노동체제를 대부분 코포라티즘으로 규정한데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적 틀로 노사정간의 사회협약체제의 안정성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행위조율이론’이라는 틀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노동정책의 한계와 노조내부의 문제를 균형있게 강조하고 있으나 요인의 나열에 그치는 점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가의 억압적 통제력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넘어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1. 제목: 『작업장문화와 노동조합』

2. 저자: 신병현

3. 발행연도: 2000

4. 쪽수: 235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7. 목차

서론

1장. 기업문화적 통제와 노동자 정체성

1절. 정체성과 작업장 문화연구

2절. 기업문화적 통제와 노동자 정체성

3절. 문화적 통제와 노동자 하위문화 집단

4절. 작업장 사회관계와 주요 사회·심리적 이슈들

5절. 사례연구

2장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 정치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운동: 문화정치 측면에서

문민정부하의 노사관계개혁과 신자유주의의 유혹
“팀 신화와 노동의 선택"
총파업과 노동조합운동
경영참가와 작업장 정치
밀레니엄 신화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8. 연구목적

작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동자들의 일상적 삶에 초점을 둔 작업장 문화연구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노동자들의 작업장 내 사회적 정체성의 단면을 살펴본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1장에서는 필자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업문화적 통제와 노동자의 정체성 문제에 관한 것으로, 풍부한 사례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있다. 필자는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내부와 외부에서 그리고 작업장의 기존의 사회관계를 가로지르면서 맺게 되는 다양한 사회 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각각을 분석한다. 필자는 기업에서 목표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노동자들의 정체성을 조형하고자하는 기업문화적 통제기법은 봉건적인 온정주의적 가치와 관행, 현대적인 기업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혼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스스로를 결박짓는 자멸적인 귀결을 내포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즉 현대 기업조직에 대한 기업공동체적 이미지는 단지 기업문화 경영담론과 접합된 상상된 이데올로기 공동체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또한 기업문화와 조직 내 하위문화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노동자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들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과 변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작업장 시공간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관계가 관류하는 혼재된 시공간으로 본다. 따라서 노동자의 일과 관련된 관계와 노조 및 회사의 관계, 또한 권한의 문제, 작업과 기술의 의미, 교육과 작업사이의 관계, 노동시간과 임금 등은 주요한 쟁점이 되는 이슈였다. 저자는 이러한 여러 분석요소를 이용하여 3개 기업(K기업, E기업, H기업)의 사례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①노동자들이 맺는 사회관계는 작업장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②작업장노동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변화하고 행동하는 경험을 하고 있음 등을 보았다.

그리고 2장에서는 90년대 노동조합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정세적 조건들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이 서술되어 노동자 정치의 역동성을 읽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장에서는 문민정부 이후 나타나는 신경영전략, 신인사제도 등과 같은 노동정책이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의 기반확보를 위한 노력 및 전략적 인식, 민중세력과의 연대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0. 연구의의

국가 및 기업의 노동통제 및 정책 등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거시적 분석틀이 아니라 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통제와 작업장 정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1. 제목: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1987～1998」

2. 저자: 장홍근

3. 발행연도: 1999

4. 쪽수: 304쪽

5. 형식: 학위논문(박사)

6. 발행처: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7.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

제3절 논문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틀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시각

제3절 노동체제의 개념과 분석틀

제3장 '배제적 국가권위주의'체제의 해체와 '1987년 노동체제'의 형성

제1절 1987년 이전의 노동체제

제2절 '1987년 노동체제'형성의 정치경제적 배경

제3절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88-89년의 노동운동

제4절 '1987년 노동체제'형성기의 노동법

제5절 소결

제4장 '배제적 시장권위주의' 체제의 모순적 전개

제1절 노동통제와 계급정치

제2절 노동시장 유연화와 계급정치

제3절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제4절 소결

제5장 노사관계 개혁과 노동체제 전환의 계급정치

제1절 노동체제 전환기의 정치적 지형

제2절 노사관계 개혁의 추진과 전략적 상호작용
제3절 1996년 12.26총파업의 전개와 의의
제4절 노동법의 재개정과 노동체제의 전환
제5절 소결
제6장 요약과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결론과 함의
부표/참고문헌 및 자료

8. 연구목적

1980년대 이래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와 변동을 국가와 자본 그리고 노동조직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계급정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9. 연구내용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필자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1980년대 이래 경제의 세계화, 기업간 경쟁의 격화에 따른 자본의 유연화 공세, 국가의 배제적 노동통제속에서 질적 성장에 성공한 원인과 국가·자본·노동 사이의 타협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2장에서 노동체제 전환에 관한 기존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운동의 자율성, 노동통제 양식, 노동시장의 작동방식의 조합에 따라 8개의 이념형으로 유형화하고 있다(p32 <표2-1>). 필자는 노동체제의 변화가 정치체제와 축적체제의 변동, 그리고 계급정치의 수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87년 노동체제의 형성과정을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87년 노동체제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노동법개정과정 및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1987년 노동체제' 형성과정에서 계급정치의 전개과정을 통해 드러난 특징으로 1)상대적인 국가의 주도성: 노동과 자본 어느 계급도 계급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가 노동체제 형성의 주도자로 기능 2) 자본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기득권의 상실을 최소화하려는 전략구사 3)'1987년 노동체제'의 형성을 추동한 원동력으로서 노동운동과 그 한계를 들고 있다. 요컨대 1987년 이전의 노동체계를 노동배제적이고 강압적인 국가와 자본의 노동통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영향력, 그리고 취약한 노동운동과 노동계급의 조직적 역량등을 특징으로 하는 '배제적 국가권위주의'로 규정하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노동운동의 자율성이 여전히 억압되어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자본의 주도하에 다각도로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자본의 시장논리가 강화되는 '배제적 시장권위주의'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제4장은 1987년 노동체제의 전개과정을 노동통제체계, 노동시장체계, 그리고 노동운동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1987년 노동체제의 기본성격을 1)노동운동의 질적 도약 2)집

단교섭의 가능성 3)노동 · 자본 · 국가의 미시 · 거시적 긴장과 대립 4)노동시장에서 시장논리의 강화 5)국가와 자본, 국가 · 자본과 노동간의 이중적 모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배제적 시장권위주의'체제로의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1987년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을 1996년 4월부터 시작된 노사관계개혁작업과 12.26 총파업, 그리고 이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한 노동법의 재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1996-97년 노사관계 개혁 및 노동법 개정작업은 최초의 명실상부한 노동과 자본을 대표하는 각 조직들이 노동체제의 전환을 위한 계급협상을 전개한 시도였지만 총파업이라는 강렬한 계급투쟁으로 귀결됨으로써 민주적 계급타협은 좌절되었다. 필자는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정치사회 내에 노동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기제-정당-가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제6장은 결론으로 앞장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노동체계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p256 <표6-1>).

10. 연구의의

필자는 노동체제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민주화과정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노동의 타협을 강조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이 논문의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다고 있다는 점과 국가와 정치사회,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관계를 노동체계변화의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노동계급의 형성 및 노동자의식

1. 제목: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2. 저자: 구해근(신광영 옮김)

3. 발행연도: 2002

4. 쪽수: 339쪽

5. 형식: 단행본

6. 발행처: 창작과비평사

7. 목차

제1장 서론: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제2장 산업화와 노동자의 출현
제3장 한국 기업에서의 노동과 권위
제4장 순교자, 여성노동자와 교회
제5장 노동자와 학생
제6장 노동자 정체성과 의식
제7장 거대한 노동공세
제8장 기로에 선 노동계급
참고문헌/찾아보기

8. 연구목적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의식발전과 계급의식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문화적·제도적 활동으로 표현되었는지를 검토.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산업화과정의 연구서이다.

9. 연구내용

이 책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초기 유럽에서 노동계급형성의 특성이 한국의 계급형성에 갖는 함의를 장인(匠人)들과 장인문화의 주도적 역할, 1830년 프랑스혁명의 이데올로기적·정치담론적 영향, 그리고 정당의 역할로 정리하고 이러한 문화적·제도적 환경이 한국에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톰슨(E. P. Thompson)이 강조한 역사주의적, 행위자 지향적 계급개념을 받아들인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기층노동자들의 자주노조운동을 국가의 억압적 노동정책과 정부통제를 받는 공식노조가 노동자들을 대표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로 여기는 경향을 환원주의적 혹은 본질주의적 가정이라고 비판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높은 투쟁력과 정치의식의 궁극적인 원천이 공장 내의 비인간적이고 전제적인 작업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억압적인 국가정책은 사회운동의 정치적 공간과 조직적 자원을 제약했지만 동시에 노사갈등을 정치화하고 노동투쟁과 민주화운동간의 밀접한 관계를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밝히기 위해 필자는 노동자들의 일기 및 수기, 그리고 인터뷰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1960년대 초에 시작된 한국 산업변화의 성격을 기술하고 노동계급형성의 구조적 조건을 서술하고 있다. 필자는 노동계급형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산업화를 1)산업화속도의 신속함 2)농업부문의 희생과 도시중심의 산업화 3)산업화 형태가 도시지역 내에서도 대단히 집중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 4)한국노동 계급의 인구학적·사회적 배경·기술수분 면에서의 대단히 높은 동질성을 꼽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산업발전의 속성들이 한국의 노동계급이 하나로 결집된 계급으로서 형성되게 하는 중요한 구조적 조건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일기와 수기에 기초하여, 1970-80년대 한국의 전형적인 공장에서 어떻게 노동과정이 조직되고, 권위가 행사되었는가와 공장체제가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육체적·심리적 희생을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산업노동력 형성에 교육체제, 군대, 그리고 가족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특히 가족제도로 표현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들을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에서 가장 요구되는 노동력 유형인 순종적이고 복종적이며, 부지런하고 끈기있는 또한 노동자들의 시민권에 무감한 노동력으로 사회화하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제4장은 1970년대와 80년대 초 섬유, 전자 및 기타 경공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이끈 초기의 자주노조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동일방직과 YH무역의 노조조직 투쟁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두 사례는 여성노동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저항정신과 그들의 투쟁을 지원해준 외부단체, 특히 교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무엇보다 이 시기 여성노동자들이 보여준 전투성의 핵심적인 요인을 촉매제로서의 진보적인 교회조직과 형성된 긴밀한 연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제5장에서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노동운동과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간에 긴밀한 연계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1980년대 노학연대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고, 노동자들을 의식화해서 정치투쟁에 동원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수천명의 학생들을 공업지역으로 보냈다. 1980년대 중반 노동쟁의의 활성화와 노동자 연대투쟁의 증가는 1970년대 노조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많은 일반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학생 출신 노동자들의 역할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제6장은 노동자 정체성과 의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문화와 권력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진정한 계급이해와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억제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노동자로서의 공유된 정체성을 획득하면서 연대투쟁과 문화활동을 통해 집단적 의식을 표현하기 시작했는지를 밝힌다. 특히 필자는 한국 노동자들의 일상 경험을 표현하고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문화적 개념을 '한(恨)'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 공장노동자들이 자주 사용한 한이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마음속의 한을 통해 불행을 공유한 사람들에

게 느끼는 노동자들의 연대감을 보여준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동자들의 언어속에는 국가의 동원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 발전주의, 군대식 수사들 및 가족주의이데올로기가 포섭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지만, 민중운동과 다른 사회·문화운동이 제공한 새로운 대안 헤게모니적 언어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정체성과 계급의식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제7장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분수령으로 노동운동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지역·기업간 노동자연대의 강화, 사무직 노동운동의 성장, 여성노동노동자운동의 주변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노동운동의 성격을 '경제주의운동' 대 '정치적 노동운동' 또는 '자연발생적 투쟁'과 '조적적인 투쟁'등 단절적으로 보는 것은 비역사적인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87년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온 노동계급의식이 노동자대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경제주의적' 투쟁이 1987년 이후 '새로운 노조주의(new unionism)에 은밀한 활동가네트워크의 형성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러한 '연대의 문화'가 노동대중에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선진노동자들에게 확산되었으며 이 자생적인 노동계급운동 지도자들의 등장은 과거 여성들이 지배적이었던 경공업 분야 노동자들의 투쟁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제8장에서 필자는 90년대 이후 산업구조와 세계경제의 변화속에서 국가와 자본의 전략 및 이데올로기 공세에 의해 전투적 노동운동은 위기에 직면했고 평가한다. 필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를 비교사례로 삼아 '사회운동노조주의'로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노동운동의 발전에 외부단체와 여성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요인들은 한국노동운동을 사회운동노조주의 대신에 경제노조주의를 형성하게 했으며 노동운동이 지역사회문제들을 다루지 못했다는 사실은 민주화이행 이후 시민운동이 번창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이후 포스트포드주의와 97년 금융위기로 1990년대 한국 노동계급의 내적분화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피고용자들의 고용조건과 임금격차,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특히 여성노동자)의 간극이 그것이다. 이는 노동계급의 연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민주화이후 새로운 조건에 직면한 한국노동계급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피상적이고 모호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고 초기적인 형태의 계급에 기초한 지역 공동체생활과 문화유형을 형성하기 시작한 계급이라고 필자는 진단한다.

10. 연구의의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정을 기존의 자본주의 논리가 아닌 역사적·문화적·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서술한 본격적인 연구서이다.

4. 노동운동논쟁

1)급진적 대중정치운동과 경제적 노동조합운동 논쟁

(1)논쟁의 배경

1985년 4월 부평의 '대우자동차파업투쟁'과 6월에 있었던 '구로연대파업'은 노동운동을 두 가지 경향으로 가르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의 경우, 파업투쟁의 시작과 종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현장 내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종결되었으며, 외부의 노동단체나 민주화운동단체의 연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노동조합 틀내에서 진행되었다(임영일 2001: 83-84). 반면 후자의 경우는 84-85년 임금협상과정에서 대우어패럴 파업의 협상타결 직후 사측에서 노조간부들을 고발하여 3명의 노조간부와 노조원 8명이 전격 구속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 투쟁은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철회와 구속자석방, 노동악법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등을 주장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정치투쟁 성격을 띠고 있었다(이광일 2000: 152). 이를 계기로 현장 투신활동을 해오던 다수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투쟁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대중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인 노동자정치조직의 건설을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김성훈 1986: 10-18).

(2)논쟁의 내용 및 전개

그 결과 1985년 8월 25일 <청계피복노조>,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노투)>,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연합(구민추)>, <노동자연대투쟁연합> 등이 중심이 되어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 출범했고, 이어 86년 2월 7일에는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노동3권쟁취투쟁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이 결성되었다(이광일 2000: 155). <서노련>은 구로연대투쟁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틀을 뛰어넘는 대중정치조직에의 전망을 열어준 '첨예한 정치투쟁'이었다고 평가하고, 스스로 구로연대투쟁의 산물임을 자처하면서 각종의 가두투쟁, 점거투쟁, 지역연대투쟁을 조직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한 두 가지 입장이 쟁점화된다. 하나는 구로연파업을 평가하면서 정치투쟁에 있어 '노동조합건설'을 중시하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대중정치노선'을 강조하는 입장이 그것이었다(유경순 2000: 76). 즉 전자는 구로연대파업이 보여준 선도적 정치투쟁은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량의 성장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과 한국적 상황에서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적 틀을 강조하는 입장이다(서노련 1985: 175-181). 후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자의 입장을 전형적인 경제주의, 조합주의 관점이라고 비판하면서 연대파업이 가능했던 것은 '일상적 연대활동'의 축적에 있다고 보고 새로운 대중조직의 발전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서노련 1985: 186-190). 이 논쟁은 현실에서 <서노련>의 결성과

운동주도로 나타나 외적으로는 논쟁이 일단락되었다. 한편 구로, 성수, 영등포, 안양 등지에서는 서노련에 대립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이들은 이른바 <남서울노동운동연합(남노련)>으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이들이 서노련과 통합되지 못한 것은 서노련의 패권주의, 이기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나 <서노련>과 뚜렷이 대비되는 입장을 정립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서노련>보다는 경제투쟁의 의의를 강조했는데, 변혁적 노동운동의 전략·전술속에서 경제투쟁이 가지는 위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정해 내지 못했다(정대용 1988: 198).

1986년 중반에 노동운동권은 서노련·인노련 등의 대중정치조직과 제헌의회소집론(CA), 그리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론(NLPDR)이 대립하게 된다. '전국노동자조직' 건설을 둘러싸고 내외부에서 비판이 가중되고 내적으로 활동방식과 조직의 위상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노동운동 내외에서 제기되는 와중에 1986년 5월 3일 인천투쟁을 기점으로 정부의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두 단체는 해체되었다.

(3)논쟁의 의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분화의 과정은 한국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과의 긴밀했던 결합의 관계가 이완 혹은 해체되는 긴 과정의 시작이었다. 동시에 노동운동내에서 이 분화의 여파는 선진적인 활동가운동과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의 분화 혹은 분리 과정의 시작이기도 했다(임영일 2001: 86). 조직론의 차원에서 급진적 대중정치운동론은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의 와해 이후 주류를 형성해왔던 수공업적인 소그룹운동으로의 후퇴와 매몰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함께 노투, 구민추 등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지역노동운동론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고, 투쟁전술의 차원에서 경제투쟁의 정치투쟁으로의 전화문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문제 등을 노동운동의 중심적인 쟁점으로 부각시켰다(이광일 2000: 154).

(4)참고문헌

김문수, 1986,「어느 실천적 지식인의 자기반성」,『현장6』, 돌베개

김성훈, 1986,「85년 노동운동에 관한 두 개의 평가」,『현장6』, 돌베개

김용기·박승옥, 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80년대를 중심으로』, 현장문학사, pp.181-252, 351-418

서노련, 1985,『선봉에 서서』, 돌베개

유경순, 2000,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발생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가톨릭대 석사논문, pp.67-78

이광일, 2000,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pp.150-181

임영일, 2001,『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출판부, pp.81-88

정대용, 1988,「재야 민주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 한국기독교산업개발연구원,『한국노동운동의 이념』, 정암사

2)전노협 건설 논쟁

(1)논쟁의 배경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은 양적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지만, 89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공안정국과 경제침체 및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의 급격한 위축으로 조합원 수와 조직율의 감소현상을 맞게 되었다(임영일 2001: 97). 이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민주노조진영의 독자적 전국조직 결성에 대한 시도가 진행된 것이다.

전노협건설을 둘러싼 조직노선논쟁은 1988년 8월 이후에 제기된 노동악법개정 논쟁 및 투쟁과 결합되면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문제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노동법 개정논쟁은 노동조합 3조 5항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철폐여부를 중심으로 쟁점화되는데, 이 쟁점은 '민주적인 전국노동조합조직 건설' 방법론-'노총민주화론', '제2노총론(민주노총론)', '노총와해론'-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노동법개정과 전노협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생산직 노동운동과 사무직 노동운동의 조직적 성격차이와 이로 인한 대중의식의 차이, 그리고 양대 부문의 노조 지도부의 성향 차이가 서로 맞물려 진행되었다. 또한 당시 노동운동조직들간의 서로 다른 입장 대립이 끼친 영향도 주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험하면서 이미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었던 활동가운동 조직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뉘어 있었다. PD로 분류되던 계급주의적 정파들은 한편으로는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과정에서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조직, 결국에는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여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었고, 반면 NL계열의 정파들은 현장과 결합한 대중사업에 복무하는 일을 더 주요하게 보고 있었다. 1986년 6월 출범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에도 이 두 정파의 노동조직과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주로 서울에 밀집해 있는 사무직 노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NL계열은 노총민주화론을, 노운협 활동가들은 제2노총론을 지지했으며 상층 논의 과정에 PD계열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었다.

(2)논쟁의 내용 및 전개

*노동법개정논쟁-복수노조개폐논쟁

복수노조금지 금지조항이 민주노조건설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은 민주노조건설(사업장별)-지역별 · 산별노조건설을 통해 제2노총(민주노총)을 건설하자는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임삼진 1988; 이목희 1988;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988). 한편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존속을 주장하는 존속론은 금지조항의 철폐가 오히려 자본측에 의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무기로, 민주노조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입장은 노총을 민주화하자는 '노총민주화론'의 입장과 연결되어 있다(강상호 1988; 한종구 1989; 우리노동문제연구원 1989; 이영민 1988).

*노동조합 전국조직 논의-전노협논쟁

①노총민주화론: 주로 수도권 지역의 많은 노동운동정파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집행부교체를 통한 노총민주화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제2노총론은 광범위한 중간적·후진적 대중을 방기하고 반동적인 노조어용집행부 세력과의 정면투쟁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법 개정의 주요한 요구도 26조의 총회소집권자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강상호 1988; 한종구 1989; 우리노동문제연구원 1989; 이영민 1988).

②제2노총론(민주노총론): 제2노총론은 전노협 건설을 제2노총으로 가는 실질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임삼진 1988; 이목희 1988;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988; 전국노운협 1989).

③노총와해론: 노총와해론은 '노총민주화론'에 대해서는 현실성의 문제를 들어 비판하고 '제2노총론'에 대해서는 '간부중심의 사고방식'을 이유로 역시 비판했다. 이들은 단위사업장 노조를 강호하여 기존 노총을 밑으로부터 허물어버리고 노총시협의회 및 산별연맹(중간허리)를 안팎으로 공략해 나가며 민주대연합을 실현시키는 것을 제기했다(장명국 1989). 이 주장은 민주노조의 독자적인 조직활동과 노총체계내의 활동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을 회피하고 절충시키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3)논쟁의 의의

전노협건설논쟁은 노동법 개정투쟁을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운동의 활동방식과 전국적인 민주노조체제의 건설방식에 대한 논쟁이었다. 제2노총(민주노총)건설과 노총민주화론으로 분리되어 전개된 이 논쟁은 다소 소모적인 논쟁이었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이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노동운동의 이념을 정립하려고 한 민주노조운동 위기논쟁에도 이어지고 있다.

(4)참고문헌

강상호, 1988,,「노워크 노페이, 노조대표권시비, 그리고 복수노조 문제에 대하여」,『새벽』 제2호, 석탑

권형철, 1994,「전노협건설 논쟁」,『한국변혁운동논쟁사』, 일송정

김용기·박승옥, 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80년대를 중심으로』, 현장문학사, pp.181-252, 659-784

우리노동문제연구원, 1989,「노총민주화론과 제2노총론의 비판적 검토」, 우리노동문제연구원,『민주노조운동의 현황과 전망』, 백사서당

이목희, 1988,「복수노조 제2노총, 민주노동운동의 확고한 토대를」,『노동자의 벗』, 제4호, 중원문화사

이영민, 1988, 「민주노조 및 공장활동 조직과 관련하여」, 이영민, 『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죽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988, 「7 · 8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노동조합운동의 당면과제」, 『노동자의 길』 제31호
임삼진, 1988, 「시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창작과비평』 62호(겨울)
임영일, 2001,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출판부, pp.89-115
장명국, 1989, 「노동조합 전국조직 건설의 방향」, 『새벽』 제4호, 석탑
전국노운협, 1989, 「집중기획: 전국노조협의회 건설에 관한 토론」, 『공장에서 전국으로 전진하는 노동운동』, 1989, 사계절
한종구, 1989, 『노동조합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백사서당

3) 민주노조운동 위기 논쟁

(1)논쟁의 배경

전노협건설논쟁이 노동운동의 조직노선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논쟁이었다면 전노협건설 이후 91-92년 사이에 벌어졌던 '민주노조운동 위기 논쟁'은 89년 중반 이후 민주노조운동진영의 조직률 하락과 대중동원력의 약화 등의 원인에 대해 노동운동의 이념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즉 노동운동계와 학계 모두에서 거의 동시에 제기된 이 논쟁은 단순히 노동운동의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총노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운동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임영일 2001: 180-181).

(2)논쟁의 내용과 전개

당시 논쟁의 핵심주제는 이른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문제였다(정승국 1991; 김형기 1992; 박승옥 1992; 최장집 1992; 임혁백 1992). 투쟁일변도의 최대강령주의노선에 입각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노선은 노동운동을 국민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으로써 위기를 자초한 주체적인 요인이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비판이 그것이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비판은 노동운동의 위기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기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전투적 노동조합운동노선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김진균 1992 임영일 1992 김동춘 1993 박승호 1992 최규엽 1992 김익진 1992). 이러한 노동운동위기론과 그 비판은 크게 '구조적 위기론'과 '민주주의 이행론의 위기론'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노중기 1992: 11-16, 306-338).

①구조적 위기론

구조적 위기론은 축적체제 혹은 경제적 조건의 변동으로부터, 즉 예속적 포드주의축적체제로부

터 예속적 신포드주의축적체제로의 재편성이 노동자계급의 내부구성의 변화, 노동자들 내부의 생활방식의 다양화, 개인주의적·실리적 경향의 강화 및 의식편차의 확대라는 현상을 야기하여 노동운동의 '구조적' 위기가 도래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축적체제변동에 조응하는 새로운 운동노선으로 '진보적 노동조합주의', '사회발전적 노동운동', '국민적 노동조합주의', '민주적 조합주의' 및 '진보적 노사관계'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김형기 1992; 박승옥 1992; 임현진·김병국 1991; 박세일 1992).

이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노동조합운동 조차 제약받고 있는 등 노동자들의 시민권 자체가 여전히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으며, 타협의 주체조차 형성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은 계급타협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아직 보편화되고 있지 못한 유연생산체제를 확정적인 추세로 상정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활상태 개선이나 의식의 변화도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비판하고 타협주의적 노동운동노선은 조합원 대중들로부터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박승호 1992; 김익진 1992; 박승희 1992; 임영일 1992; 최규엽 1992).

②민주주의 이행론의 위기론

이들이 주목하는 핵심적인 논리는 민주주의 이행기의 노동운동이 자신의 계급세력화를 달성하고 민주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급타협적인 온건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임혁백 1992; 최장집 1992). 하지만 전노협의 강령과 실제 활동이 '최대강령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민주주의이행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국가·자본의 계급역관계의 전통적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즉 국가의 강력한 노동통제가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기업별 노조체제의 온존, 노동자 계급정당 및 이익대표정치세력의 부재,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제약 등의 구조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3)논쟁의 의의

이 논쟁은 노동운동계 내부에서 당시로서는 활동가운동 조직들간의 마지막 노선투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노동운동 내에서의 정황을 기준으로 하면, 이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노협' 노선의 폐기 내지는 민주노조 운동에서의 전노협 중심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내부정치적 목표가 배경에 자리잡고 있었다. 즉 <ILO공대위>에서 사실상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와 다를 바 없는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전노대)>로 전화해가는 과정에서 노조운동의 총노선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참여의 폭을 확대하되 노조운동의 주도권을 상대적으로 온건한 비생산직 노조 쪽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그 배경에 있었다. 둘째는 노동자 정치운동(정당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던 조직에서 그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세력, 즉 전노협과 전국노운협 지도부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마지막 공세의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학계에서의 논의 확산과는 별개로 이 소모적이고 자기파괴적인 논쟁은 결과적으로 한국노동운동의 총노선의 이념적 하향평준화의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임영일 2001: 183-184). 이는 전노협의 전투적 조합주의를 위기의 원인으로 꼽는 이들

의 주장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노동운동 일반이 지닌 약한 전투성, 업종, 연대회의 그리고 전노협 등으로 분화된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의 분화, 나아가 노동자정치운동의 대중운동과의 분리 등 노동운동의 현실로부터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광일 2000: 249).

(4)참고문헌

강수돌 · 황기돈, 1992,「'노동운동;의 위기인가, '노동운동론'의 위기인가」,『사회평론』9-10호

김동춘, 1993,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조직화의 실패」,『경제와 사회』, 겨울

김수진, 1995,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전망: '사회적 합의' 실험과 조직재편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25호

김익진, 1992, 「'퇴조기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한다」,『노동운동』9월호

김진균, 1992, 「민중민주주의의 전망」, 한국사회학회 · 한국정치학회,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김형기, 1992, 「'진보적 노자관계'와 '진보적 노동조합주의'를 위하여」,『경제와 사회』, 가을

노중기, 1995,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1987-1992」, 서울대 박사논문, pp.11-16, 306-338

박동, 2000,「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협약의 정치에 관한 연구: 1987-1998」, 고려대 박사논문, pp.16-18

박세일, 1992, 「노사대결론에서 노사합작론으로」,『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선택』, 동아일보사

박승옥, 1992, 「한국노동운동, 과연 위기인가」,『창작과 비평』20권 2호, 여름

박승호, 1992,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조합주의적 한계를 시급히 극복하자」,『노동운동』7월호

이광일, 2000,「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pp.247-269

임영일, 1992,「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경제와 사회』, 가을

임영일, 2001,『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출판부, pp.18-186

임혁백, 1992,「민주화시대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틀 모색: 국가, 시장,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 한국사회학회 공동학술발표회 발표논문

임현진 · 김병국, 1991,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계간 사상』, 겨울

최규엽, 1992,「'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을 비판한다」,『노동운동』 7월호

최장집, 1992,「한국의 노동계급은 왜 계급으로서의 조직화에 실패하고 있나」, 한국사회학회 ·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Ⅳ. 참고문헌

1. 노동운동

1) 민주노조운동

(1) 단행본

강순희, 1998, 『한국의 노동운동: 1987년 이후 10년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권형철 정리, 1994, 『한국변혁운동논쟁사』, 일송정
김동춘, 1995,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김명시, 1989, 『전노협건설과 노동조합운동의 현단계』, 백산서당
김석영, 1984,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이삭
김인동, 1985,「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전개와 평가」, 김금수·박현채 외,『한국노동운동론1』, 미래사, 1985
김정한 외, 1989,『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김현상, 1987,『현단계 노동운동론: 자주적 노동조합 건설운동』, 백산서당
노동문제연구소 편, 1991,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 비봉출판사
동일방직 복직투쟁위원회, 1985,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박근영, 1984, 『공장옥상에 올라』, 풀빛
박덕재, 박기성, 1990, 『한국의 노동조합 2: 단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박현채 외, 1985, 『한국자본주의와 노동운동』, 돌베개
박현채, 김금수 외, 1985, 『한국노동운동론 1』, 미래사
방현석, 1999, 『아름다운 저항』,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책
부천지역 금속노동조합 엮음, 1989, 『기업별노조의 벽을 넘어서』, 좋은 책
서관모·심성보 외, 1989,『현단계 한국사무직 노동운동』, 태암
서울노동운동연합 엮음, ?????, 『선봉에 서서- 6월 노동자 연대투쟁 기록』, 돌베개
신광영, 1994,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나남
신인령, 1995, 『노동법과 노동운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안승천, 2002, 『한국노동자운동, 투쟁의 기록: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박종철출판사
우리노동문제연구원, 1989,『민주노조운동의 현황과 전망』, 백산서당
원풍모방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1987, 『민주노조10년: 원풍모방 노동조합활동과 투쟁』, 풀빛
이목희, 1996,『한국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초와 진로』, 풀빛
이수원, 1994,『현대그룹노동운동, 그 격동의 역사』, 대륙
이영민, 1988, 『노동자 투쟁을 통해 본 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죽산
이영희, 1989,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영학출판사
이옥순, 1990,『나 이제 주인되어』, 녹두
이태호, 1982, 『근로자의 벗』, 일월서각
이태호, 1986, 『노동현장의 진실』, 금문당
이판돌, 송수근 외, 1988, 『외쳐라 천만 노동자여-한영알미늄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풀빛

임영일, 1998,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변호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학교 출판부
전YH노동조합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1984,『YH노동조합사』, 형성사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1989,『공장에서 전국으로 전진하는 노동운동』, 사계절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외, 1991, 『노동운동 탄압백서』, 도서출판 이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1,『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사례 · 연표 · 명단』, 현장에서 미래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1,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전태일기념사업회, 1991,『한국노동운동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정현백, 1991,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한길사
조승혁, 1981,『도시산업선교의 인식』, 민중사
조영래, 1991, 『전태일 평전』, 돌베개
최장집, 1988,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7, 8월 노동자 대중투쟁』, 민중사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 1988,『한국 노동운동의 이념』, 정암사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 1989,『한국 사회변혁운동과 노동운동』, 정암문화사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 1990,『최근 노동운동의 동향과 노사관계의 과제』, 정암출판사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 조승혁 · 황영환 엮음, 1987,『노동조합이라니, 맛 좀 봐야겠군』, 정암사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 조승혁 · 황영환 엮음,『사장님 저는 꼭 다시 와서 일하게 될 겁니다』, 정암사
한국노동연구원, 1989, 『한국의 노동조합1: 상급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민주노동자연합, 1994,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한국사회사연구회, 1991,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 문학과 지성사
한국사회연구소, 1989,『한국사회노동자연구 I · II』, 백산서당
한국사회연구소, 1990,『다국적 기업과 노동운동』, 백산서당

(2) 학위논문

김금녀, 1991, 「80년대 언론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성, 1989, 「정치변동의 관점으로 본 한국 노동운동의 성격: 1987년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낙종, 1997,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현황과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춘, 1993,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 1987년 이후 중공업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민호, 1997, 「노동교육운동에 관한 연구: 인천 '노동자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보현, 1996, 「한국 노동운동의 위축과정 분석: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석현, 1988, 「한국노동운동의 성격에 관한 사적 고찰」,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행, 1992,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발달과정과 주요과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미, 1994,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분리와 연대: 1980년대 이후 부천 지역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성, 1990, 「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철, 1989, 「8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전개와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중식, 1998, 「한국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집합행동에 관한 연구: 1997년 1월 총파업을 중심으로」, 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영미, 1991, 「80년대 언론노조운동에 관한 연구: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규수, 1990, 「한국 화이트칼라 노동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동, 1995, 「한국노동운동의 리더쉽 형성에 관한 연구: 87-89년 울산, 안양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양선, 2002, 「구조조정기 한국노동운동의 선택: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일, 1997,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연대활동과 연대조직의 발전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종, 1992, 「80년대 한국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운동에 과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준홍, 1988,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노동당사자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섭, 2000, 「노동자교육프로그램에 나타난 사회행동의 속성과 그 변화: Y 산업선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복장규, 1981,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수철, 1983,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동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금융노조와 관련하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지혜, 1990, 「80년대 노동자 언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인령, 1985, 「노동기본권 연구: 한국노동자의 노동삼권 보장의 이론과 실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현철, 1987, 「한국에서의 노동운동과 그 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혜성, 1993, 「사무직 노동조합운동과 성별위계구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세제, 1994, 「1987년 이후 한국의 대기업 노조운동 변화에 대한 일 연구: 현대자동차노조에서 전투적 노조론의 침체를 중심으로」,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육태수, 1996, 「한국의 민주화와 노동운동」,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명, 1991, 「1980년대 한국노동운동에 관한 일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란, 1994, 「노동조합운동의 내부정치연구: 내부정치 분석모델구성과 지하철노조의 사례분석」,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철, 1991, 「한국노동운동의 지역적 특성, 1987-1990: 포항, 울산, 마산, 창원지역의 비교,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수행, 1990, 「한국노동운동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새로운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민, 1987, 「한국 노동조합 운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복, 1994, 「한국 화이트칼라 노동운동의 성격변화에 간한 고찰: 금융산업노조, 언론노조를 중

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홍, 1991, 「식민지 파시즘하에서 노동운동」,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성, 1990, 「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현, 1991, 「노동운동에 대한 한국신중간계급의 인식연구」, 서강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호, 1986, 「한국노동운동과 노동자 계급의식: 허위의식을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호, 1992, 「한국 노동자 계급의식 형성 연구: 1980년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동순, 1988,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동식, 1994, 「민중교회에서의 노동자 교육」, 한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홍근, 1999,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대한 연구, 1987-1997」,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영기, 1986, 「비제도적 노동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성기, 1993, 「한국의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운동의 이념과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재희, 1994, 「한국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이 형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1987-1992」,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창화, 1975, 「한국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사적 고찰」,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경희, 1996, 「한국 노동운동의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승철, 1992, 「화이트칼라 노동운동의 계급적 성격에 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준, 1990, 「노동쟁의의 정치, 경제적 배경과 결정요인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1987년 여름의 노사분규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근, 1992, 「1970년대 한국노동운동에 관한 일 고찰」,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은영, 1998,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노조운동의 조직강화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일반논문

권순미, 2000,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과 대만의 노동운동 비교: 1987-1996년을 중심으로」, 『고려대아시아연구』 1
김균, 1991, 「한국의 자본축적과정과 노동운동」, 『고려대노동문제논집』 9
김성진, 1986,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운동」, 『경남대경대문화』 19
김세균, 2002, 「1987년 이후의 한국노동운동」, 『한국정치연구』 11-1
김세균, 2002,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진보평론』 13
김수진, 1995,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전망」, 『경제와 사회』 제25호, 봄
김영수, 1989, 「한국사회 성격과 노동운동」, 『서강』 19
김진균, 1995,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와 특징:'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전개과정과 주요활동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 2
김형기, 1992, 「'진보적 노자관계'와 '진보적 노동조합주의'를 위하여」. 『경제와 사회』, 가을
김혜란, 2000, 「1999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4 · 19파업에 관한 보고서」, 『진보평론3』, 봄

노중기, 1994, 「1987년 이후 거시적 노자관계의 변동과 노동운동」, 『동향과 전망』 21
문일출, 1985, 「부당노동·민주노조·탄압 그리고 해고의 전말: 협진양행·유니전·대우어패럴 사건 보고」, 『현실과 전망2』, 풀빛
박성인, 2000, 「민주노조운동과 대중파업」, 『진보평론3』, 봄
박승옥, 1990, 「7, 8월 노동자대투쟁을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 비평』 (여름호)
박승희, 1992, 「'신조합주의'의 현실성에 대하여」, 『경제와 사회』, 가을
박영기, 1992, 「노동운동에 대한 여러 이론의 현대적 평가」, 『노사관계』
박준식, 1987, 「노동운동을 통해 본 노동자 의식의 변모」, 『산업사회 연구』 2집
박준식, 2001, 「60-70년대의 노동운동」, 『노무관리』 13-157
박형준(1988), 「88년 상반기 노동자 투쟁의 추이와 전망」, 한국사회연구소, 『동향과전망』, 상반기, 태암
송호근(1991), 「권위주의 한국에서의 노동조합」,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 문학과지성사
엄주웅, 1995, 「변혁적 노동운동의 대중화와 계급적 지평의 확대」. 조희연 엮음, 『한국사회운동사: 한국변혁운동의 역사와 80년대의 전개과정』, 한울
이강로. 1999, 「한국에서 진보적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진행: 1990-1999」, 『한국정치학회보』 33-3
이광일, 1996, 「80년대 한국의 '급진적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정치비평』 1
이민영, 1998, 「산업민주주의와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산업노동연구』 4-2
이원보, 1997, 「노동운동의 양대세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동향과 전망』 35
이원보, 2000, 「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 1961-1987」, 『노무관리』 144, 145
이정택, 1992, 「유연적 노사관계론」, 『경제와 사회』, 가을
이종호, 2000,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투쟁」, 『진보평론3』, 봄
이중희, 1988, 「대우자동차 임금인상투쟁」, 『동향과전망』, 상반기, 태암
임영일, 1992,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경제와 사회』, 가을
임영일, 2000, 「노동체제의 전환과 산별노조: 현황과 쟁점」, 『경제와 사회』, 제48호, 겨울
임인애, 2000, 「실패한 상흔은 오래 지속된다: 98 현대자동차, 파업을 넘어서는 사람들」, 『진보평론3』, 봄
장명국, 1985, 「해방후 한국노동운동의 발자취」, 김금수·박현채 외, 『한국노동운동론1』, 미래사
장홍근, 1995, 「경영합리화의 양면성과 사무전문직 노동운동의 선택」, 『경제와 사회』 제25호
정영태, 1996, 「노동자 의식을 통해 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방향」, 『인하대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조효래(1988), 「현대엔진 민주노조 사수투쟁」, 『동향과전망』, 상반기, 태암
조효래, 1988, 「중공업 부문 독점대기업에서의 노동쟁의에 관한 연구」, 『현실과 과학』 1
조희연, 1990, 「80년대 노동운동의 변혁론적 인식」, 『사회와 사상』 18
채규옥, 1992, 「한국 노동조합의 발전과정과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노동운동의 성격과 특징을 중심으로」, 『원광대대학원논문집』 10

(4) 잡지·저널·기타

강진석, 1988, 「한국노동운동의 전개와 과제」, 고대문화편집위원회, 『고대문화』 가을, 제29집
경원세기·대흥기계·동양에레베이터노동조합 홍보부(1992),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의 한길로!: 부천

3사 공동투쟁」,『새벽』 여름, 제13호, 석탑
권용목, 1988, 「현대그룹 노동운동사 1」, 『새벽』 1호
권용목, 1988, 「현대그룹 노동운동사 2」, 『새벽』 2호
김강민 외, 1988, 「현단계 노동운동의 쟁점」, 『현실과 과학』 2
김경동, 1968,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과 장애」, 『대화』 8
김문수, 1986,「어느 실천적 지식인의 자기반성」,『현장』6, 돌베개
김문수, 1989,「공권력 · 재벌에 맞선 노동자들: 현대 · 지하철노조의 파업투쟁」,『말』5월호, 제35호
김성훈, 1986,「85년 노동운동에 관한 두 개의 평가」,『현장』6, 돌베개
김영중, 1991,「노동조합의 정치투쟁에 대하여」, 부산노동자료연구실,『지역과 노동』 제9호 9월호, 지노
김유선, 1999, 「민주노조운동의 발자취와 과제」, 『고대문화』 49
김진옥, 1984,「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 80년 봄 이후 노동쟁의의 체계적 정리」,『현장2』, 돌베개
김치선, 1968, 「법에서 본 노동자의 위치: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과 장래」, 『대화』 8
박대순, 1984, 「한국노동운동의 전개과정」, 『현대노사』 7
박동, 2002, 「2002년 노동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노동법률』 128
박수경, 1990,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적 고찰」, 『이화여대녹우회보』 31
박승호(1992),「무너지고 있는 총액임금제와 투쟁방향」, 전국노운협,『노동운동』6월호, 제19호
양은진, 1990,「'90임투의 방향과 노동운동의 진로」, 지역사회문제 자료연구실,『지역과 노동』 제6호
윤근식, 1984, 「노동운동의 본질과 이념의 흐름」, 『현대노사』 13
윤우현, 1992,「'92 임투의 전망과 과제」, 한국민주노동자연합,『우리노동』 봄, 제35호
이기철, 1992,「'92 임투, 적극적인 공세로 정면돌파를」, 전국노운협,『노동운동』6월호, 제19호
이정로, 1989,「합법정당을 둘러싼 세 가지 노선과 '노동해방'진영의 계급연합 전술」,『월간 노동해방문학』 제8호, 송년호
이정식, 1995, 「복수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노동교육』 7
이충열, 1991,「5월투쟁이 노동조합에 제기한 또 하나의 과제」,『지역과 노동』 제9호 9월호, 지노
이태호, 1980. 6, 「어용노조, 그 실태」, 『문예중앙』
장명국, 1992,「총액임금 5%와 대응방향」,『새벽』 여름, 제13호, 석탑
정봉진, 1984,「1984년도 신규노조 결성현황과 과제」,『현장2』, 돌베개
편집부, 1984,「84년도 부당노동행위 사례」,『현장2』, 돌베개
한경남(1991),「91년 임투를 통해 본 민주노조운동의 현실과 과제」, 부산노동자료연구실,『지역과 노동』제9호 9월호, 지노
한승호, 1989,「'선진노동자 정치조직'인가, '선진노동자 투쟁부대'인가」,『월간 노동해방문학』 제5호, 9월호
한승호, 1989,「'전국회의'내의 '조합주의적 경향'에 대한 경고!」,『월간 노동해방문학』 제8호, 송년호
한승호, 1989,「'전노협'결성과 '전노운협'의 진로를 밝힌다」,『월간 노동해방문학』 제3호, 6 · 7합본호
한승호, 1989,「'전노협'기치아래 노동자계급이 전선의 선두에 서자」,『월간 노동해방문학』 제6호, 10월호
허명구, 1990, 「민주노조운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 전환기의 노동운동」, 『말』 49
현대자동차 민주노조실천 노동자회(1989),「'현대자동차' 노조민주화를 향한 선거투쟁의 방향」,『월간 노동해방문학』 제5호, 9월호

현윤실 외, 1984,「우리는 선진조국의 후진 일꾼들: 협진 · 유니전 노동조합의 결성과 와해 전말기」, 『현장2』, 돌베개

2) 지역노동운동

(1) 단행본

마산 · 창원 노동총연합, 1989, 『어깨걸고 나가자: 마창노련 1년을 되돌아보며』, 샛길
이수원, 1994,『현대그룹노동운동』, 그 격동의 역사』, 대륙
인천 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1988, 『87노동자 대투쟁-7,8월 인천지역 사례』, 풀빛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8,『대구 · 울산 지역실태와 노동운동』, 민중사
한국사회연구소, 1989,『한국사회노동자연구II』, 백산서당

(2) 학위논문

송성윤, 1993,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사에 관한 연구: 노사분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이현, 1991,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마산창원 노동조합 총연합을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요, 「1980년대 광주지역 노동운동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일반논문

강인순, 2000, 「마산수출자유지역 일본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탄압과 대응투쟁을 중심으로」, 『경남대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연구원논집』 6
김석준, 1997, 「부산지역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부산법조』 15
김용기, 1989, 「마산-창원지역 노동조합운동: 88년 임금인상투쟁을 중심으로」, 『경남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16
유경순, 2001, 「구로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전개와 특징, 1984년: 구로동맹파업의 주체형성과정에 대하여」, 『역사연구』 제 9호
이상철, 1991,「울산지역 노동운동의 특성」, 한국사회사연구회,『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 문학과지성사
이상철, 1991, 「지역노동운동의 비교연구: 1987-1990년 포항, 울산, 마산, 창원지역의 사례」, 『경제와 사회』 제12호
이창복, 1974,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실태」, 『창작과 비평』 겨울호
조영건 외, 1991, 「주요산업별 노사관계 시태연구: 경남지역 주요 공단을 중심으로」, 『경남대노동복지연구』 10

(4) 잡지 · 저널 · 기타

김용기, 1992, 「지역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 『경남대경대문화』 27
김하경, 1999, 『내사랑 마창노련』(상 · 하), 갈무리
마창노련, 1990, 「89년 마창지역 노동운동의 전개와 평가, 전망」, 『경대문화』 23
마창노련, 1991, 「89년 마창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전망」, 『경대문화』 24
이재현, 1990, 「마창지역 노동운동의 위기」, 『말』 47
이준수, 1989. 6, 「마창노련 정당방위대」, 『월간 노동자』

3) 여성노동운동

(1) 단행본

석정남, 1984,『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송효순, 1982,『서울로 가는 길』, 형성사
이옥순, 1990,『나 이제 주인되어』, 녹두
이옥지 · 강인순, 2001,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1 · 2), 한울
장남수, 1984,『빼앗긴 일터』, 창작과비평사
조순경 엮음, 2000,『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 학위논문

방혜신, 1994,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특수과제의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정혜, 1993, 「의류산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노동자의 조직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정남, 1993, 「부산지역 여성노동운동에서 나타난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 80년대 부산지역의 고무사업장을 중심으로」,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덕순, 1990, 「여성노동자의 여성해방운동과 교회의 여성노동자 선교: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감리교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미경, 2001, 「시민권의 정치와 여성노동운동(1987-1999)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미숙, 1993,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세계적 연구: 섬유업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일반논문

강현아, 1996,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1987년 이후의 정책 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남대 현대사회과학연구』 7

김경희, 1999,「한국 여성노동조합운동의 출현」,『경제와 사회』, 제43호, 가을
장미경, 2001, 「시민권의 정치와 여성노동운동: 주체 인정 운동의 측면에서」, 『경제와 사회』 제50호
이재은, 1991,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 『여성과 사회』 2
정자환, 1993, 「노동운동 속의 성의 정치: 한국여성노동운동의 방향」, 『카톨릭대성심사회학』 2
조순경 외, 1989, 「여성노동과 성적 통제」, 『한국여성학』 5
조옥라, 1994, 「가부장적 기업구조와 여성노동운동」, 『서강대사회과학연구』 3
주경미, 1994, 「80년대 부산지역 여성노동운동에 나타난 지식인활동가의 여성문제인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여성연구논집』 5

(4) 잡지 · 저널 · 기타

김현미, 1999,「한국 노동운동의 담론 분석을 통해 본 성적 재현의 정치학」,『열린 지성』6호(가을/겨울호), 교수신문사
박은식, 1990, 「5.16 이후부터 유신시절까지 3: 한국의 여성노동운동 7」, 『여성』 278호

4) 노동자정치운동

(1) 단행본

공덕수, 2000,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정치: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경진사
김미영, 1991,『마침내 전선에 서다: 남한 선진노동자의 조직활동수기』, 노동자의 벗
박승두, 1996,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중앙경제사
송호근, 1991,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남
이진경 외, 1991,『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향한 민중민주주의 진영의 사상과 실천』, 소나무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엮음, 1991,『'87 · '88년 정치위기와 노동운동』, 거름
한국기독교사회연구소 편, 1999,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총, 1990,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2) 학위논문

감정기, 1994, 「한국노총 정치참여의 특성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3공화국-제6공화국 기간의 노동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공광규, 1996,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덕수, 2000, 「한국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곽동준, 1991,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수, 1999, 「한국노동자 정치운동과 민주노조운동간의 연대관계」, 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왕식, 1982, 「한국정치과정에 있어서 한국노총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웅수, 2000,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영, 1993,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자정당 출현 조건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 1993, 「아시아 권위주의국가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용, 1988, 「한국노동자계급의 분화와 혁신정당의 역할」,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철, 1989,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우홍, 1989,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동, 2000,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협약의 전치에 관한 연구: 1987-1998」,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상종, 1993, 「한국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훈, 2001, 「사회적 합의의 노동정치」,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덕신, 2001,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제약용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수미, 2001, 「한국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 그리고 헤게모니: 이념과 쟁점형성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의 동시성장과 정치세력화」,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일, 2000,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규택, 1990, 「한국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고찰」,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영일, 1992, 「한국 노동자 계급의식 형성 연구: 1980년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경제, 1983,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희, 1999,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연구: 정치파업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소진, 2000, 「한국의 정치변동과 노동계급: 1987년 이후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연정, 1993, 「현대 한국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 19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노협과 한노당의 정치세력화 실패원인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재관, 2001,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노동정치」,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호승, 1999,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연구: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재영, 1989,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효래, 1995, 「민주화와 노동정치: 한국, 브라질, 스페인 비교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승채, 1993,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일반논문

김금수, 1997, 「한국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망과 모색」, 『당대비평』 2
노중기, 1996, 「노사관계 개혁과 한국의 노동정치」, 『경제와 사회』 31
박성인, 1998, 「현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4-2
박승두 1995,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법률 문제」, 『부산법학』 2-1

송호근, 2000, 「박정희 정권의 국가와 노동: 노동정치의 한계」, 『사회와 역사』 58
이종호, 2002,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평론』 13
장상환, 1999,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현실성」, 『동향과 전망』 42
정영태, 1990, 「노동조합 정치참여의 역사와 평가」, 『인하대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9
정영태, 1991,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건의 모색: 전평과 전노협의 비교를 통하여」, 『인하대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10
정영태, 1995, 「한국에서의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노총과 집권여당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하대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13

(4) 잡지 · 저널 · 기타

강현, 1997, 「87에서 97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역사적 대의」, 『고대문화』 45, 46
김영래, 1989, 「한국사회의 노동조합과 정치참여」, 『현대사회』 34
박승두, 2000, 「2000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망」, 『노동법률』 104
박중성, 1989, 「현시기 노동계급의 진출과 그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적 과제: 노동 조합과 노동자당을 중심으로」, 『연세』 29
박현채, 1989, 「한국의 노동조합운동과 정치활동」, 『노사』 10
연기영, 1991, 「노동조합과 정치활동」, 『노동판례』 35
특별취재단(1991), 「충격!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의 실체와 사건전모」, 『월간 노동해방문학』 제10호

2. 노동통제 및 노동정책

(1) 단행본

김형기(1988),『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까치
박준식, 1996, 『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7, 『한국사회의 노동통제』, 민중사

(2) 학위논문

강이수, 1984, 「종속적 발전과정에서의 노동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현아, 1998, 「1990년대 한국의 노동력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기종, 1989, 「한국의 노동통제정책에 간한 연구: 국가조합주의적 이론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호, 1990,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통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은, 1997, 「한국 노동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성 분석연구: 한국 노동정책의 사적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욱, 1989, 「1970년대 한국의 노동정책에 관한 분석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호, 1985, 「한국 노동정책의 개선을 위한 연구: 노동자의 상대적 발탈감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종, 1986, 「한국노동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욱경, 1991, 「한국의 노동정책 구조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종욱, 1989, 「한국의 노동통제와 국가: 1970년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승, 1985, 「한국노동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규, 1992, 「1980년대 한국의 노동통제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조합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론, 1990, 「1980년대 한국의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의 결정요인 분석과 독점자본주의적 특성의 해명을 중심으로」,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병일, 1990, 「한국 노동통제의 성격에 관한 고찰: 조합주의의 관점에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중기, 1995,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1987-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종주, 1986, 「한국근대화와 국가코포라티즘적 통제: 제 3-4 공화국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준식, 1985, 「한국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정부의 관계: 민간제조업 부문의 경우를 중심으로: 1970-1980」,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임, 1997, 「한국기업복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85-1994: 기업내적 요구와 국가 노동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찬주, 1991, 「제 4공화국에서의 국가조합주의적 통제에 관한 고찰: 전경련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창완, 1986, 「한국의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상원, 1989, 「한국산업화에 있어서 국가통제: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영주, 1999, 「한국의 노동시간단축 사례연구와 노동정책과제」,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형석, 1987, 「한국의 조합주의적 노동통제에 관한 연구: 노사협의 제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송교영, 1992, 「국가발전적 관점에서의 노동정책변화에 관한 고찰」,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규양, 1996, 「1987년을 전후한 노동통제의 비교연구: 국가조합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석기, 1995, 「6공화국 노동통제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병설, 1990, 「국가조합주의의 노동통제에 관한 일 연구: 조합주의의 유형 및 60-70년대 한국의 사례」,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현희, 1996, 「노동통제장치로서의 기업문화: 현대중공업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건정, 1990, 「생산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 연구: 전자업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목훈, 1992, 「한국의 노동통제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제3,4,5공화국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용배, 1989, 「한국에 있어서 코포라티즘에 관한 연구: 노협중앙회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우현, 1989, 「한국 노사관계정책의 기본성격에 관한 연구: 산업화단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록, 1990, 「한국노동통제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소운, 1996, 「한국의 노사관계조정에 있어서 국가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우, 1987, 「국가코포라티즘적 관점에서 본 한국정부의 노사관계개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효빈, 1990, 「한국 노동이익집단에 대한 국가조합주의적 통제」, 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성희, 1994, 「한국 노동통제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1987년 이후 노동운동과 노동통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신욱, 1989, 「한국산업화과정에서의 노동통제와 노동저항」,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호중, 1997, 「한국의 산업화전략과 국가구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3-6공화국의 제도 구조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희태, 1989, 「노동조합의 발생을 통해 본 한국철강산업의 노동과정과 노동통제: 포항제철과 그 구내하청업체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진오, 1987, 「한국에 있어서 노동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현석, 1990,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역할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성수, 1986, 「생산과정에서의 노동통제에 관한 일고」,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석태, 1993, 「한국의 노동조합정책 결정과정의 비교연구: 4-5공화국 및 5-6공화국 전환기의 사례비교」,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유정, 1988, 「한국의 산업화와 국가의 노동통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윤식, 1996, 「코포라티즘과 한국노동통제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노태우정권을 대상으로

(1987-1988)」,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태종, 1991, 「한국노동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3, 4, 5공화국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일반논문

김병조・김순영, 1996,「한국의 여성 시간제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경제와 사회』 제31호, 가을
김성국, 1988,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노동통제론」, 『현대사회』 30
김영성, 신기원, 1996, 「한국정부의 정권변동에 따른 노동정책의 변화1: 해방이후 제 5공화국까지」, 『충남대사회과학논총』 7
김영종, 1994, 「산업화과정의 노동통제정책의 발전」, 『동국논집』 13(인문사회과학 편)
김욱경, 1996, 「박정희 권위주의정권의 노동정책」, 『경희대행정문제연구』 3-1
김준, 1988, 「한국사회의 노동통제: 한국노동자의 어제, 오늘, 내일」, 『월간중앙』 147
김준, 1989, 「제6공화국의 노동통제정책」, 『경제와 사회』 3
김차두, 1996, 「1970년대 한국경제의 축적위기와 노동정책」, 『경성대사회과학연구』 12
김차두, 1998, 「1970년대 유신정권의 노동통제정책」, 『경성대논문집』14(인문사회과학 편)
노중기, 1996,「노사관계 개혁과 한국의 노동정치」,『경제와 사회』, 제31호, 가을
노중기, 1996, 「6공화국 국가의 노동통제: 노정권시기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상지대사회과학논총』 12
노중기, 2000,「한국사회의 노동개혁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비교」,『경제와 사회』 제48호, 겨울
노중기, 2002,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진보평론』 13 (가을호)
박승희, 1990, 「공장자동화과정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 한국의 경우」, 『경제와 사회』 겨울호
박승희, 1990, 「노동통제와 관련시켜본 대기업 일관작업장의 임금제도의 성격과 변화: 1987년 분규급증의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사회학』 24
박승희, 1992, 「신조합주의의 현실성에 관하여」, 『경제와 사회』 가을호
임영일, 1996, 「한국노동정책의 구조와 노사관계: 96년 노동정책 방향의 검토를 중심으로」, 『경남대사회연구』 9
임영일, 1998,「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 노사관계」,『경제와 사회』, 제40호, 겨울
전병유, 1989,「한국자본주의와 임노동의 구조변화」,『사회와 사상』5월호
조영철, 1995, 「노동통제와 임금제도」, 『노동경제논집』 17-2
한석태, 1996, 「노동통제양식의 변화와 정치, 경제적 용인, 청주대사회과학논총 15
박준식, 1990, 「한국사회의 노동운동과 국가정책: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적 특성과 발전의 방향」, 『연세대동서연구』 3
박준식, 1998, 「노사관계, 제도, 고용전략, 고용체제의 변동」, 『경남대사회연구』 11
심영희, 1984,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사회통제: 조합주의적 노동통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 4-1
이대인문과학대 사회과학 편, 1986, 「국가노동통제에 관한 연구: 법적통제의 사회학적 의미와 실제」, 『이화여대사회학연구』 18
이성균, 2000,「경제위기와 공업도시 노동시장의 변화: 울산과 창원의 사례」,『경제와 사회』 제48호, 겨울

이성철, 1986, 「노동통제에 관한 사회학적 검토」, 『경남대사회연구』 2
이성철, 2001, 「노동과정과 노동통제」, 『연대와 실천』 89
이영희, 1998, 「한국의 생산체제는 변화하고 있는가」, 『경제와 사회』, 제40호, 겨울
이정택, 1988, 「수출지향적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동통제와 노동운동간의 역학관계」, 『한국사회학』 21
이정택, 1989, 「노동통제와 국가」, 『현대사회』 34
이중희, 1988, 「노동통제양식과 그 변화」, 『사상과 정책』 (여름호)
전신욱, 1990, 「한국의 노동통제정책의 저항과 변화」, 『한국행정학보』 24-1
전신욱, 1993, 「노동정책의 이론적 기초로서 코포라티즘 연구」, 『서경대학교논문집』 21
전신욱, 1994, 「제6공화국의 노동통제정책」, 『고려대노동문제논집』 11
정이환, 1991,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일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 문학과지성사
차성수, 1989, 「국가권력과 자본의 노동통제」, 『사회와 사상』 9
최장집, 1983, 「민족주의와 코포라티즘」, 『세계의 문학』 (겨울호)
최장집, 1983, 「한국 노동조합 연구의 정치학적 접근: 코포라티즘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23

(4) 잡지 · 저널 · 기타

구연춘, 1988, 「정부의 노동정책방향」, 『현대노사』 60
권오동, 1988, 「노동통제와 노사갈등」, 『광장』 185
김만재, 1994, 「신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 자본 · 노총의 입체작전」, 전국노운협, 『노동운동』 1 · 2월호, 제29호
김준호, 1990, 「노동법 개정운동을 통해 본 '89 노동운동의 성과와 교훈」, 지역사회문제 자료연구실, 『지역과 노동』 제6호
이정택, 1988, 「한국 노동과정에서의 노동통제와 노동저항」, 『현상과 인식』 42

3. 노동계급의 형성 및 노동자 의식

(1) 단행본

구해근, 2000,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김강민, 1985, 『노동자는 이땅의 노예인가- 부산지역 신발노동자의 삶과 의지』, 현장3

김경숙 외, 1986,『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돌베개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영등포지구위원회, 1989, 『노동자는 하나다: 서노협 영등포지구 연대활동 평가』, 동녘

최재현, 1987, 『공업노동자의 사회의식』, 서강대학교부설산업문제연구소

한국사회연구소, 1989,『한국사회노동자연구 I 』, 백산서당

한국사회사연구소, 1990, 『노동계급형성이론과 한국사회』, 문학과 지성사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3,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녹두

(2) 학위논문

강수돌, 1987, 「생산기술과 노동통제 및 노동자 의식에 관한 연구: 자동차공업의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효식, 1989, 「항공운송업 화이트칼라 노조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경임, 2000, 「노동자 주체성의 특징과 교육적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성일, 1995, 「한국노동자 계급의 계급형성과 계급의식」, 한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희완, 1991, 「한국 노동자들의 사회상과 계급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 1993, 「사무직 여성노동자 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하위사무직을 중심으로」,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철, 1987, 「산업화과정이 노동계급의 역량증대에 미친 영향: 노동계급의 양적성장과 내부구성의 변화, 궁핍화 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림, 1990, 「한국 노동자 계급의식의 발전에 관한 연구: 노동자조직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영민, 1990, 「한국사회의 노동자 계급의식 연구: 분단극복의식을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기남, 1988, 「여성노동자들의 의식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호, 1988, 「한국 노동자 계급의식의 형성과정 및 성격에 관한 연구: 1970년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해광, 1993, 「한국 화이트칼라의 계급적 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병석, 1991,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의식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설철원, 1998, 「1980년대 한국 노동계급의 전투성 형성에 관한 일 연구: 대공장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성호, 1989, 「한국사기업근로자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대규, 1994, 「한국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형성」, 경성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승무, 1994, 「반월공업공단 노동자계급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상구, 1994, 「한국 생산직 노동자의 상태변화에 관한 연구: 87년 이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호, 1989, 「노동계급형성과 노동자의식에 관한 연구: 87년 7, 8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소진, 2000,「한국의 정치변동과 노동계급」,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란, 1985,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와 계급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성우, 1995, 「1980년대 후반 여성노동자 조직활동가의 여성해방의식 연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성우, 1990, 「한국의 화이트칼라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금융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명주, 1992, 「한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1963-1972」,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일반논문

김용기, 임영일, 1989, 「한국사회의 노동자 계급과 노동운동」, 『경제와 사회』 3
박형준, 1989, 「노동자계급과 중간층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제검토」, 『경제와 사회』 3
배규한, 1989, 「한국 공업화와 근로자 의식의 변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7-3
백인욱, 1989, 「노동자계급 상태연구 방법론 시론」, 『경제와 사회』 3
이영희, 1990,「'과학기술혁명'과 화이트칼라 노동자」,『창작과비평』여름, 제18권 제2호
임영일, 1991. 「노동자계급, 노동운동과 노동자계급론」, 『창작과 비평』 19-2
정건화, 1991, 「한국사회노동자, 어떻게 살고 있나」, 『동향과 전망』, (봄호)
조돈문, 1994,「제3세계에서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남한과 멕시코의 비교연구」,『경제와 사회』, 제21호, 봄
최규엽, 1990, 「80년대 노동조합운동과 전노협: 한국노동자 계급의식 어떻게 변해왔나」, 『역사비평』 11

(4) 잡지 · 저널 · 기타

김민우, 1989, 「87년 대파업 이후 노동자대중 계급의식의 현재」, 『노동해방문학』 3
임영일, 1985, 「의식의 사회성과 노동자 의식」, 『오늘의 책』 (봄호)
장명국, 1975, 「한국노동계층의 구조와 현황」, 『노동공론』
정광모, 1990,「사상공단지역 노동자의 주거문제와 사회의식」, 지역사회문제 자료연구실,『지역과 노동』제6호

4. 노동운동논쟁

Ⅲ-4. 노동운동논쟁 해제 참조.

한국 노동운동 관련 문헌 해제

발행일: 2003년 04월 28■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